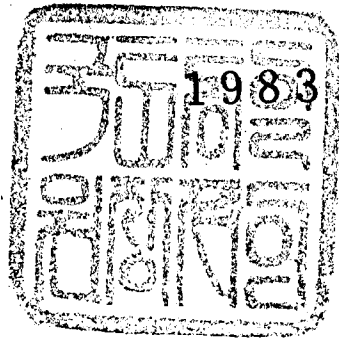


# 統一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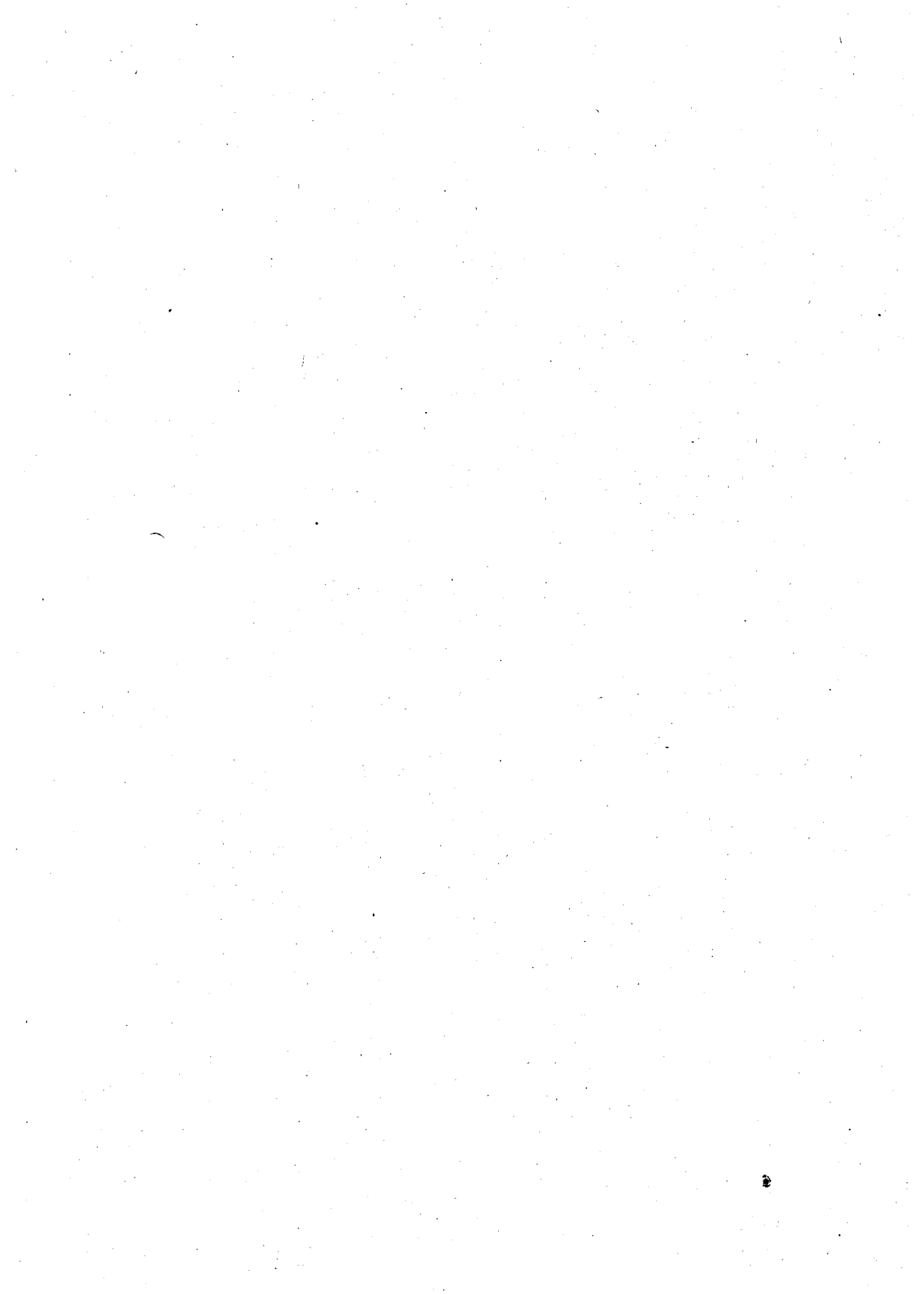


國立統一院  
統一研究所



# 統 一 問 題

I. 우리의 統一政策 .....	1
II.北韓共產集團의 對南戰略 .....	59
III. 韓半島의 周邊情勢 .....	123



# I. 우리의 統一政策

宋 榮 大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머리말 .....	3
2. 우리 統一方案의 變遷過程 .....	5
가. 政府樹立後 動亂休戰까지 .....	5
나. 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	6
다. 4.19以後 5.16까지 .....	7
라. 5.16以後 10.26 事態까지 .....	8
마. 10.26 事態以後 1980年末까지 .....	9
바. 1981년부터 現在까지 .....	10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	11
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背景 .....	11
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內容 .....	13
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主要特徵 .....	16
라. 「20個 示範實踐事業」提議 .....	20
마. 「南北韓 高位代表會談」提議 .....	23
4.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 .....	23
가. 「高麗聯邦制」의 內容 .....	24
나. 「高麗聯邦制」의 概念 .....	26
다. 他共產國家의 聯合戰術 事例 .....	31
라. 「高麗聯邦制」의 底意 .....	32

마. 「高麗聯邦制」의 非現實性 .....	36
5. 南北韓의 統一方案 比較( 우리 統一政策의 正当性 ) .....	37
가. 統一의 主體面 .....	37
나. 統一의 概念面 .....	39
다. 統一의 原則面 .....	40
라. 統一의 方法面 .....	42
마. 相互認定問題 .....	43
바. 社會開放·交流協力問題 .....	44
사. 統一의 節次面 .....	44
아. 對話機構問題 .....	46
자. 前提條件問題 .....	47
차. 統一의 目標面 .....	48
6. 統一의 展望 .....	49
參考文獻 .....	52

## 1. 머 리 말

무릇 어느 個人에게나 꿈과 理想이 있어야 成功하고 發展할 수 있듯이, 어느 한 民族國家에게도 그 指向하는 뚜렷한 目標과 원대한 理想이 있어야 隆盛하고 發展할 수 있다. 또한 歷史發展의 過程을 통해, 어느 時代나 그 時代를 이끌어간 時代精神과 最高의 價值가 있었고, 이것에 充實한 民族國家는 隆盛하고 繁榮을 누려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祖國이 南과 北으로 갈라진 지 37年동안, 分斷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 民族의 理想과 時代精神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祖國의 平和統一일 것이다. 分斷의 原因이야 어쨌든 우리 世代에 와서 分斷되었으니 만큼, 그 分斷을 없애는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 스스로의 지혜와 能力으로 解決해야 할 責任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특히 分斷의 길이가 日帝植民統治 35年보다 더 길어지면서 南北韓의 異質化와 斷絶이 深化되고 있는 現實을 볼 때, 우리는 民族史의 斷絶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斷絶된 民族史를 다시 이어 發展시키기 위해서도 統一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國民 가운데는 統一問題에 懷疑的이거나 否定的 態度를 갖는 사람이 없지 않다. 과연 統一은 되겠는가? 굳이 統一할 必要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統一은 相對가 있는 問題요, 周邊國家의 利害와도 關聯이 있는 問題인 만큼, 우리의 一方的인 念願이나 努力만으로는 成就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内外情勢의 變化로 우리에게 統一의 機會와 与件이 주어질 때, 이것을 統一로 연결시키려면, 평상시 이에 대한 準備과 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이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강인한 意志와 平和統一은 반드시 이룩될 수 있다는 確信을 가지고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基盤을 넓히면서 統一與件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일이다.

특히 80年代를 契機로 分斷祖國의 統一問題는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고 있다.

北韓은 1980年 10月 10日에 開催된 第6次 勞動黨大會를 계기로 소위 「高麗聯邦制」라는 이름의 偽裝平和攻勢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 大韓民國은 1981年初, 第5共和國의 出帆을 前後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次元에서 劃期的이고 積極的인 平和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1981年 1月 12日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議」가 그 효시이며 그해 6月 5日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 提議」를 거쳐, 1982年 1月 22日 천명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大韓民國의 措置들은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靑写真을 提示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80年代에 접어들어, 우리의 統一對象인 北韓內部에도 여러 가지 變化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을 中心으로 한 새로운 政治勢力이 政治權力의 中心部에 浮上하고 있다.

그들은 國際的인 開放化趨勢와 南北韓體制競爭에 對備하여 閉鎖社會를 部分的으로나마 開放할 準備을 갖추고 있고 또 敎條主義的인 經濟體制와 政策을 現實的인 方向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統一에 關聯된 周邊情勢에서 보면, 韓半島 統一問題가 「韓國化」(Koreanization)를 指向하는 方向으로 變貌되고 있다.

즉 統一의 1次的 責任은 韓國民에게 넘겨주고, 韓半島內에서 發生하는 事態의 對外的 波及效果만을 強大國들이 關여하겠다는 양상으로 사정이 바



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統一問題는 自由·共產 兩陣營間 對立의 不可分의 一部로서가 아니라 韓民族内部의 갈등 해소라는 性格을 中心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祖國統一問題가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는 時点에서 統一問題의 本質을 明確하게 把握하고 南北韓 統一政策의 過去와 現在를 分析하면서 統一問題의 장래를 眺望하는 것은 分斷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의 責任이요, 義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기나긴 民族史와 韓半島라고 하는 空間에서 우리가 現在 살고 있는 位置가 어디며 우리가 해야 할 課題가 무엇인가를 再照明하는 일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 2. 우리 統一方案의 變遷過程

大韓民國政府는 政府樹立以來 統一問題를 國家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여러가지 可能한 方案 등을 摸索해 왔다. 大韓民國政府 樹立以後 政府가 제시해 온 統一方案의 變遷過程은 便宜上 ㉑ 政府樹立後 動亂休戰까지 ㉒ 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㉓ 4.19以後 5.16까지 ㉔ 5.16以後 10.26 事態까지 ㉕ 10.26 事態以後 1980年末까지 ㉖ 1981년부터 現在까지 6段階로 나누어 考察해 볼 수 있다.

### 가. 政府樹立後 動亂休戰까지

大韓民國政府는 1948年 8月 15日 獨立政府樹立을 内外에 宣布하고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闡明하였다. 즉 ① 大韓民國政府는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韓半島에 걸쳐 主權을 갖는 唯一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② 選舉가 보류된 北韓에서 早速히 民主的 選舉를

實施하여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00席을 채우도록 促求하며, ② 北韓收復은 北韓동포들의 자발적 意思에 의하여 成就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北韓住民의 自由意思가 繼續 封鎖되는 境遇에는 武力에 의해서라도 北韓에 대한 主權을 回復할 權限이 있음을 明白히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統一方案은 먼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을 摸索하고 그것이 不可能할 境遇는 武力에 의한 統一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주장에 基礎하고 있었다. 이러한 兩面的 手段에 의한 統韓原則은 1960年 4.19 事態에 이르기까지 自由黨政府의 基本立場으로 고수되어 왔으나 그 內容은 다소 修正되었다.

#### 나. 「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休戰協定 第4項에 따라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열린 高位政治會談이 「제네바」會談(1954年 4月~6月)이었다.

이 會談에 參席한 卞榮泰外務長官은 1次發言에서 北韓에서만의 選舉實施를 主張하였으나 聯合國代表들의 希望을 받아들여 韓國統一에 관한 14個項目의 綜合的 提案을 하였는데 그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 ① 6個月 以內에 「유엔」監視下에 大韓民國 憲法節次에 따라 秘密·普通投票에 의하여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
- ② 選舉區의 正確한 人口比例에 따라 國會議員數를 定하기 위하여 「유엔」監視下에 國勢調査를 實施할 것
- ③ 「유엔」監視團員과 立候補者들의 移動 및 言論의 完全한 自由를 保障할 것
- ④ 總選後 서울에서 開催될 全韓國立法府가 憲法을 改正할 때까지는 大韓民國 憲法이 繼續 効力을 維持할 것
- ⑤ 選舉日字 1個月前까지 中共軍은 完全 撤収할 것

⑥ 「유엔」軍의 撤収를 開始하되 「유엔」軍撤収는 統一政府가 全韓國에 대한 完全統治를 達成하고 이를 「유엔」이 確認할 때 完了할 것 등이다.

위의 提案은 韓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建設的이고 理想的인 方案으로 友邦들의 全幅의인 支持를 받았으며 聯合國側의 立場을 대변하는 것으로 看做되었다.

그러나 共產側은 全韓國選舉에 있어 유엔의 監視役割을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로 14 個項을 全面 거부하였다. 원래 共產側은 休戰協定을 그들의 再武裝을 위한 軍事的 休息時間으로 利用하려던 것으로 그들은 터무니 없는 平和的 解決을 운운하면서 會談場所를 상습적인 선전장으로 惡用하였다.

#### 다. 4.19 以後 5.16 까지

4.19 事態에 의해서 政權을 引受하게 된 民主黨政府의 統一方案은 自由黨의 完고한 武力統一論을 철회하고 “南北總選舉에 의한 平和統一”이라는 「제네바」原則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民主黨政府는 1960年 8월에 發表한 外交施政方針에서 「유엔」決議를 尊重하며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選舉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申明하였다.

이러한 民主黨政府의 政策表現 가운데 自由黨政府와 달라진 것은 “유엔決議에 의한”이란 문구를 “유엔決議를 尊重하며”로 바꾼 점이다. 이는 匪·阿新生國들이 대거 「유엔」會員國으로 加入함에 따라 「유엔」會員國 數가 近 100餘國으로 增加한 現實을 考慮한 처処였다.

라. 5.16 以後 10.26 事態까지

軍事革命政府가 統一問題에 대하여 優先적으로 취한 조치는 극도에 달하는 国内政局의 混亂과 反共體制의 弱化, 統一論議의 無秩序를 克服하고 國論의 一致를 圖謀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軍事革命政府의 努力은 民政移讓後 共和黨政府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어 60年代를 통해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구호아래 統一方案의 論議보다는 統一을 위한 力量의 培養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進展되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政府는 60年代에 造成된 國力을 基盤으로 平和統一을 위한 實踐의 方案을 더욱 具體化하고 積極的인 統一意志를 다짐하게 되었다.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은 光復節慶祝辭를 통하여 北韓의 武力赤化 企圖의 포기가 平和統一의 先決條件임을 밝힘과 同時에 南北韓의 어느 體制가 더 좋은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闢과 建設과 創造를 向한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促求하는 「平和統一 構想」을 内外에 宣言하였다.

다음해인 1971年 8月에는 分斷에 기인하는 고통을 人道的인 見地에서 해소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함으로써, 南北韓間의 對決關係를 對話關係로 전환시키는데 劃期的인 措置를 취하였다.

이어 1972年 7月 4日에는 우리 政府가 주도한 非公開 南北高位會談을 통해 南北이 다같이 統一問題를 自主的 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을 全國民 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南北共同聲明」을 유도, 발표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후 1973年 6月 23日에는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통하여 平和統一의 先決要件으로서 韓半島에 있어 平和定着을 具體化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을 提示하였다. 이어 1974年 1月 18日에는 「南北相互 不可

「侵協定」의 締結을 제의함으로써 平和定着의 現實的 方案을 밝혔다.

그리고 政府는 같은 해인 1974年 8月 15日 「平和統一 三大基本原則」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70年代에 들어 이때까지 政府가 밝힌 一聯의 措置들을 集約하여 體系化한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은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둘째, 南北間에 相互 門戶를 개방하고 信賴를 回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對話를 성실히 進行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自由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 그 骨子이다.

뒤이어 1978年에는 南北民間經濟團體 協力기구의 構成을 제의하였고 1979年 1月에는 南北當局者會談을 제의하였다.

같은 해인 1979年 7月에는 南北韓을 当事者로 하고 이에 美國을 추가로 參加시키는 3當局會談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이 모든 제의들에 대해 否定的 態度로 일관하였다.

#### 마. 10.26 事態以後 1980 年末까지

10.26 事態直後 樹立된 第4共和國의 統一政策은 70年代末의 第3共和國의 統一政策 延長線에서 推進되었다. 1980年 1月 11日, 北韓側은 10.26 事態 直後の 우리의 對內事情을 背景으로 金一(로동당 中央委 秘書兼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명의의 편지를 통하여 “南北의 總理끼리 만나 意見交換을 하자”는 反應을 나타냈다.

이에 우리 政府는 南北當局間 會談을 열자는 우리의 제의에 대한 肯

定的 反應으로 評價하고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會談을 열 것을 北韓側에 제의하였다. 實務代表會談은 1980年 2月 6日부터 10次에 걸쳐 열렸으나 北韓側의 會談과 關聯이 없는 政治선전과 對南비방活動으로 인하여 進통을 거듭하다가 그해 9月 24日 北韓側의 會談中斷 宣稱으로 결렬되었다.

#### 바. 1981년부터 現在까지

第5共和国의 統一政策은 1981年 1月 12日, 全斗煥大統領의 南北韓当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제의를 계기로 새롭고 진취적인 面貌를 띄게 되었다.

全斗煥大統領은 1981年 1月 12日 새해 國政演說을 통해 南北韓間에 信賴回復과 戰爭再發防止 및 南北對話의 再開를 통한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南北韓当局의 最高責任者가 번갈아 相互 訪問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어 같은해 6月 5日 全斗煥大統領은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연설을 통하여 北韓側에 「1.12提議」의 수락을 促求하면서 이 수락이 어려울 경우 「南北韓当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열것을 제의하고 그 시기와 장소의 選択은 北韓側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일 이같은 最高責任者會談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동안 南北韓当局이 제의했던 統一方案을 包含하여 雙方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論議하기를 希望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이와 같은 우리 政府의 積極的인 제의도 繼續 外面한 채 뚜렷한 理由없이 否定的 態度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政府는 1982年 1月 22日 歷史的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지금부터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原則, 方法, 過程은 물론이고 統一의 未來

###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像까지를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서, 分断이래 政府가 제시한 가장 具體的, 體系的, 綜合的 統一方案인 것이다.

이어 政府는 1982年 2月 1日,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實踐精神에 입각하여 南北韓間에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交流, 協力, 社會開放, 緊張緩和 등을 內容으로 하는 「20個 示範實踐事業」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와 같은 우리 政府의 統一提議의 참뜻을 외면한 채 부정적 態度로 일관하고 있다.

###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1982年 1月 22日, 全斗煥大統領은 새해 國政演說을 통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闡明하였다. 이는 第5共和國의 出帆을 前後한 1981年 1月 12日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議」와 같은해 6月 5日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提議」를 포용한 大韓民國의 새로운 統一方案으로서 分断以後, 最初로 제시된 가장 體系的이고 實踐的이며 綜合的인 平和統一方案으로서의 骨格을 갖추고 있다.

#### 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背景

1981年 1月 12日, 全斗煥大統領은 南北韓의 信賴回復과 戰爭防止 그리고 對話再開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提議했다.

北韓은 1週日後인 1981年 1月 19日, 「副主席」인 金一이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委員長 資格으로 發表한 聲明을 통해 「1.12 提議」를 거부했다.

金一은 이 聲明에서 「1.12 提議」는 『平和統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出發부터 흐지부지 時間이나 끌면서 두개의 朝鮮을 조작하려는 分裂 策動』이라고 비난하면서 南北對話再開의 前提條件으로 ① 現大韓民國 政府의 退陣과 容共政權의 登場 ② 金大中을 비롯한 「政治犯」석방 ③ 反共關係 法令廢止 및 反共機關・團體 解體 ④ 「6.23宣言」의 撤回 ⑤ 駐韓美軍撤收등 5個項目을 내세웠다.

그로부터 約 5個月 뒤인 1981年 6月 5日, 全斗煥大統領은 새로이 構成・充足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開會演說을 통해 「1.12 對北提議」 受諾을 促求하는 한편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열 것을 提議했다.

이 提議에서 全斗煥大統領은 『南北韓 頂上會談이 실현된다면 本人이 提議한 相互訪問問題와 그동안 南北韓 當局이 제의했던 統一方案을 包含하여 雙方이 提起하는 모든 問題들을 虛心坦懷하게 論議』할 것을 希望하면서 大韓民國은 이같은 會談을 위한 모든 準備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提議에 대해서도 北韓의 反應은 否定的이었다. 北韓은 6月 10日 字 「로동신문」과 放送論評을 통해 大韓民國을 激烈하게 비난하면서 「6.5 提議」는 『統一問題를 論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不純한 目的을 노리고 있다』고 역지를 쓰면서 이를 正면으로 거부했다.

全斗煥大統領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大略 以上과 같은 這間의 南北關係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본래 全斗煥大統領은 北韓이 「1.12」, 「6.5」提議를 受諾,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實現된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할 大韓民國의 包括的인 統一方案으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準備하고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 의한 「1.12」, 「6.5」提議의 거부는 가까운 時日안에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實現될 수 있는 可能性을 무산시켰다.



이와 같은 北韓의 否定的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全斗煥大統領은 統一의 大道를 닦는 일은 中斷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 世代에 기필코 統一偉業을 達成하고자 말겠다는 強烈한 意志에서 1982年 1月 22日 國政演說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동안 構想하여 온 새 統一方案을 안팎에 闡明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北韓側에게 公開된 大韓民國의 統一方案을 잘 吟味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大韓民國의 眞意를 올바르게 理解시킴으로써 그동안의 北韓側이 取해온 「1.12」, 「6.5」提議 拒否態度를 버리고 빠른 시일 안에 平和統一을 向한 南北對話에 呼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內容

大韓民國의 새 統一方案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分斷祖國의 平和統一方案으로 「統一憲法」의 制定으로부터 總選舉를 통한 「統一民主共和國」完成에 이르는 일련의 過程을 具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統一憲法」草案 마련을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構成提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統一은 民族自決의 原則에 立脚하여 全體 겨레의 自由意思가 反映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基本原則에 따라 平和統一을 成就하는 가장 合理的인 길로서 「統一憲法」을 採択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完成시키는 것이라고 闡明하고 있다.

즉 ① 南北 雙方住民의 뜻을 代弁하는 代表들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構成하고 ② 이 會議體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追求하는 「統一民主共和國」實現을 위한 「統一憲法」草案을 마련하고 ③ 이같이 마련된 「統一憲法」草案은 南北韓 全域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

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確定, 公布하고 ④ 이렇게 確定된 「統一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實施,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構成, 統一國家를 完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 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國會構成을 위한 總選舉의 方法과 時期, 節次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構成되어 여기서 「統一憲法」을 起草하는 가운데 討議・合意될 問題』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問題들을 가지고 對話機構 밖에서 一方的인 宣傳의 素材로 삼는데 反對한다는 뜻을 明白히 했다.

全斗煥大統領은 大韓民國이 構想하는 「統一憲法」草案은 앞으로 「民族統一協議會議」가 構成되면 그 자리에서 提示할 것임을 다짐하고 『 만약 北韓側이 진정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그들이 構想한 「統一憲法」草案을 正堂堂하게 내어놓고 우리側의 草案과 比較・檢討하는 가운데 하나의 單一案으로 만드는 節次에 同意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 提議

全斗煥大統領은 이와 같은 「統一憲法」制定作業을 順調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南北間에 信賴를 造成하고 民族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除去하는 作業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統一까지의 暫定措置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締結하여 그동안의 民族 自害的이며 非正常的인 相互關係에 終止符를 찍고 相互 民族和合을 도모할 수 있는 民族 自愛的인 正常關係로 전환시킬 것을 提唱했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제시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雙方은 장차 統一國家가 樹立될 때까지는 互惠平等的 原則에 입각하여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雙方은 雙方間 | 紛爭問題解決에 있어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

###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力の 使用 또는 威脅을 完全히 止揚하고 모든 問題를 相互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의 方法으로 해결한다.

세째, 雙方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現存하는 相異한 政治秩序와 社会制度를 相互 認定하며 서로 相對方의 内部問題에 一切 干涉하지 아니한다.

네째, 雙方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現存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争의 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措置를 協議한다.

다섯째, 雙方은 分断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民族的 信賴와 和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相互 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社会的 開放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雙方은 離散家族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포함해서 南北間의 自由로운 人的 往来와 多角的인 交流를 추진할 수 있도록 交易, 交通, 郵便, 通信, 體育, 學術, 教育, 文化, 報道, 保健, 技術, 環境保存 등 諸分野에서 協力하며 이를 통하여 民族의 利益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努力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雙方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에 拘碍됨이 없이 全世界 모든 나라들과 각기 締結한 모든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尊重하며 民族의 利益에 관한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協議한다.

일곱째, 雙方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각기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部를 設置한다. 雙方은 相互 協議에 의하여 連絡代表部の 任務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自己側 管轄領域에 駐在하는 相對便 連絡代表部の 任務遂行에 지장이 없도록 必要한 便宜와 협조를 제공한다.

#### (3) 高位級 代表間의 豫備會談 提議

全斗煥大統領은 이어서 北韓側이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開催提議를 받아들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問題들에 관하여 虛心坦懷한 協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하고 이같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 실현에 必要한 節次 마련을 위해 『早速한 時日안 에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 雙方 高位代表間의 豫備會談을 開催 하자』고 아울러 제의했다.

## 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主要特徵

### (1) 平和統一의 青写真 提示

#### < 統一原則 >

大韓民國의 새 統一方案은 武力, 暴力統一이 아닌 平和統一, 共產統一이 아닌 民主統一, 그리고 外勢에 의한 統一이 아닌 民族自決의 原則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 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 一方이 自己의 思想, 理念, 制度를 앞세워 自己가 원하는 統一方式만을 고집해서는 안되고
- ②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의하여 独占, 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도 안되며
- ③ 武力이나 暴力의 方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되고
- ④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原則에 의거하여 겨레 全體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특히 民族統一의 立場을 강조하고 階級觀念 등 「이데올로기」의 立場을 앞세우는 北韓의 共產統一路線을 배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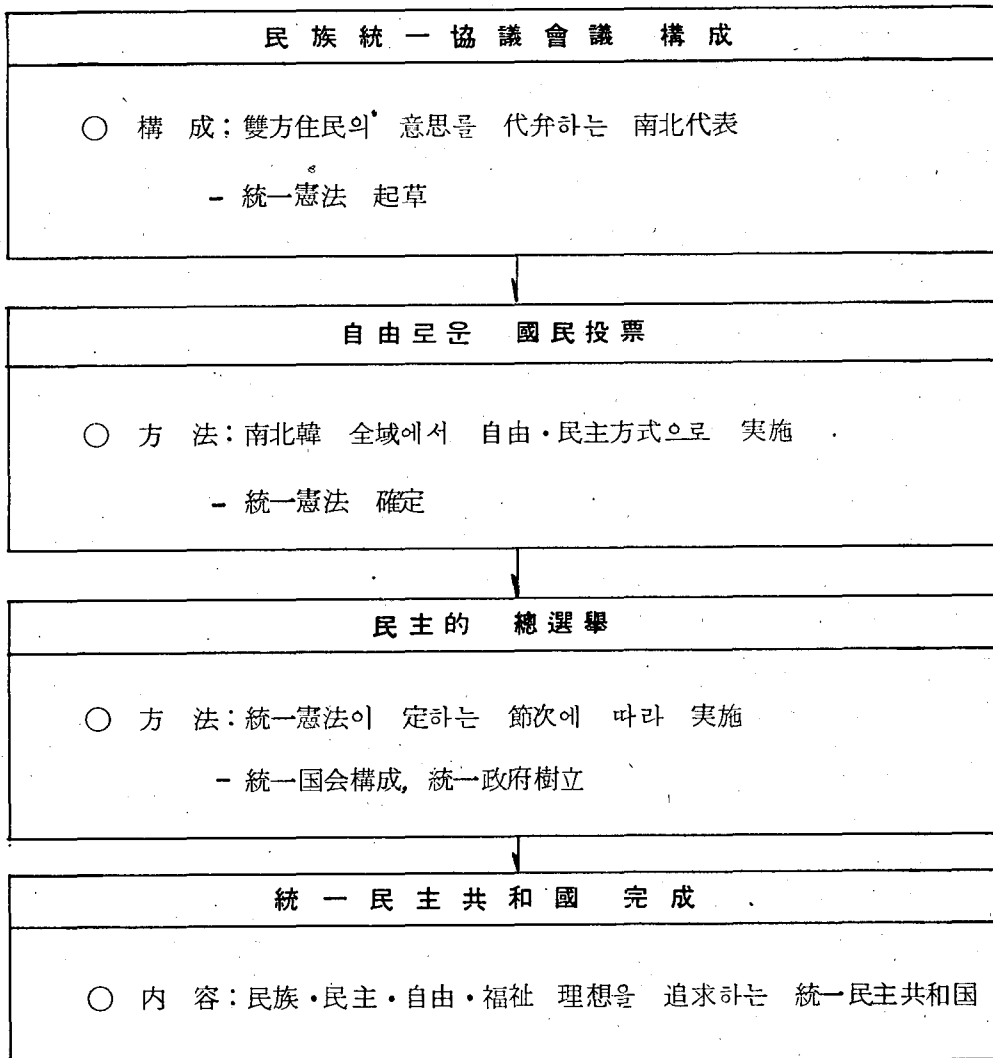
#### < 統一까지의 過程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또한 分斷의 現實로부터 出發하여 統一完成까지의 過程을 一目瞭然하게 設計, 提示하고 있다.

즉 우선 雙方住民의 意思를 代弁하는 南北의 代表로 「民族統一協議會議」을 構成하여 「統一憲法」을 起草하고, 南北韓 全域에서 自由, 民主方式으로 실시하는 國民投票를 통해 「統一憲法」을 確定한 다음, 이 「統一憲法」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民主的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國會를 구성하고 統一政府를 樹立함으로써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完成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過程을 要約 整理하여 表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 統一與件造成을 위한 民族和合 追求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또 하나의 特徵은 階級과 成分에 의한 差別을 容納치 않는 單一民族國家로서의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鮮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統一은 長久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傳統을 이어온 하나의 民族이라는 立場에 서서 이를 解決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斷言함으로써, 大韓民國이 추구하는 統一은 階級革命을 내용으로 하는 赤化統一이 아니라 民族和合을 내용으로 하는 民族統一임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의 실현을 指向함으로써, 全民族의 意思에 反하는 統一을 反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統一의 完成을 위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民族和合을 위한 一連의 조치를 南北韓이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 (2) 對決論理의 克服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南北 雙方の 立場중 서로 合意할 수 있는 領域을 적극 발굴하고 또 一部 北韓의 주장도 包容함으로써 雙方間의 合意到達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統一問題를 一方的 宣傳的次元에서 이용하려는 企圖를 原則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當局+非當局 混成對話기구인 「民族統一協議會議」構成제의로 北韓의 「大民族會議」, 「民族統一促進大會」등 政略的 非當局 主導의 對話기구 제의를 收斂함으로써 北韓이 진정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對話기구에 관하여 南北이 合意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統一祖國의 政治理念, 國號, 國內外政策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統一國會 구성을 위한 總選舉方法, 節次 등은 앞으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마련될 「統一憲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北韓側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一方的이고 政略的인 宣傳戰을 전개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이른바 聯邦制 國家形態 採擇主張을 비롯하여 北韓側의 意見이 있다면 그것을 一方的으로 宣傳할 것이 아니라 北韓側의 「統一憲法」草案에 포함시켜 「民族統一協議會議」에 이를 제기하여 統一祖國의 政治理念, 國號, 對內外政策 基本方向, 政府形態, 總選舉 節次와 方法 등을 協議하는 과정에서 論議·解決하자는 것이다.

「民族統一協議會議」가 구성된다면 大韓民國은 大韓民國側이 마련한 「統一憲法」草案을 거기에 제출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3) 一貫性의 土臺위에서 統一方案 集大成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지금까지의 大韓民國 統一方案의 基調인 緊張緩和와 民族的 信賴回復을 통해서 統一을 達成한다는 基本精神을 견지하면서 우선 모든 努力을 統一達成에 集中하는 한편 統一까지의 過渡的인 措置로서 「統一憲法」制定 作業推進에 有利한 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여 緊張緩和와 民族的 信賴回復 등 실천적 조치도 同時에 강구한다는 接近方法으로 發展시켰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기존 「平和統一3大基本原則」第1,2項(平和定着과 信賴回復)을 보다 包括的인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7個項目으로 具體化시켰으며 同 原則 第3項(總選舉에 의한 統一)은 「民族統一協議會議」構成→「統一憲法」草案起草→國民投標로 「統一憲法」確定→總選舉 實施→統一國會, 統一政府 수립→統一國家 完成의 過程으로 具體化시켜 놓았다.

뿐만아니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을 통해 종래의 大韓民國의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提議(1974年 1月 18日字)와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1973年 6月 23日字)의 對北關係 條項을 受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平和統一方案으로 集大成되었다.

라. 「20 個 示範實踐事業」提議

大韓民國側은 1982年2月1日, 国土統一院長官 聲明을 통해, 北韓側에 대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실현하기 위해 20個項에 걸친 具體的인 示範事業을 함께 推進해 갈 것을 제의했다.

이 聲明은 民族和合을 實現하여 民主統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은 거리의 念願에 부응하고자 하는 大韓民國側의 立場을 분명히 밝히고 『全斗煥大統領이 제시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實踐精神에 입각한 民族和合 促進措置의 一環으로서 北韓當局에 대해 우선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示範事業을 추진할 것을 要求한다』고 했다.

20 個項 示範實踐事業提議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南北間에 자유로운 通行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 平壤間 道路를 연결, 개통한다.
- (2) 南北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 간에 郵便交流 및 相逢을 실현한다.
- (3) 雪岳山 이북과 金剛山 이남지역을 觀光, 休養地로 설정하여 自由觀光 共同地域으로 개방한다.
- (4) 海外同胞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板門店을 통과하여 雙方 地域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한다.
- (5) 南北間의 자유로운 交易을 실시하기 위하여 仁川港과 鎮南浦港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 (6) 南北間에 상호 理解를 증진하기 위하여 謀略放送 장치와 放送聽取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雙方 正規放送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 (7) '86年 아시안 競技大會 및 '88年 「올림픽」大會에 北韓側 선수단이 板門店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 (8) 南北을 訪問하려는 모든 外國人들에게 板門店을 통과하여 雙方 地



### 3.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域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南北漁夫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共同漁撈區域을 설정한다.

(10)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信賴증진을 위하여 政治人, 經濟人, 青年學生, 勤勞者, 文藝人, 体育人 등 各界人士間의 相互 親善訪問을 실시한다.

(11) 南北社會의 實相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雙方記者들의 상대방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取材活動을 보장한다.

(12) 民族文化의 繼承, 發展을 위하여 民族史의 共同研究를 추진한다.

(13) 南北間에 各種目別 體育親善交換競技를 개최하며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單一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14) 雙方 住民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日用生產品의 交易를 실시한다.

(15) 民族經濟의 번영을 위하여 南北間 自然資源의 共同開發 및 共同利用을 실현한다.

(16) 南北間의 産業發展에 기여하기 위하여 同一製造業體間의 技術者 交流 및 生產品展示會를 交換, 開催한다.

(17) 非武裝地帶內에 共同競技場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南北間의 親善경기에 이용한다.

(18) 非武裝地帶內의 動植物 自然生態系를 연구하기 위하여 共同 學術조사를 실시한다.

(19) 南北間에 軍事的 緊張을 완화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內의 軍事施設을 완전히 철거한다.

(20) 南北間에 軍備統制 조치를 협의하며 雙方 軍事責任者間에 直通전화를 설치 운용한다.

위에서 살펴 본 「20個 示範實踐事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그 하나는 社會開放에 관한 8個項이고 다른 하나는 交流·協力の 발전을 위한 8個項이며 또 다른 하나는 緊張緩和를 위한 4個項이다.

南北韓 두 社會間의 상호개방은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청이다. 交流, 協力の 증진은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며 便宜와 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同族相殘의 戰爭이 다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軍事的 조치는 우리 民族내부에서는 물론 國際社會로부터 신뢰를 받고 나아가 우리 民族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인 것이다.

요컨대 「20個 示範實踐事業」은 民族和合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平和統一을 위한 첫 발자국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마. 「南北韓 高位代表會談」提議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20個 示範實踐事業」提議에 대한 國內外的 支持가 확산되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가 지탄의 대상이 되자 이른바 「祖國平和統一委員會」명의로 성명(1982年2月10日)을 통해 소위 「南北政治人 100人 聯合會議」開催를 주장했다.

北韓側은 이 聲明에서 大韓民國 當局은 물론 現存하는 政党·社會團體들마저 부정한 채 그들과 對坐할 수 있는 자격을 시비하면서 大韓民國側 參席人士 50名을 一方的으로 自己들이 指名하는 한편 그들의 特定人員 50名과 함께 소위 「南北政治人 100人 聯合會議」를 多務的 圓卓會議 형태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大韓民國側은 이와 같은 北韓側의 부당하고 非現實的인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對話의 門을 봉쇄하고 있는 北韓側을 對話의 廣場으로

#### 4.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끌어들이기 위한 努力을 계속해 왔다. 즉 大韓民國側은 1982年 2月 25日 北韓側의 그릇된 자세를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南北雙方間의 正常的인 對話를 통해 民族의 영원인 平和統一을 앞당기고자 하는 一念에서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을 제의했다.

이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은 雙方에서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代表 9名으로 구성하여, 「民族統一協議會議」 構成과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개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南北韓間의 交流, 協力, 社會開放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北韓側이 주장한 「南北政治人 100人 聯合會議」에 관한 문제등을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4.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北韓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近 20年 동안 聯邦制 統一方案을 주장하고 있다.

北韓이 聯邦制를 제의한 經緯는 크게 보아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第1段階는 1960年~1972년까지 이며, 第2段階는 1973年~1979년까지이고, 第3段階는 1980年~ 現在까지의 時期이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時期와 與件變化에 따라 그 강조점과 내용을 달리 하면서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偽裝平和 攻勢의 일환으로 利用하여 왔다.

北韓이 聯邦制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60年 8月 14日, 金日成의 8.15 紀念演說에서 비롯된다. 당시 金日成은 統一方案으로서 南北總選舉를 주장하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統一에 이르는 過渡的 조치로써 南北 聯邦制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후 北韓은 聯邦制를 간헐적으로 주장하다가 70年代初에 들어와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北韓은 1971年 4月 12日, 許鎔의 8個項

가운데 聯邦制를 포함시켰다가 1972年 11月 3日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1973年 6月 23日 발표한 「5大綱領」속에 넣어 해묵은 선전을 되풀이하였다.

한편 80年代에 들어와 北韓이 聯邦制를 다시 각색하여 떠들기 시작한 것이 1980年 10月 10日 열린 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때부터이다. 金日成은 이 演說에서 그때까지의 聯邦制 主張내용을 變色하여 “統一에 이르는 過渡的 措置”로서가 아니라 “統一의 完結形態로서의 聯邦制”를 주장하였다.

#### 가. 「高麗聯邦制」의 內容

北韓이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내놓은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은 다음과 같은 基本前提 위에서 그 內容을 구성하고 있다.

첫째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은 여전히 實現 不可能한 상투적인 일련의 前提條件들을 수반하고 있다.

즉 「高麗聯邦制」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大韓民國이 아래와 같은 前提條件들을 먼저 履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大韓民國의 反共態勢와 國家保安法 등을 폐지하고 이른바 「社會의 民主化」가 實現되어야 한다.
- ② 北韓이 造作한 實體없는 幽靈地下團體인 소위 「統一革命黨」을 포함하여 大韓民國內의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人士들의 容共活動을 合法化해야 한다.
- ③ 現 大韓民國 政權이 소위 「民主政權」으로 交替되어야 한다.
- ④ 大韓民國이 除外된 가운데 美國과 北韓間에 休戰協定을 代替할 平

#### 4.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和協定이 체결되고 이에 의거하여 駐韓美軍이 철수되어야 한다.

- ⑤ 美國의 『分裂主義的 二個 朝鮮造作 策動』을 沮止시키며 大韓民國에 대한 『美國의 內政干涉』을 中止해야 한다.

둘째로, 北韓은 大韓民國政府를 對話相對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北韓은 비록 「高麗聯邦制」案을 하나의 統一方案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同 方案發表 다음달인 1980年 11月, 国内外人士에게 보낸 便紙에서 그들의 당면 目標은 우선 聯邦制 統一을 위해 大韓民國의 當局者를 排除한 가운데 『南北과 海外的 各党, 各派, 各界各層을 망라한 適當한 數의 代表』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高麗聯邦制」가 실현될 수 있는 前提條件을 充足키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以上の 基本前提 위에서 北韓은 「高麗聯邦制」를 『南北이 서로 相對方에게 存在하는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認定하고 容納하는 基礎위에서 南北이 同等하게 參加하는 民族統一政府를 세우고 그 밑에서 南北이 같은 權限과 義務를 지니고 各各 地域自治制를 실시하는 聯邦共和國을 創立하여 祖國을 統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聯邦國家의 國號를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聯邦國家의 기구로서 『北과 南의 같은 數의 代表들과 適當한 數의 海外同胞들로 「最高民族聯邦會議」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聯邦常設委員會」를 조직하며 이 기구들이 北과 南의 地域政府들을 지도하며 聯邦國家의 전반적인 事業을 管轄』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 『民族의 統一的 發展을 위한 事業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北과 南의 團結과 合作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 수립된 後, 施行할 政策으로서 이른

바 「10大施政方針」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北韓이 聯邦制가 실현되었을 때 實踐에 옮기겠다는 「10大施政方針」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國家活動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自主政策 실시
- ② 全地域, 全社會의 民主主義 실시와 民族의 大團結 도모
- ③ 經濟的 合作과 交流를 실시하여 民族經濟를 自主的으로 發展
- ④ 科學, 文化, 教育分野에 있어 交流와 협조를 實施하여 民族文化, 傳統, 民族教育을 發展
- ⑤ 北과 南의 交通, 遞信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交通, 遞信시설을 활용
- ⑥ 勞動者, 農民을 비롯하여 全體勤勞者들의 生活安定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
- ⑦ 北과 南의 軍事的 對峙상태를 해소하고 民族聯合軍을 조직하며 外來侵略으로부터 民族을 保衛
- ⑧ 海外同胞의 民族의 權利와 利益을 옹호
- ⑨ 統一以前의 對外關係의 올바른 處理와 두 地域政府의 對外活動을 統一的으로 조정
- ⑩ 統一國家로서 友好的, 平和愛護的인 對外政策을 실시

#### 나. 「高麗聯邦制」의 概念

北韓이 주장하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라는 用語, 그 自體에 심히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점이 허다하다. 단적으로 말해 北韓의 聯邦制는 通念上의 聯邦을 뜻하는 것인지, 國家聯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統合方式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전통적으로 國際法上 聯邦 (federation) 이란 2個以上の 主權國이

結合하여 單一的인 國際的 人格을 형성하는 複合形態의 國家이다. 多數의 主權國이 支分國으로서 中央政府下에 영구히 結合하는데, 聯邦의 형태는 主權分割形式의 차이로 인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하튼 聯邦이란 中央組織 자체가 國家로서 統一的인 國際法上的 人格을 인정받는다.

聯邦과 支分國(State, Land, Canton, Province) 과의 關係는 國內法上的 關係이다.

聯邦은 國內法인 憲法에 의해서 형성되고 中央的인 聯邦政府만이 國際的인 人格을 갖는다.

이에 비해, 國家聯合(Confederation)은 多數의 主權國이 공동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國際法上的 條約에 의거하여 結合하고 共同機構에 의해 主權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國家형태를 말한다.

國家聯合의 構成國은 각자의 國際的 人格을 유지하나 그 對外的인 權能의 一部를 聯合에 移讓하고 있으므로 聯合이 존속하는 限, 完全한 主權國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聯合自體도 契約된 限度內的 外交能力을 가질 뿐이므로 國際法上的 완전한 人格主體가 못된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여기서 國家聯合과 聯邦의 差異點을 살펴보면, 國家聯合의 경우에는 그 構成國이 아직도 國際的 人格을 가지나 聯邦의 경우에는 그 構成國이 아닌 聯邦國家自體가 國際的 人格을 갖는다.

國家聯合의 結合근거는 各 構成國間에 체결된 條約인데 비해 聯邦의 結合근거는 聯邦國家의 憲法이다.

또 國家聯合의 경우 對外的 統治權은 그 構成國이 행사하나 聯邦의 경우는 構成國이 對外的 統治權을 갖지 못하고 聯邦國家自體가 보유한다.

특히 國家聯合의 경우, 그 構成國自體가 兵力을 保有한데 비해 聯邦의 경우는 構成國이 兵力을 갖지 못하고 聯邦國家가 兵力을 保有한다. 그렇

기 때문에 國家聯合의 構成國 相互間의 武力鬭爭은 戰爭으로 보나 聯邦 構成國 相互間의 武力鬭爭은 內亂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傳統 國際法上 分裂國家를 하나로 統合하는 형태의 하나로 . 併合 (Annexation) 이 있다.

併合이란 一國이 武力 또는 強壓의 手段에 의하여 他國을 自國의 一部로 흡수하여 보다 큰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세 가지 國家統合類型을 기준으로 北韓의 「高麗聯邦制」 概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말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여 聯邦으로 표시하면서 이를 英文으로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라 표기하여 國家聯合으로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北韓이 이처럼 聯邦制概念에 2個用語를 混用하고 있는 것은 聯邦制概念의 無知에서가 아니다. 그들은 統一을 갈망하는 우리 6千萬 民族 앞에는 統合指向의 인상을 주는 <聯邦>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統一에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韓半島의 現狀安定을 기대하는 國際社會를 향해서는 共存指向의인 <國家聯合>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宣傳的 效果를 거두려는 간교한 二重計略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宣傳的 次元에서 分析한 것이고 戰略的 次元에서 검토해 볼 必要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은 聯邦制 실시의 前提條件으로 現 大韓民國政府의 退陣과 『民主政權』의 수립,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의 철폐, 그리고 駐韓美軍철수와 美·北韓間의 平和 協定締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北韓이 말하는 『民主政權』이라는 것은 그들 해석에 의하면 『人民民主政權』 또는 『聯共政權』인 것이다. 이것들은 勞動階級이 主權을



#### 4.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行使하거나 共產主義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손 잡을 수 있는 政權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概念으로 바꾸면 客共政權 또는 親共政權인 것이다.

그리고 北韓이 南韓의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大韓民國의 튼튼한 反共태세를 와해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駐韓美軍철수 주장은 南北韓의 軍事力균형을 파괴하여 對南武力 赤化統一의 與件을 조성하려는 것이고 對美平和協定締結 주장은 大韓民國政府의 權威를 실추시켜 國際적으로 孤立化시키고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國民들의 信望을 떨어뜨림으로써 마치 베트남식의 統一을 이룩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聯邦制 前提條件이 南韓에서 실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곧 大韓民國 스스로 무장해제한 다음, 大門을 활짝 열어놓고 共產主義者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 北韓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소위 “南朝鮮革命”이 실현된 상태, 즉 南韓이 共產化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北韓의 『高麗聯邦制』案에 숨겨진 계략을 분석해 보면, 결국 『高麗聯邦制』 概念은 南韓을 併合하려는 共產主義式 併合概念(Annexation)이다.

北韓은 『高麗聯邦制』가 지금까지 존재한 聯邦國家들과는 다른 特殊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 實相은 聯邦 또는 國家聯合이라는 美名下에 大韓民國을 併合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共產主義者들이 思考의 原理로 삼고있는 唯物辨證法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立證된다.

唯物辨證法에 의하면 「正」과 「反」이 「合」으로 綜合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속에서 發生한 새 것이 낡은 것을 구축 및 제거하는 革命的 變革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唯物辨證法的 思考에 의한 聯邦制란 南北韓이 聯合이라는 과정을 통해 낡은 것 (大韓民國) 속에서 發生한 새 것 (北韓) 이 낡은 것을 구축하고 보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聯合·合作이란 過程을 통해 共產主義的 要素가 非共產主義的 要素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北韓이 생각하는 聯邦의 哲學的 思考라고 볼 수 있다.

레닌은 1920年 7月 28日, 第2次 코민테른에서 『民族內에 있는 共產主義的 要素가 民族社會를 支配할 수 있도록 統一된 勢力이 되기까지의 過渡的인 政治組織으로서 聯邦制가 必要하다』고 말한 바 있다.

北韓도 社會主義的 聯邦國家制度는 「프롤레타리아」 獨裁實現의 制度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1981年 2月 2日 字 「로동신문」은 『資本主義的 聯邦國家制度는 부르조아 獨裁실현을 위한 國家制度로서 資本主義 思想과 制度를 고수하는데 복무하며 이와는 반대로 社會主義的 聯邦國家制度는 프롤레타리아 獨裁實現의 國家制度로서 勞動계급의 思想을 실현하며 社會主義制度를 공고히 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聯邦制概念은 形式은 <聯邦> <國家聯合> 으로 未完成型 統一 即 假飾的인 複合國家形式을 취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共產主義式 <併合>概念을 가진 것으로써,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고 하겠다.

## 다. 他共産國家의 聯合戰術 事例

北韓이 聯邦制를 착상하게된 動機와 底意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他共産國家의 聯合戰術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歴史的으로 共産主義者들은 分斷 또는 左右對峙狀況下에서 共産化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聯邦” “聯立” “聯合” “合作”이라는 구호와 進술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聯邦” “聯立” “聯合” “合作”은 비록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그 原則과 目的은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赤化併합에 있다.

소련에서는 1922年 聯邦이라는 美名下에 4個共和國를 통합한 것을 始發로 그후 모두 15個共和國이 「소비에트 社會主義聯邦共和國」에 흡수, 統合되어 있다.

中國에서는 共産黨이 두차례에 걸쳐 國民黨과 合作을 통해 國民黨 內부분열과 약화를 企圖한후 1945年 4月, 共産黨이 國民黨政府에 대해 聯合政府樹立을 제의한 일이 있다.

또한 越南에서는 1960年 9月부터 1970年代初에 이르기 까지 共産主義者들이 越南政府(사이공 政府)에 대해 聯立政府樹立 주장을 통해 越南의 분열을 조장, 促망시켰다. 東獨도 1956年 12月 31日, 獨逸統一에의 過渡期的 조치로서 西獨側에 대해 國家聯合案을 제의하였다가 西獨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共産主義者들은 다양한 형태의 聯合戰術을 구사하며 非共産主義者들을 그들의 共産化 目的에 이용해 왔던 것인데 北韓 역시 이러한 사례를 모방하여 聯邦制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高麗聯邦制」案은 中共과 越盟이 사용한 戰術을 많이 모방, 표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北韓이 내세운 소위 「高麗聯邦 10大施政方針」이라는 것이 中共이 國·共合作時 주장했던 「抗日救國 10大綱領」 및 베트남이 聯立政府 樹立 주장시 내세웠던 「民族解放戰線 10大綱領」과 그 내용이 類似하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이 聯邦制樹立의 原則으로 내세운 「南北의 思想과 制度를 相互 容納」 하자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中共이 聯合政府樹立과 合作原則으로 주장한 「思想과 制度의 相互 認定」 및 베트남의 「民族的 平等」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北韓이 聯邦기구로 내놓은 「最高民族聯邦會議」도 그 기능면에서 東獨의 「全獨委員會」와 類似한 것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고 또 北韓이 聯邦制에 前提條件을 붙인 것도 東獨이 國家聯合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몇 가지 前提條件과 비슷하다.

#### 라. 「高麗聯邦制」의 底意

北韓이 주장하는 聯邦制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聯邦制의 動機, 概念, 性格은 물론이고 그들의 주장가운데 앞뒤의 論理가 맞지 않은 部門이 허다하다.

첫째, 北韓은 聯邦制構成의 原則으로 南北韓의 思想과 制度를 서로 認定, 容納하자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聯邦制 실시의 前提條件의 하나로 反共的인 現 大韓民國政府와는 聯邦制를 하지 않고 容共政權이 들어서면 그 容共政權과 聯邦을 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앞에서는 南韓의 思想과 制度를 認定, 容納하겠다고 하고, 뒤에 와서는 南韓의 政治秩序와 體制를 부정하는 따위의 엄청난 論理의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그들의 政治用語辭典에서 聯邦制는 말과 風習, 文化가 서

로 다른 民族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시되는 國家構成形式의 하나라고 규정함으로써 聯邦制는 異民族國家間에 적용되는 政治制度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單一民族인 우리 民族에게 聯邦制를 적용하려고企圖하는 것은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不純한 制략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세째, 北韓은 聯邦制를 그들의 統一戰略과의 關係에서 그리고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의 關係에서 더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한다. 北韓이 口頭禪처럼 표방하고 있는 統一戰略은 소위 「南朝鮮解放」이요,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며 궁극적으로는 「全國的 範圍에서의 社會主義 完成」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이 聯邦制를 실시하기 위해 南北 서로의 體制를 認定, 容納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統一戰略속의 어디에 南韓을 認定, 容納하며 南韓과 平和共存을 한다는 귀절이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聯邦制를 실시하기 위해 對南赤化革命과 韓半島 共產化 統一을 포기한다고 적어 놓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北韓은 聯邦制를 실시하자고 하기 전에 韓半島 共產化 統一을 의미하는 「全國的 범위에서의 社會主義의 完成」을 포기하고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이라도 긍정하는 태도 표시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北韓은 聯邦憲法과 聯邦裁判所의 설치가 聯邦制 構成에 필요불가결한 要件이라고 강변하면서도 「高麗聯邦制」제의 속에서는 一切 緘口하고 있는데 그 理由를 밝혀야 한다. 北韓의 政治辭典에는 聯邦構成要件의 하나로 聯邦憲法의 制定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高麗聯邦制」제의 속에서는 聯邦憲法에 관해 一切 言及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目的이 眞正한 의미의 南北聯邦이나 國家聯合이 아닌 大韓民國의 併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北韓이 이처럼 모순 투성이의 聯邦制를 주문의듯이 주장하는

底意는 무엇인가?

그 底意는 앞에서 설명한 前提條件속에 잘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는 前提條件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側面 即 聯邦制주장의 戰術的 側面을 검토코자 한다.

對南關係에서 北韓은 「聯邦國家」「民主」「高麗」라는 用語 自体가 함축하고 있는 呼訴力을 이용하여 統一問題에 관한 大韓民國의 國論을 분열시키려는데 그 一次的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大韓民國 國民들 가운데서도 특히 知識人과 靑少年, 大學生들의 關心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려는 企圖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이 사용하는 用語는 밖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추구하는 內容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高麗聯邦 10大施政方針」이라는 것도 겉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施行時期, 方法, 內容을 보면 문제가 許多하고 눈가림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10大施政方針」을 당장 施行하자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內外 輿論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사실은 聯邦制가 實施된 다음에 南北間에 施行하자는 것으로써 그 以前에는 南北韓間에 어떠한 종류의 對話, 交流, 協力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만약 南韓에 容共政權이 들어선다면 바로 赤化統一로 進入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10大施政方針」과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10大施政方針」內容의 現實性, 實踐可能性問題를 볼 때도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들은 南北韓의 軍隊를 각각 10만내지 15万 이하로 줄이고 南北軍隊를 합쳐서 소위 “民族聯合軍”을 조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南北赤十字會談과 같은 初步的인 對話마저도 자기들이 거부하고 있는 狀況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軍隊間

#### 4.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

題를 해결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음 對外的 側面에서 北韓은 聯邦制 선전을 통해, 非同盟 中立國家의 支持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海外同胞의 支持基盤造成 및 침투공작명분으로 聯邦制를 이용함으로써 民族分裂과 民族自害行爲를 일삼고 있다.

그런데 重要한 것은 北韓이 聯邦制를 對外的으로 선전할 때, 그 前提條件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外部사람들로 하여금 前提條件을 모르게 하고 따라서, 聯邦制가 마치 合理的인 統一方案인 것 처럼 誤導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로 음흉한 凶計인 것이다.

한편 北韓内部的 側面에서는 聯邦制 統一方案이 金日成 世襲王朝 구축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不滿을 해소하고 革命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聯邦制를 주장하는 底意는 對外, 對南關係에서는 偽裝平和統一 攻勢에 目的이 있고 北韓内部的으로는 金日成 世襲王朝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戰術的 側面에서 본 것이고 戰略的인 面에서는 大韓民國을 흡수, 併合하려는데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中, 長期的으로 南北韓 国力伸張競爭에서 北韓의 劣勢가 더욱 深化되어 그들의 體制維持에 不安을 느낄 경우 北韓은 分断을 固定化시키는 수단으로 聯邦制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即 聯邦制에 의해 大韓民國을 赤化統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最上의 方策이겠으나, 그 目標達成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오히려 南北韓 體制競爭에서 자기들의 劣勢가 深化될 때는 自己生存을 위해 聯邦制에 의한 分離政策으로 나갈 공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56年 東獨이 西獨과의 國家聯合을 주장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當時 東獨이 西獨側에 대해 統獨의 過渡期的 조치로서, 國家聯合

( Confederation ) 을 제의하였던 바, 그 目的은 國家聯合을 통해 東獨政權의 合法性 내지 國家性을 획득함으로써 西獨과의 對等한 關係를 유지해 가면서 事實상 “ 2個의 獨逸政策 ” 이라 할 수 있는 分離政策을 취하려는데 있었다.

그러한 東獨主張과 立場을 北韓이 모방하여 “ 2個의 韓國政策 ” 과 같은 分斷固定化에도 應用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마. 「高麗聯邦制」의 非現實性

오늘날 聯邦制를 채택하고 있는 世界 모든 나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聯邦構成國間에 政治理念이 같고, 社會體制가 같거나 비슷하며, 平和가 뿌리깊이 定着되어야 비로소 聯邦이 成立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3個 聯邦成立要件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南北韓關係의 現實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첫째, 우리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北韓의 共產主義 理念 사이에 民族和合을 거치지 않고 당장 하나의 政治理念을 創出해 낸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다. 南北의 相異한 政治理念이 民族和合과 融合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接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기초공사와 벽체공사를 하지 않고 지붕공사를 하자는 것과 같은 實現不可能하거나 허구에 찬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要件인 聯邦構成國間의 社會體制 問題를 중심으로 南北韓을 비교해 보면 大韓民國은 開放社會로서 社會構成員의 多樣性和 自律性을 尊重하고 있으나, 北韓은 세계에서 가장 閉鎖化된 社會로서 극도의 劃一性和 統制性이 社會秩序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大韓民國社會가 市民社會라면 北韓社會는 一種의 兵營社會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社會構造를 가진 南北韓間에 聯邦制가 成立되려면,



大韓民國社會가 劃一化되거나 아니면 北韓社會가 多元化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된다.

세계 要件인 聯邦構成國間의 平和定着問題를 살펴보면, 南北間에 아직도 軍事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상호간에 자유스러운 왕래나 교류협력을 통해 공통의 目標을 추구하려는 기본바탕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냉엄한 現實이다. 이처럼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聯邦의 成立이 現實的으로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 5. 南北韓의 統一方案 比較

(우리의 統一政策의 正當性)

### 가. 統一의 主體面

우리 大韓民國은 統一의 主體를 우리 韓民族 全體로 보고 있다. 南北韓同胞와 海外同胞 6千萬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地位高下, 階層間의 区分 없이 모두 統一의 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 있다. 우리는 「民族은 하나요 永遠하다」는 大命題아래 그 生命力을 가진 우리 民族이 함께 잘 살기 위해 統一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民族의 利益과 發展을 위해 統一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그 統一主體가 民族構成員 全體가 되어야 한다.

統一을 이룩하는 過程에 民族構成員 모두의 意思가 自由롭고 골고루 반영되고 또 統一의 結果, 얻어지는 利益이 民族全體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처럼 統一의 主體를 民族으로 생각하는 것은 眞正한 歷史推進의 主體가 階級이 아닌 民族이기 때문에, 統一의 主體도 民族이어야 한다는 理論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北韓共產主義者들도 統一問題를 論하면서 民族이라는 用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統一과 관련하여 民族이라는 用語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이 마치 民族統一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共產化 統一을 위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사실 그들에게는 民族意識보다 階級意識이 중요하기 때문에 階級을 항상 앞서 두고 있는 것이다.

北韓도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民族을 社會主義의 達成에 의하여 消滅시켜야 하는 資本主義의 產物로 보고 있다. 그들의 民族概念은 레닌, 스탈린의 民族理論인 <民族에의 接近과 融合>이라는 戰術을 모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韓半島에는 이미 프롤레타리아의 民族과 資本主義的 民族이라는 2個의 民族이 形成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民族의 分界를 해결하기 위한 方途가 <接近>이며, 이 <接近>의 過程을 통해 非共產主義的 民族을 해체하고 共產主義的 人間集團에로의 統合을 實現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에서 發行된 政治辭典에 의하면 民族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血統과 文化, 心理 등에서 共通性을 가진 歷史的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公同한 集團」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런데 民族概念 構成要件 가운데 도 그들은 「經濟生活의 共通性」을 가장 重要視하고 있기 때문에 실령 다른 要件을 具備한다 하더라도 이 「經濟生活의 共通性」이 없으면 같은 民族으로 생각치 않고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論理에 의하면 北韓과 다른 經濟生活을 하는 南韓住民은 同一民族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상투적인 구호인 「民族的 團合에 의한 統一」은 결코 單一民族에의 歸依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獨善的인 共產主義的 一體性에의 接近을 目標로 하는 欺瞞戰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民族이라는 用語를 들먹거리는 理由는 우리 大韓民國內의 民族陣營勢力의 同調를 얻어 駐韓美軍撤収에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民族問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北韓은 統一의 主体에 관해 소위 「人民大衆」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이 「人民大衆」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國民과는 전혀 다른 概念이다. 北韓共産集團의 理論에 의하면 「人民」은 勞動階級을 의미하지만 實際로는 共産主義者이거나 아니면 共産主義革命에 적극 參동, 지지, 협조하는 者들을 가리켜 「人民」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 北韓이 생각하는 統一의 主体는 共産主義者와 그 同調勢力들이기 때문에 統一過程이나 統一結果, 共産黨員과 그 同調者가 아닌 대부분의 民族構成員에 대해서는 모진 탄압과 숙청도 서슴지 않는 民族分裂策動을 자행할 것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北韓社會에서 共産黨의 立場에서 보아 出身成分이 나쁘거나 思想이 다른 경우에는 소위 反動으로 낙인찍어 피의 숙청을 단행한 사실은 바로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 나. 統一의 概念面

우리 大韓民國은 統一의 意味를 民族統一로 規定하고 있다. 그동안 統一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南北으로 갈라진 國土나 行政區域, 또는 南北韓에 있는 두 개의 統治機構를 하나로 統合하는 형태의 統一, 卽 外形的 統一만을 주로 생각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물론 分斷直後 그러니까 南北韓社會가 서로서로 달라지기 以前에는 이러한 外形的 統一만으로도 可能했지만 分斷이 길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 만으로는 充分치 못하게 되었다. 그 理由는 分斷 37年동안 南北韓間에는 反目, 不信의 壁이 두터워만 가고 또 北韓共産集團의 民族異質化

政策追求로 인해, 南北韓社会는 價值觀, 生活方式, 社会体制 等 모든 面에서 마치 外國처럼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異質化現象을 그대로 둔 채 外形的 統一만을 이룩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統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同胞들의 마음속에 있는 反目, 不信, 敵對感을 제거하여 民族의 和合을 도모하고 서로 다른 價值觀, 思考方式, 感情, 社会秩序를 同質化시켜 民族共同体로 統合시키는 實質的 統一 即 內面的 統一이 外形的 統一과 併行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內面的 統一과 外形的 統一을 結合하여 民族統一이라는 概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統一로 結果된 狀態는 民族의 利益과 發展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反해, 北韓側은 統一을 革命의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다. 金日成은 일찌기 共產黨幹部와 南派할 工作員들에게 내린 秘密敎示에서 『祖國 統一이란 말은 “南朝鮮革命”을 전제로 하는 韓半島 全体의 共產化概念』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即 統一의 前提로 “南朝鮮革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南朝鮮革命”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韓半島 全体가 共產化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北韓이 생각하는 統一戰略인 것이다.

이처럼 統一의 概念에 관해서 우리는 民族統一을 추구하고 있고 北韓은 革命統一을 企圖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統一方法과 目標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 다. 統一의 原則面

우리 大韓民國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統一原則에 관해 民族自決原則과 民主原則, 그리고 平和原則 等 3個 原則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첫째, 民族自決原則이란 우리 祖國이 비록 第2次世界大戰 이후 強大國

의 國際權力政治의 일환으로 分斷되었지만, 그 分斷을 해소하는 統一은 어디까지나 우리 民族 스스로의 意思와 能力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

그 理由는 統一問題는 基本的으로 民族内部문제이기 때문이다. 統一問題가 우리 周邇國家들의 利害關係와 聯関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國際政治的 문제는 아닌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 韓民族内部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統一에 이르는 길은 우리 韓民族의 主体的이며 独立的인 역량에 의해 담여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論理에서 統一문제는 南北韓當事者 사이의 직접적인 對話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立場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民主原則이란 統一의 主体가 우리 6千萬 民族全體가 되어야 하고, 統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民族全體의 意思가 자유롭고 골고루 반영되어야 하며, 統一의 結果 은 國民이 自由롭고 平等하게 살 수 있는 民主國家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統一問題는 特定階級, 集團이나 特定階層, 政權의 문제가 아니고 民族全體의 死活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統一問題는 폭넓은 民族的 合意와 支持基盤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大韓民國은 그동안 民主的 節次에 의한 統一問題 해결방침을 강조해 왔으며 그것이 具體化된 것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밝힌 國民投票에 의한 統一憲法確定과 總選舉에 의한 統一政府 樹立 제의인 것이다.

셋째, 平和原則이란 우리가 統一문제를 解決하는데 戰爭이나 暴力사용을 피하고 平和的 方法에 의해 統一을 이룩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戰爭은 民族을 무수히 殺傷하고 國土를 폐허로 만들며 暴力은 우리 民族社會內에 反目, 不信의 助長으로 平和統一의 前提인 民族和合을 해치기 때문이다. 平和的 方法이라고 할 때, 그것은 對話와 協商이라는 紛爭 解決의 이상적인 方便을 의미한다.

한편 北韓은 統一原則을 基本的으로 武力과 暴力에 두고 있으나, 表面的으로는 소위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自主原則」이란 순전히 駐韓美軍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卽 「自主」란 韓半島에서 外勢를 排擊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駐韓美軍이 철수해야 되고 駐韓美軍이 철수한 후에도 美國이 韓半島문제에 관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駐韓美軍撤收를 주문의듯이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자기들과 美國 사이에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美軍을 “外勢”라 하여 물러 나가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統一문제의 直接当事者인 우리 大韓民國과는 對話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外勢”라고 비난하는 美國과 協商을 하겠다는 엄청난 論理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또한 소위 平和라고 하는것은 共產主義理論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敵對하는 勢力이 地球上에서 消滅되는 상태를 뜻한다.

卽 우리 大韓民國을 비롯한 모든 資本主義國家들이 消滅되는 상태를 그들은 平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은 暴力을 共產主義革命 달성을 위해 必要하고 正當한 手段으로 믿고 있다.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南朝鮮革命”은 暴力에 의해 大韓民國政府를 무너뜨리고 親共政權을 樹立하여 南韓의 革命與件을 造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北韓이 주장하는 「民族大團結 原則」이란 大韓民國이 모든 反共態勢를 撤廢하고 北韓과 손잡는 것, 卽 “合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統一의 方法面

大韓民國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의하면 南北韓住民代表들이 한쪽에서는 民主統一作業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民族和合을 이룩하여 마침내는 平和統一을 完成하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새 統一方案은 統一憲法 制定에 의한 統一達成을 목표로 하고 이 作業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民族和合을 도모하자는 2元論的 接近法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이에 反해 北韓의 「高麗聯邦制」에 의하면 南韓에서 反共政府를 무너뜨린 후 親共政權을 세우고 모든 反共態勢를 철저히 駐韓美軍을 철수

시킴과 동시에 北韓과 美國 사이에 平和協定을 체결함으로써 卽 “南朝鮮革命”을 먼저 달성한다는 것이 第1단계 目標이다.

그 다음 第2段階로 南韓에 새로 樹立되는 親共政權과 北韓政權 사이에 合作에 의해 統一을 完成한다는 것이 北韓이 企圖하는 統一接近方法인 것이다. 한마디로 “先 南朝鮮革命, 後 統一戰略”이라고 하겠다.

#### 마. 相互認定問題

大韓民國은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제의를 통해 雙方이 統一될 때 까지 互惠平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相互關係를 유지하여 나가자는 基本立場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雙方은 서로 다른 相對方의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서로 認定하며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관해 一切 간섭하지 말 것을 제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統一國家가 樹立될 때까지 南北韓이 서로 相對方을 對話와 統一의 對象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平等한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對話를 통해 平和的인 方法으로 해결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그 理由는 우리가 平和的으로 祖國을 統一하려면 對話와 協商을 가져야 하고 그 對話와 協商을 하려면 相對方에 대한 認定이 前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相對方 內部문제에 대한 간섭, 시비는 서로간에 不和와 反目を 가져오게 됨으로써 民族和合과 平和統一을 害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은 「高麗聯邦制」주장을 통해 한편으로는 南北이 思想과 制度를 서로 認定하고 容納하는 기초위에서 聯邦制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聯邦制實施의 先行條件의 하나로 大韓民國의 反共政府가 물러나고 親共政權의 樹立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는 南韓의 政治思想과 政治制度를 認定하겠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南韓의 政治體制를 부정하겠다고 하는 論理가 맞지 않는 行動을 자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北韓은 우리 大韓民國의 內部問題를 일일이 간섭하고 시비하고 드는 不當한 行動을 일삼음으로써 南北關係改善을 가로막고 있다.

## 바. 社會開放, 交流·協力問題

大韓民國은 南北間의 社會開放, 交流·協력이 民族和合과 平和統一의 基礎이 된다는 인식에서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여 왔다.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서는 南北間의 人的往來와 다각적인 交流를 促進할 수 있도록 交易, 交通, 郵便, 通信, 體育, 學術, 教育, 文化, 報道, 保健, 技術, 環境保存 등 제분야에서 協力할 것을 제의했고 또 「20個 示範實踐事業」에서는 서울과 平壤間 道路연결, 개통 등 具體的인 內容과 方法까지도 제시하였다.

이에 反해, 北韓側은 소위 「高麗聯邦 10大施政方針」에 입각해서 南北韓 交流와 合作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聯邦制案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交流와 合作을 하겠다는 태도를 分明히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交流와 合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聯邦制統一이 된 다음에 即 共產化統一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北韓은 南北間에 쉽게 合意가 可能하며 지금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大韓民國의 「20個 示範實踐事業」제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기해 온 方案 중의 一部라고 강변하면서도 이것을 分裂을 지속시키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 거부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드러내 놓고 있다.

## 사. 統一의 節次面

大韓民國은 統一을 實現할 수 있는 節次에 관해, 「民族統一 協議會議」構成→統一憲法起草→國民投票→總選舉→統一國家完成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方案이 갖고 있는 民主性を 다음 두 가지 側面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는 統一國家의 基本이 되는 憲法을 결정하고 政府와 國會를 構成하는 과정에 우리 民族成員 個個人의 意思가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民意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統一國家의 政治理念, 國號, 內外政策의 方向, 政府形態 등은 南北韓 住民 代表로 구성되는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統一憲法草案 作成過程을 통해 마련하는데 그 자리에 北韓側이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民主的 協商方法에 의해 決定하자는 점이다. 이것은 내 것은 무조건 옳고 네 것은 모두 나쁘다는 式的 黑白論理가 아니라 네 것 내 것 같이 놓고 서로 協議, 調整, 양보, 절충하는 民主方式에 의해 統一問題를 풀어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反해 北韓이 주장하는 「高麗聯邦制」에 의하면 南北政黨, 社會團體代表, 海外同胞代表로서 소위 「民族統一促進大會」라고 하는 것을 소집하여, 聯邦國家樹立方案을 論議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大韓民國政府代表나 南韓의 特定人士는 參加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그들 주장에 의하면 聯邦國家를 구성하는 그 중요한 過程에 우리 大韓民國政府 代表나 特定人士는 물론 우리 民族絶對多數가 參加할 수 없고, 北韓共產集團의 몇몇 核心分子와 南韓과 海外에 있는 그들 同調勢力代表 몇몇만이 모여 統一問題를 결정 짓는다는 論理인 것이다.

同時에 그들은 聯邦國家의 政治理念, 國號, 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 등 重要한 問題를 자기들 一方的으로 決定發表해 놓고 우리 大韓民國을 비롯한 絶대다수의 內外同胞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는 式的 一方通行式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非民主的인 態度이며 民族全體의 意思를 무시한 反民族的인 작태인가?

### 아. 對話機構問題

大韓民國은 統一對話 機構로서 「民族統一協議會議」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제의하고 있다. 마치 두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對話通路의 設置를 제시한 것이다.

그중 「民族統一協議會議」는 南北 雙方的 住民代表로 구성하고 그 任務는 統一憲法草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은 南北韓 頂上들이 만나 「基本關係 暫定協定」등 南北韓關係 正常化問題와 統一推進의 基本方向을 協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理由는 現在 南北韓間에는 政治·軍事問題처럼 統治權을 가진 當局者끼리 만나 해결해야 할 性質의 懸案問題가 있는가 하면 統一國家의 體制問題와 같이 住民代表끼리 만나 協議해야 할 民族將來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民族統一協議會議」구성에 있어, 여기에 나올 代表選定은 南北 雙方이 자기 自己側의 형편에 따라 自己側 代表만 뽑고 相對側의 代表選定方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反해, 北韓側은 對話機構로서 소위 「民族統一促進大會」 또는 南北 政治人 100人 聯合會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그 構成이나 性格은 서로 비슷한 것이다. 마치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고 하겠다.

北韓은 이러한 會議體에서 「高麗聯邦制」 統一方案을 주로 協議, 決定 하자고 주장하면서 특히 會議體構成에 있어서 상대방인 우리 大韓民國側 參加者들의 선정에 자기들이 일일이 간섭한다는 不當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 大韓民國의 現政府當局者들을 배제하고 심지어는 南韓側 代表를 자기들이 一方的으로 指名하여 이들이 對話機構에 參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명한 南韓側代表 속에는 犯法者는 물론 兇惡인물까지 包含시키고 있다.

### 자. 前提條件問題

大韓民國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順理적으로 해결하여 民族의 堯원에 보답하기 위해 統一問題協議에 關係 尙乘的인 자세를 취하여 왔다. 우리는 南北이 상대방의 内部問題와 過去의 잘못에 대해 시비함 없이 現實認定的 바탕위에서 아무 條件없이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자는 立場에 서 있다.

條件없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南北韓이 내놓은 모든 統一方案을 對話탁자위에 올려놓고 相互主義立場에서 서로 비교, 검토, 踰越하는 과정을 통해 合意點을 찾아가자는 包容的이고 積極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제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등 어떠한 對話提議를 보아도 對話를 하기 위한 前提條件을 붙인 일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會談場所, 時期選擇問題를 北韓側에 一任하고 會談議題도 雙方이 제기하는 모든 問題를 토의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對話再開를 위한 온갖 성의있는 努力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高麗聯邦制」統一方案이나 「南北政治人 100人 聯合會議」를 주장하면서 그 앞에 우리 大韓民國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前提條件을 제시하고 있다. 前提條件의 內容은 대체로 駐韓美軍철수, 南韓의 反共대세철폐, 南韓內에 親共政權의 樹立, 共產主義活動의 自由保障 그리고 對話상대로서 大韓民國 當局者와 特定人士의 배제 등이다. 이러한 北韓側의 前提條件 제시는 한마디로 南韓內에 赤化統一의 與件을 조성해 보겠다는 저의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다.

자. 統一의 目標面

大韓民國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통해 統一의 目標은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說明하면 南北韓住民代表로 구성되는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統一憲法草案을 마련하고 이것을 國民投票에 붙여 確定지은 다음 그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政府를 樹立함으로써 하나의 統一國家를 完成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國會와, 하나의 政府를 樹立하는 完成된 統一國家의 실현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完成된 統一國家는 民族·民主·自由·福祉라는 네가지 理想을 구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未來像을 밝히고 있다. 여기 民族이란 理想은 우리 民族의 利益과 發展을 가져오는 나라를 뜻하고 民主의 理想은 人間의 基本權이 보장되며 國民이 平等한 입장에서 政治, 經濟, 社會 등 모든 國家 活動에 參與하는 民主主義國家를 의미한다. 또 自由理想은 國民모두에게 均等한 기회가 주어지는 自由國家를 뜻하고 福祉는 國民 모두에게 일자리가 보장되고 社會保障制度가 發展된 잘 사는 社會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大韓民國이 생각하는 統一祖國의 모습은 온 民族이 自由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이 추구하는 統一目標은 우리 大韓民國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사실이다.

北韓이 주장하는 소위 「高麗聯邦制」에 의하면 이른바 聯邦의 美名下에 南北韓에 두 개의 「地域自治政府」가 聯邦政府와 함께 계속 존속하는 未完成型 統一을 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 現 北韓共產政權과 南韓의 革命에 의해 새로 樹立되는 親共政權이 聯邦制下에 구성되는 소위 「最

高民族聯邦會議」라는 機構 밑에서 각기 地域自治制를 실시하는 어정정한 형태의 統一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75年 越南이 共產化된 직후 北쪽에 있는 越盟政權과 南쪽에 새로 생긴 共產越南政權이 잠시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하겠다. 더우기 北韓은 이 未完成型 統一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南北韓의 두 共產政權을 하나로 統合하는 共產化 統一로 가는 것을 基本目標로 삼고있다.

北韓 勞動黨規約에 의하면 소위「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승리를 보장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이 망상하는 統一國家의 未來像은 民族理想이나 民主理想을 부정하고, 自由도 平等도 없는 오늘의 共產越南과 같은 社會인 것이다.

## 6. 統一의 展望

南北韓의 統一方案이 對立되어 있는 狀況속에서 과연 統一이 되겠는가? 특히 平和統一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問題에 회의를 갖거나 悲觀하는 一部 見解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統一問題의 特殊性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장차 우리나라 統一問題를 左右하는 主要變數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수 있다.

- ① 南北韓 國力の 隔差
- ② 北韓内部의 情勢變化
- ③ 韓半島 周辺情勢의 變化 등이다.

위와 같은 變數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거의 확실히 展望할 수 있는 것은 80年代에 南北韓의 國力隔差는 점차 擴大되어 우리 大韓民國의 國力이 北韓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反面에 北韓은 軍事費부담

의 경감 및 閉鎖社會의 開放化가 없는 限, 經濟事情이 보다 악화되어 심각한 국면에 빠져 和戰中 兩者擇一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의 강력한 安保태세의 確立과 戰爭抑止力이 前提條件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國力伸張競爭에서 北韓이 더욱 劣勢에 몰리면서 戰爭方式이나 革命方式에 의한 赤化統一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들의 태도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北韓 權力の 交替가 예상되는 80年代에 있어서의 北韓政局의 不安定性 露出과 金日成 死後의 社會構造 變化 역시 平和統一의 展望을 밝게 하는 要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탈린 死後의 소련과 毛澤東 死後의 中共의 例가 보여주듯이 金日成의 死亡은 필연적으로 體制의 緩和와 더불어 權力構造의 集團化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集團指導體制의 속성은 이데올로기 보다는 現實을 존중하는 實用主義的 경향을 갖게 마련이며 따라서 이때에 南北韓 關係는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交流와 協力關係로 變化하는 轉機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韓半島를 에워싼 強大國關係는 不確定 要素가 적지 않으나 우리가 슬기롭게 對處한다면 韓半島 政세의 安定과 統一에 기여하는 要因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周辺 強大國들은 韓半島問題의 民族自決原則을 회구하면서도 실제로는 統一問題에 소극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봐서는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希望的 趨勢가 展開되어가고 있다.

먼저 世界의 全般趨勢는 多元化, 開放化, 自由化要求의 趨勢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는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東·西交易과 各分野의 交流와 協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것이 또한 불가피한 추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東·西間은 核戰爭의 對決을 회피하기 위해 平和

共存指向이 불가피할 것이다. 特히 오늘날 共產社會의 變動趨勢를 볼 때 우리의 平和統一接近에 대단히 希望的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共產社會의 變化趨勢는 ①理念變質 ②統治體制面의 變化 即 1人支配體制를 지양하고 集團指導體制化의 趨勢 ③技術官僚 소위 테크노크라트 계층의 役割增大 ④中央集權的 經濟體制의 變化와 資本主義 經營方式의 一部 모방 및 도입 ⑤個人的 慾求 자극 및 個人的 生活向上을 위한 鬭爭 ⑥宗教의 점진적 부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共產社會 전반의 變動趨勢와 나아가서 世界開放化 趨勢 그리고 우리 大韓民國의 對共產圈 接近 등은 장차 北韓의 社會變化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即 극도로 閉鎖化되고 教條主義的인 北韓社會를 開放化 내지 修正主義的이며 實用主義的인 方向으로 變質시킬 것이다.

요컨대 南北韓國力競爭에서 北韓이 더욱 劣勢에 물리게 될 경우 그들 스스로가 生存하기 위해서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北韓内部의 情勢와 韓半島周邊情勢의 變化趨勢 역시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有利하게 作用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統一의 可能性은 우리에게 希望的이다.

다만 이와 같은 統一의 肯定的 與件을 造成하고 그 時期를 앞당기는 일은 우리의 努力如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参 考 文 献

- 1) 南北对话白書, 国土統一院 南北对话事務局, 1982.9.15.
- 2) 統一对话, 国土統一院 南北对话事務局, 1982.6.25.
- 3) 統一教育 教授指針書, 国土統一院, 1973.4.
- 4) 統一論叢, 「高麗民主聯邦制의 批判的解积」(宋榮大), 国土統一院, 1982.6.20.
- 5) 南北韓統一方案比較, 統一研修所教材(宋榮大), 1982.6.30.
- 6) 로동신문, 1960.8.15, 1980.10.11, 1981.2.2 日字 等
- 7) 朝鮮中央年鑑, 1974.
- 8) 北韓政治辞典, 1973.
- 9) 安保統一問題 基本資料集, 東亞日報社.



# 우 리 의 統 一 政 策 ( 要 約 )

- 南北韓 統一方案 比較를 中心으로 -

## 1. 大韓民國의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

區 分	內 容
(1) 統一祖國 實現의 方法 및 未來像을 確實하게 提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은 民族自決의 原則에 의거, 民族成員의 自由意思가 反映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li> <li>○ 統一憲法은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追求하는 하나의 統一民主共和國 實現保障</li> </ul> <p style="margin-left: 20px;">&lt; 統一達成 節次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統一憲法 起草</li> <li>- 南北韓 全域에 걸쳐 實施되는 自由로운 國民投票로 統一憲法 確定</li> <li>- 統一憲法에 의한 總選舉 實施</li> <li>- 統一國會構成 + 統一政府樹立 = 統一國家完成</li> </ul>
(2) “民族統一 協議會議”의 構成 및 任 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構成: 雙方的 民意를 代弁하는 南北代表로 構成</li> <li>○ 任務: 統一憲法의 起草</li> </ul> <p style="margin-left: 20px;">&lt; 統一憲法의 內容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li> <li>-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li> <li>- 政府形態</li> <li>- 總選舉 方法, 時期, 節次 등</li> </ul>
(3) 統一達成가 지의 過渡的	<p style="margin-left: 20px;">&lt;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內容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互惠平等原則에 立脚한 相互關係 維持</li> </ul>

區 分	內 容
措置로 “南 北韓 基本關 係에 관한 暫定協定” 締 結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紛爭解決에 있어 武力, 暴力的 使用 및 威脅을 止揚하고 對話, 協商을 통해 解決</li> <li>○ 相對方 政治秩序와 社會制度 認定, 相互 內政 不干涉</li> <li>○ 休戰體制 維持, 軍備競爭 止揚 및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措置 協議</li> <li>○ 相互交流, 協力を 통한 社會開放 推進</li> <li>○ 統一까지 全世界 모든 나라들과 各其 締結한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 尊重</li> <li>○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서울과 平壤에 各其 “常駐連絡代表部” 設置, 運營</li> </ul>
(4)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 實現을 위한 高位代表團間的 豫備會談 開催 提議	
(5)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의 基本精神에 따라, 南北間的 交流協力, 社會開放, 緊張緩和를 위해 “20個 示範實踐事業” 을 提議	

2.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主張內容

區 分	內 容
(1) 骨 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 則：南과 北의 思想, 制度 容納</li> <li>○ 聯邦機構：「最高民族聯邦會議」設置</li> <li>○ 施政方針：「10大 施政方針」實施</li> <li>○ 前提條件：大韓民國政府 退陣, 反共政策拋棄, 駐韓美軍 撤收 등</li> </ul>
(2) 底 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高麗聯邦制」實施의 前提條件으로 大韓民國 政府의 退陣을 主張하는 것은 南韓에 反共政府를 무너 뜨리고 親共政權을 樹立하겠다 는 것이며, 南韓의 反共 政策拋棄 要求는 大韓民國 内部에서 共產主義 運動의 合法化를 기하겠다 는 意圖이고, 駐韓美軍의 撤收主張은 南北韓의 軍事力 均衡을 破壞하여 大韓民國의 安保態 勢를  약화시키는데 그 底意가 있음.</li> <li>○ 따라서 北韓이 「高麗聯邦制」를 主張하는 底意는 大 韓民國內의 赤化与件을 造成하는데  있는  것임.</li> </ul>
(3) 不 當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은 南北韓의 思想과 制度를 인정, 容納한 기초위 에서 聯邦制를 構成하자고 主張하면서 또 다른 한편 에서는 前提條件을 내세워 大韓民國의 體制와 制度를 否定하는 自家撞著的인 矛盾을 범하고 있음.</li> <li>○ 北韓은 南北間에 合作과 交流를 內容으로 하는 소위 「10大 施政方針」을  운위하면서, 이것은 「高麗 聯邦制」로 統一된 다음에 즉 共產化統一된 以 後에 實施하겠다 는  것으로서, 지금은 어떠한 交 流·協力도 하지 않겠다 는  姿勢임.</li> </ul>

### 3. 南北韓의 統一方案比較

區 分	內 容
(1) 統一의 主體面	○ 韓國은 民族을 統一의 主體로 보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理論上으로는 勞動階級, 實際로는 共產主義者들이 統一의 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 있음.
(2) 統一의 概念面	○ 韓國은 統一의 意味를 民族統一로 規定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統一을 革命的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음.
(3) 統一의 原則面	○ 韓國은 統一原則으로 民族自決原則과 民主原則, 平和原則을 基本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表面上 自主, 平和, 民族 大團結 原則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非民主, 武力, 暴力을 基本戰略으로 삼고 있음.
(4) 統一의 方法面	○ 韓國은 統一憲法 制定과 總選舉에 의한 具體的인 民主統一 達成方法과 이 作業을 順調롭게 進行하기 위한 “基本關係 暫定協定締結”에 의한 民族和合 實現 方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聯邦制라는 이름아래 實際로는 <先 南朝鮮革命, 後 赤化統一>戰略을 追求하고 있음.
(5) 相互認定 問題	○ 韓國은 統一이 될 때까지 相互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認定하고 相對方의 內部問題를 干涉하지 말 것을 提議하는 등 現實主義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南韓의 政治秩序와 制度를 否定하고 內政을 干涉하는 不當한 要求를 함으로써 非現實的인 幻想主義에 빠져있음.
(6) 社會開放	○ 韓國은 民族和合의 霧圍氣造成을 위해  당장에라도 實

區 分	內 容
<p>交流・協力 問題</p>	<p>踐 可能한 交流・協力を 통해 社會를 漸進적으로 開放할 것을 提議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一切의 交流 協力を 聯邦制實施 以後로 미룸으로써, 懸案問題 解決에 誠意를 보이지 않고 있음.</p>
<p>(7) 統一의 節 次面</p>	<p>○ 韓國은 統一實現의 節次로서 「民族統一協議會議」구성 → 統一憲法起草 → 國民投票 → 總選舉 → 統一國家完成 이라는 民主적이고 具體적인 節次를 제시하고 있는데 反해, 北韓은 大韓民國政府代表와 南韓의 特定人士를 배제한 가운데 一部 南北政黨, 社會團體代表 및 海外동포대표로서 소위 「民族統一促進大會」나 「南北政治人 100人聯合會議」를 열어서 聯邦國家樹立方案을 論議하지는 非民主적인 節次를 고집하고 있음.</p>
<p>(8) 對話機構 問題</p>	<p>○ 韓國은 統一對話 機構로서 「民族統一協議會議」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제의하고 있음. 前者는 南北雙方의 住民代表로 構成하고 그 任務는 統一憲法草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後者는 南北頂上들이 만나 「基本關係 暫定協定」등 南北韓關係 正常化問題와 統一推進의 基本方向을 協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反해 北韓은 對話機構로서 소위 「民族統一促進大會」 또는 「南北 政治人 100人聯合會議」를 主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事實상 그 構成이나 性格은 비슷한 것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은 것임.</p>

區 分	內 容
(9) 前提條件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國은 統一提議에 있어 아무런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고 있으며 南北韓이 제기한 모든 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는 包容的이고 大乘的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항상 大韓民國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前提條件을 添加하고 있음.</li> </ul>
(10) 統一의 目標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國은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이 實現되는 單一國家를 指向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聯邦制라는 未完成國家를 거쳐 窮極的으로는 共產主義 社會를 만들려고 꿈꾸고 있음.</li> </ul>

## Ⅱ. 北韓共產集團의 對南戰略

章 洙 棟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63
2. 一般原理	65
가. 北韓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65
(1) 唯物史觀的 思考	65
(2) 戰略·戰術的 行動	67
나. 赤化戰略 및 戰術類型	70
(1) 革命의 基本類型	70
(2) 戰略의 基本類型	72
(3) 戰術의 基本類型	74
다. 赤化戰略 및 戰術計劃	77
(1) 段階의 轉換原理	77
(2) 目標의 設定原理	77
(3) 戰略·戰術的 指導	78
3. 對南戰略	80
가. 韓半島의 周邊情勢	80
(1) 北方協力關係	80
(2) 南方協力關係	80
(3) 綜合的 評價	81
나.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82
(1) 革命의 基本節次問題	82
(2)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	83
(3) 北韓의 「祖國統一」論	84
다. 對南革命戰略의 實態	85
(1) 戰略段階와 目標	85
(2) 統一의 두가지 方途	86

(3) 戰略的 指導課題 .....	87
(가) 「3大革命力量」의 編成 .....	87
(나) 「3大革命力量」의 配置 .....	88
(다) 速度維持의 問題 .....	90
(라) 方向維持의 問題 .....	93
4. 對南戰術 .....	94
가. 對南革命戰術의 實態 .....	94
(1) 戰術段階와 任務 .....	94
(2) 戰術的 指導課題 .....	95
(가) 鬪爭形態의 交替·配合 .....	96
(나) 組織形態의 交替·配合 .....	98
(다) 鬪爭標語의 交替·配合 .....	99
(라) 核心的 高리의 捕捉·處理 .....	100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	101
(1) 8.15 以後—6.25 南侵 .....	101
(2) 6.25 南侵—休戰提議 .....	102
(3) 休戰提議—休戰成立 .....	102
(4) 休戰成立—4.19 事態 .....	103
(5) 4.19 以後—5.16 事態 .....	104
(6) 5.16 以後—對話開始 .....	105
(7) 對話開始—對話中斷 .....	106
(8) 對話中斷—現在까지 .....	107
5. 結 言 .....	110
가. 對南策動의 展望 .....	110
나. 우리의 安保對策 .....	112
表 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	115
表 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	116
表 3. 對南戰術의 原理的 分析 .....	117
表 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	118
表 5. 唯物辨證法的 「統一」方式 .....	119
表 6. 레닌主義革命戰略·戰術運用原理 .....	121

## 1. 序 言

社会科学分野를 研究하는 사람이라면 共產主義戰略 및 戰術, 그리고 北韓의 對南戰略·戰術에 관하여 전혀 無關心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 모든 社会科学徒들이 그와 같은 戰略·戰術問題에 대하여 原理的 次元에서 體系있게 理解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게 빛나간 解釈, 評価를 내리고 있음도 事實이다.

共產主義를 內面으로부터 全般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戰略·戰術인 바, 「戰略」과 「戰術」이란 그 次元을 서로 달리하는 가운데 相互有機的인 關聯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兩者의 次元 및 그 主從關係를 明確히 理解하지 못하면 共產主義 全般에 걸쳐 連鎖的으로 誤判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略과 戰術의 次元 및 兩者間의 主從關係를 분명히 区分하지 못하고 「戰略」을 마치 「戰術」을 形容하는 한낱 修辭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 경우,<sup>1)</sup> 또는 특히 中進國이나 後進國에서 適用되는 레닌主義的 2 段階革命戰略의 運用原理를 根本的으로 理解하지 못하는 경우가<sup>2)</sup> 非一非再한 實情이다.

이러한 誤判때문에 「戰略」과 「戰術」이 모두 臨機應變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本格的인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기 以前의 前段階革命만으로 그들의 行動이 終了되는 것처럼 誤認하는 傾向이 결코 적지 않은 實情이다. 그러나 그들의 戰略은 個個의 具體的 狀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歷史的 段階中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適用되는 것이며, 또한 그 當面目

註 1) 章洙棟, 「北傀 對南戰略·戰術의 原理的 考察」, 北韓誌, 1982年 3 月(通卷 123)号, p.143

2) 마르크스엔겔스著, 宮川實譯·解説, 共產黨宣言, 青木書店, 1955, pp.160 ~ 165

標가 成就됨에 따라서 社會主義, 共產主義段階로 移行하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하는 식의 比較的 持續性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2段階로 되는 中進國, 또는 後進國의 革命에 있어서는 各各 그 段階別 戰略이 마련되는 것이며 그같은 戰略을 遂行하기 위한 具體的 手法으로서의 戰術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戰術은 戰略과는 달리 주어진 狀況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즉 戰略은 比較的 持續性이 있는 基本的 行動計劃이라면 戰術은 보다 可變性이 있는 具體的 策動手法이며, 또한 戰略에 從屬되는 關係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事情때문에 北韓共產集團의 2段階革命戰略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具體的 戰術의 展開原理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體系的으로 教育 啓蒙해야 할 課題가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前述한 바와 같은 混沌을 止揚하고 北韓共產集團의 對南革命戰略을 明確히 理解하는 土臺 위에서 수시로 交替, 또는 配合되는 戰術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行動原理를 有機的으로 聯關性있게 해설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基本的인 思考方式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考察이 不可缺의 先行要件이 된다. 그리고 共產主義를 實現하기 위하여 어떻게 革命의 段階를 区分設定하게 되며 그에 따라 어떠한 戰略目標가 設定되고 그 目標達成을 위해서 多樣性있는 戰術的 行動을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交替, 配合시켜 나가는가 하는 一般原理를 이해하는 것이 아울러 要望된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의 一般的 思考 및 行動方式을 原理的으로 理解하는 土臺 위에서만이 北韓共產集團의 思考와 그 行動方式을 비로소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같은 바탕에서 北韓共產集團이 解放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實際로 어떻게 行動하여 왔는가를 確認한다는 것은 그들의 行動方式을 더욱 分明하게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하게 될 그들의 動

向까지도 充分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重視하는 것은 北韓共產集團의 向後動向을 適中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하여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는 問題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戰術的 行態에만 눈이 팔려 그 內面的 戰略的 企圖를 알아차리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綜合的, 有機的 體系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行動方式을 놓고 단편적인 方法으로 接近하여 그것들의 結果를 機械的으로 합쳐서 해독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北韓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을 根源 및 總體的으로 觀察하며, 또한 그 戰略과 戰術의 有機的인 相互主從關係를 正確하게 看破하는 것이 올바른 接近態度라 할 것이다.

## 2. 一般原理

가. 北韓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 (1) 唯物史觀的 思考

唯物史觀이란 唯物辨証法에 立脚한 歷史觀으로서 人類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로 보는 것을 前提로 하는 歷史解釋態度이다. 다시말해 唯物史觀이란 人類歷史를 原始共有制社會가 分業에 따른 階級 分化로 말미암아 私有制社會, 즉 階級社會로 反轉되고 그것이 다시 共產主義社會, 즉 無階級社會로 再反轉(否定的 否定)되는 것이 必然的이라고 보는 滅旧生新的인 革命樂觀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唯物辨証法的인 歷史觀이야말로 原始共有制가 分業 및 階級分化에 따라 質的으로 다른 階級社會로 轉換된 以後 資本主義社會에 이르기까지 -Julon 階級鬭爭을 전개해 왔다고 보며 또한 그렇게 主張하는 것이다. 그런데 奴隸社

會로부터 封建社會, 資本主義社會에 이르기까지는 不完全한 質的 變化(革命)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이 바뀌면서도 階級社會 및 私有制社會로서의 그 本質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으나 資本主義社會에 이르러 高度産業化에 따라 極少數化된 부르조아지를 壓倒的으로 多數化된 프롤레타리아트가 打倒함으로써 드디어 私有制와 階級 自體가 없어지는 共產主義社會, 즉 發展된 共有無階級社會로 完全히 反轉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의 「質的 變化」가 곧 그들이 강조하는 바의 對立物의 鬭爭 結果로 얻어지는 「統一」이며 「否定」으로 보는 革命인 바, 그것은 낡은 것의 消滅과 새로운 것의 發生에 의한 滅旧生新的 唯一化, 즉 「밀어내기式 統一」이며 결코 時間的인 先後關係를 초월한 統一, 즉 「뭉쳐지기式 統一」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sup>3)</sup> 여기에서 우리는 唯物史觀에 立脚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이 추구하는 바의 「統一」이 결코 南北間의 對等한 融合的 統一이 아니라 共產主義的인 새로운 要素에 의해서 資本主義的인 낡은 要素가 驅逐, 消滅되는 식의 滅旧生新的 統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理致를 알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合作統一論(高麗聯邦案)이 결코 理念的인 것이 될 수 없으며 全的으로 戰術的인 偽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思考 및 行動方式을 各各 孤立的으로서가 아니라 相互聯關性있게 有機的으로 觀察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註 3)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 明成出版社, 1982,

## (2) 戰略・戰術的 行動

## 가) 沿 革

共產主義戰略・戰術은 大衆을 革命에 動員 및 誘導하는 策略的 運動 技法으로서 레닌에 의하여 本格的으로 開發되었으며 스탈린에 이르러 그 理論的 「틀」이 定式化되었고, 또한 그 內容이 더욱 補完되었다. 레닌은 戰略的 次元에 대하여 言及하는 경우에도 모두 「戰術」이라는 用語로 表現하였으나 스탈린은 그중에서 持續的 本質部分을 「戰略」, 그리고 可變的 現象部分을 「戰術」로 区分하여 論述하였다.

레닌은 러시아革命의 現實的 可能性을 分明히 내다보면서도 그 社會發展段階上 마르크스의 傳統的 革命論에 의해서는 도저히 革命의 妥當性을 說明할 수 없는데 苦心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러시아革命이 社會主義革命으로 直行하는 데는 無理가 있음을 일단 認定하고 먼저 부르조아民主革命을 遂行하고 나서 그 餘勢를 몰아 社會主義革命을 지체없이 수행하는 2段階革命方式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이 궁극적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社會主義革命이므로 비록 부르조아民主革命을 수행하는 段階라 하더라도 그 革命主導權만은 프롤레타리아트(黨)가 장악해야 하며 無力한 부르조아지에게 主導權을 맡기는 것은 부르조아民主革命 그 自體의 수행도 어렵거니와 실사 프롤레타리아트가 協助支援하여 革命을 成就한다 하더라도 社會主義革命을 妨害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부르조아지는 專制君主主義에 協力하지 않도록 隔離, 中立化시키고 數적으로 優勢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処地가 비슷한 農民을 同盟軍으로 삼고 專制君主制를 打倒하고 나서 지체없이 부르조아지를 打倒하는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註 4)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本에 대하여」(1924), 同, 레닌主義의 諸問題, 모스크바, 外國文書籍出版部, 1949年版, pp.111~112.

그러나 이에 대하여 멘셰비키 (MENSHEVIKI) 들은 <sup>5)</sup> 부르조아民主革命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부르조아지가 革命을 主導하여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로서는 다만 부르조아지를 支援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조아民主革命 수행 후 資本主義가 正常的으로 發展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相當히 成長한 다음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가 主導하는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農民과의 同盟을 不必要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볼셰비크(BOLSHEVIK)와 멘셰비크는 부르조아民主革命을 먼저 遂行하고 나서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한다는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서로 一致하였으나 主力軍과 豫備軍의 編成, 配置에 있어서는 相反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멘셰비크는 마르크스의 教理를 教條主義的으로 해석하며 機械的으로 實踐하려고 하였다면 레닌中心의 볼셰비크는 그 教理를 러시아의 具體的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것이 옳은 態度라는 것이었다.

레닌은 멘셰비크의 態度를 觀照主義라고 비난하고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 第2次大會(1903. 7)以後 事事件件에서 兩派가 對立하였는데, 그 主要原因이 上述한 바와 같은 戰略的 力量配置計劃과 그에 따른 黨組織論에서 비롯되었다. 즉 레닌은 自身の 戰略構想에 따라 精銳, 秘密 및 集權的 黨을 원한데 반하여 마르토프 등 멘셰비키들은 大衆, 公開 및 民主的 黨을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西歐的 마르크스主義黨에 의한 合法的 鬭爭을 구상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1902), 「1步前進 2步後退」(1904), 「民主革命에 있어서의 社會民主黨의 두가지 戰術」(1905), 「帝國主義論」(1916),

---

註5) 멘셰비키는 멘셰비크(少數派)에 속한 要員, 즉 Menshevist를 뜻한다.



「國家와 革命」(1917),<sup>6)</sup>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1918) 및 「共產主義의 左傾小兒病」(1920) 등, 一連의 著述은 모두 러시아革命 및 過渡期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戰略과 戰術的 技法에 關하여 言及한 것이다. 이 같은 레닌의 著述들은 後日 스탈린에 의하여 「레닌主義의 基本에 대하여」(1924)라는 著述 속에서 第7章 「戰略과 戰術」이라는 題名下에 體系的으로 定式化되어 모든 레닌主義黨의 行動指針이 되기에 이르렀다.

#### (나) 特 徵

스탈린은 레닌主義의 戰略과 戰術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階級鬪爭을 指導하는 科學”이라고 規定하고 나서 「戰略」과 「戰術」에 대한 個別的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戰略은 “革命的 該當段階의 土臺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方向을 決定하고 革命的 力量(主要 및 副次的 豫備軍)의 적절한 配置計劃을 作成하여 當該革命段階, 全期間에 걸쳐 그 計劃을 實踐해 나가는 鬪爭”이라고 하였다.<sup>7)</sup>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黨)가 當該革命段階中 打倒하고 成就할 目標을 정하고 그같은 目標達成을 위해서 누구와 同盟하고 누구를 中立化(隔離)시킬 것인가를 計劃하며 實踐해 나가는 基本計劃이 「戰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戰略은 狀況의 一時的 變化에 따라 臨機應變하는 것이 아니라 그 基本目標 達成時까지는 一貫性있게 持續된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그러나 「戰術」은 一定한 革命段階 全般에 걸쳐 遂行되는 基本計劃이 아니라 그 基本計劃을 達成하기 위하여 주어진 狀況에 具體적으로 適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革命段階中에도 그리고 그 다음 革命段階에 있어서도 情勢에 따라 수시로 變모하게 된다. 즉 戰術은 “運動의 滿潮와 干潮, 革命的 昂揚과 沈滯 등, 比較的 短期

註 6) 레닌은 카우츠키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忌避하는 背教者로서 糾彈하였는데 그 理由는 그가 暴力使用을 反對하였기 때문이었다.

7) 스탈린, 前揭書, p.111.

間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行動路線을 決定하고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新旧交替하며 配合하는 등의 方式으로 그 路線을 實踐해 나가는 鬪爭”이라고 스탈린은 說明하고 있다.<sup>8)</sup>

以上에서 言及한 戰略計劃을 失手없이 効率的으로 遂行해 나가도록 統制하는 것을 「戰略的 指導」라고 하며, 戰術計劃을 適時適切하게 統制하는 것을 「戰術的 指導」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戰略的 指導面에서 볼 때 必要한 豫備軍과의 同盟을 外面하면 戰略的 左傾이 되고 反對로 지나치게 同盟의 幅을 넓히거나 그 時期를 연장시키려는 것은 戰略的 右傾이 되며 戰術的 指導面에서도 干潮期에 滿潮期에 쓰이는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내걸면 戰術的 左傾이 되고 그 反對의 경우에는 戰術的 右傾으로 지적된다.<sup>9)</sup>

대체로 右傾誤謬는 小心한 檢장이幹部에 의해서, 그리고 左傾誤謬는 혹시 잘못하면 右傾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急進的 傾向을 나타내는데서 비롯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左右傾이 모두 機會主義이며 그같은 機會主義가 안으로 굽으면 「左傾」이 되고 밖으로 굽으면 「右傾」이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 나. 赤化戰略 및 戰術類型

##### (1) 革命의 基本類型

戰略의 類型은 革命의 類型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革命의 類型을 考察하는 것이 必要한 要件이 된다. 元來 마르크스와 Engels는 資本主義가 고도로 發展되면 必然的으로 革命이 일어나서 社會主義로 轉換되는 것으로만

註 8) 上揭書, p.113.

9) 金永學, 前揭書, pp.219 ~ 220.

說明하였고 後進國家에서의 革命問題에 관해서까지 論한 바는 없다.

그런데 레닌은 資本主義國家 相互間的 發展이 不均等함을 전제로 從前의 先進國家와 새로운 先進國家가 되려는 國家 사이의 競爭이 植民地 爭奪戰으로 나타나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는 先進國家가 植民地에서의 収奪로 인하여 國內的 矛盾을 一時的으로 緩和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後進國家의 對內的 矛盾은 相對的으로 더욱 첨예化됨으로써 國際帝國主義戰線中 가장 약한 고리가 된다고 하였고,<sup>10)</sup> 바로 그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러시아이므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革命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레닌의 敎示를 土臺로 하여 코민테른 第6次大會(1928. 7~8)에서 採択된 綱領에 의하면 各國의 政治經濟的 發展段階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一國革命方式이 제시되고 있다.

#### (가) 先進國의 革命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한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충분히 成長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하여 즉시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確立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革命方式은 先進國家에는 이미 民主化가 이룩되었고 또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충분히 成長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 바, 아직까지 이같은 方式으로 革命을 成就한 共產國家는 사실상 이 地球上에 하나도 存在하지 않는다.

#### (나) 中進國의 革命

中進國家에 있어서는 일단 부르조아民主革命을 수행하고 나서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段階革命이 必要한 理由는 中進國家에는 아직 封建遺制가 殘存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成長도 不充分하

註 10) 레닌,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1916), 공산주의 요전, 東京, 日刊 勞動通信社, 1959, p.148.

기 때문이라는 것인 바, 이같은 方式으로 赤化된 國家가 바로 蘇聯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 (나) 後進國의 革命

植民地, 半植民地 및 從屬國에 있어서는 民族獨立鬪爭과 反封建民主革命을 成就하고 나서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되, 특히 既共產化된 國家(蘇聯)의 直接支援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方式이 必要한 理由는 後進國에는 外勢가 침투되어 있으며 또한 封建制度가 支配的이기 때문이라는 바, 이같은 方式에 의하여 赤化된 것이 蘇聯 以外的 모든 共產國家라고 할 수 있다.

#### (2) 戰略의 基本類型

戰略의 類型은 前述한 바의 革命類型에 따라 「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 「反帝 反封建民主(新民主主義·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및 「社會主義革命戰略」, 그리고 이같은 一國革命 成就後에 수행되는 「世界革命戰略」으로 区分된다.<sup>11)</sup> 그런데 이들 各異한 革命戰略의 差異點은 그 궁극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段階, 節次上의 當面目標 및 그 目標遂行을 위한 革命力量의 配置計劃에 있는데 不過한 것인 바 그 大體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가) 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

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은 中進國에서의 前段階革命戰略인 바, 그 戰略的 當面目標은 우선 封建遺制를 掃蕩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目標遂行을 위해서 數的으로 劣勢한 프롤레타리아트를 主力軍으로 삼는 代身 數的으로 優勢한 農民을 同盟軍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그 名稱은 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이면서도 부르조아지는 專制君主勢力과 協力하지 못하도록 隔離, 中立化시켜, 專制君主勢力을 먼저 打倒하는데 利用하고 나서 그 다음 段階인 社會主義革命에서 부

註 11) 表 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르조아지를 打倒하는 것으로 미리 策定해 놓고 있는 것이다.<sup>12)</sup>

#### (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革命戰略은 後進국에서의 前段階 革命戰略인 것인 바, 그 戰略的 當面目標은 먼저 外勢驅逐 및 國內封建制度를 打破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目標遂行을 위해서 勞動者階級 領導下의 勞農同盟軍을 主力軍으로 삼고 打倒對象을 除外한 거의 大部分의 階層을 同盟 勢力으로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sup>13)</sup> 그런데 이 革命戰略段階에서는 그때그때 具體的 狀況을 考慮하여 外勢와 國內反共勢力의 打倒優先順位를 정하고 兩者를 各其 隔離, 孤立化시켜 차례로 各個擊破하는 方式도 適用하게 된다.

#### (다) 社會主義革命戰略

社會主義革命戰略은 先進국, 또는 中進국과 後進국에서의 後段階 革命戰略인 것인 바, 그 戰略的 當面目標은 부르조아지를 打倒하고 私有制를 清算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目標遂行을 위해서 主力軍은 프롤레타리아트이고, 同盟軍은 貧農에 局限된다.<sup>14)</sup>

따라서 小市民階層은 부르조아지와 協力하지 못하도록 隔離, 中立化시켜 부르조아지를 먼저 打倒하고난 다음 그들을 除去, 또는 勞動者로 改造하도록 策定하고 있다.

#### (라) 世界革命戰略

世界革命戰略은 各國이 自國의 社會主義革命을 基本的으로 成就한 후 에 그 革命을 밖으로 輸出하는 段階의 戰略인 것인 바, 그 戰略目標은 國際資

註 12) 스탈린, 前揭書, p.112.

13)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5.

14) 스탈린, 前揭書, p.112.

本主義의 打倒이며 그같은 目標遂行을 위하여 全世界 프롤레타리아트를 主力軍으로 삼고 全世界 先進諸國의 半프롤레타리아트와 後進諸國의 民族解放鬪爭을 同盟勢力으로 策定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그들은 各國의 小부르조아民主 諸黨이 부르조아지와 協力하지 못하도록 隔離, 中立化시켜 부르조아지를 集中攻擊하는데 注力하게 된다.

### (3) 戰術의 基本類型

戰術이란 어떤 革命段階에 있어서나 具體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臨機應變하는 것이어서 戰略과 같이 單調로운 것이 아니라 多種多樣한 것이 그 特徵이다.<sup>16)</sup> 그리고 아직까지 開發되지 못한 새로운 形態의 戰術들이 새로이 造成되는 情勢變動에 適應하도록 創案될 수도 있다.

戰術은 滿潮期에는 攻擊, 干潮期에는 後退, 그리고 沈滯 및 昂揚期間中에는 防禦를 취하게 된다. 또한 完全한 滿潮期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力量配置計劃에서 策定된 同盟勢力들을 포섭,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機會있는대로 迂迴攻擊으로써 不斷히 主敵에 대하여 壓迫을 가하게 되는 것인 바, 그 概要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攻擊型 戰術

革命의 主·客觀的 情勢가 昂揚期라고 看做될 때 그들 共產黨은 平和的 蜂起로써 彼我的 力量을 「計算」해 보며 어느 정도 自信이 서게 되면 彼我力量을 直接 「試驗」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소위 「決定的 時機」가 포착되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武裝蜂起를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蜂起原理이다.

註 15) 上揭書, pp.112~113.

16) 表 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決定的 時機」란 上層階級 内部에 紛열이 일어나서 既存體制의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sup>17)</sup> 下層階級の 고통이 극도로 惡化되어 反抗기운이 충만하였을 때를<sup>18)</sup> 뜻한다. 이와 같은 決定的 時機에 共産党은 政治罷業과 示威, 国会 보이코트(boycott), 暴動展開 및 戰鬪的 標語를 제시하여 鬪爭하며 그 組織形態는 革命的 工場委員會, 農民委員會, 罷業委員會 및 公公然한 共産党的 地上活動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 (나) 後退型 戰術

前述한 바와 같은 攻擊에 臨하였을 때 相對方의 우세한 反擊에 직면하여 오히려 危險한 事態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지체없이 後退함으로써 自體의 生存維持를 피하게 된다. 後退에는 「退却」과 「協商」이 포함되는 바, 이와 같은 後退는 결코 「後退」 그 自體가 목적이 아니라 幹部救出과 主要 陣地(既得權)를 保存하기 위한 것이며 後退後 隊列을 정비하고 力量을 回復하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攻擊을 시도하게 된다.

「退却」은 尠 重要的 陣地를 내주면서 計劃적으로 豫定된 時期에 必要的한 만큼 後退하는 것이며<sup>19)</sup> 「協商」은 一定的 地域과 自體政權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政權의 保存을 위해서 必要的한만큼 妥協하는 것을<sup>20)</sup> 뜻한다. 이와 같은 受難期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干潮期用으로 교체하고 地下에 숨어들어 戰力 再整備에 임하게 된다.

註 17) 소위 「上層階級の 危機」이다.; 레닌, 第2 인터내셔널의 崩壞(1914), 吉田 弘訳, 東京, 国民文庫版, p.36.

18) 소위 「下層階級の 危機」이다; 上掲書, p.37.

19) 中共党的 「2萬5千里 大長征」(1934)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20) 레닌이 10月革命 直後 对独講和를 呼訴하여 成就시킨 「브레스트·리톱스크」講和 및 韓國動亂時 北韓共産集團이 蘇聯(말리크 UN代表)을 내세워 休戰을 제의한 것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ㄷ 防禦型 戰術

共産黨은 일단 後退하고 나서 自體戰力을 再整備하는 期間에는 「防禦」를 취하게 되는 것인 바, 潮水의 沈滯期에는 守勢的 防禦로 임하되 潮水가 昂揚함에 따라 점차 攻勢的 防禦로 전환하게 된다. 防禦型戰術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은 平和(共存)戰術이며 中立化戰術과 浸透·暴露戰術 등도 防禦에 속하는 戰術이라고 할 수 있다.

平和(共存)戰術은 主敵을 相對로 自體力量을 備蓄하는 期間中 相對方으로부터의 攻撃을 피하려는 手法이고 中立化戰術은 中間 浮動層을 反政府的, 親共的 集團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浸透·暴露戰術은 有利한 客觀的情勢를 만들어내기 위한 攻勢的 防禦手法이다. 이와 같은 防禦期間中 共産黨은 干潮期 및 滿潮期用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配合하게 되는 것인 바, 潮水가 昂揚되는 대로 攻勢的 要素를 加重시켜 나가는 것이 戰術的 配合의 原理이다.

ㄹ 迂迴型 戰術

革命運動이 대체로 昂揚期에 있을 때에 相對方을 攻撃하는 方法으로서 統一戰線에 의한 「迂迴攻撃」이 있다. 統一戰線戰術에 있어서도 그 具體的 方法面에서 위로부터, 또는 밑으로부터의 統一戰線 構築, 그리고 國際的 統一戰線의 形成 등, 具體的 狀況에 따라서 그 樣相이 多樣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같은 統一戰線에 의한 手法은 1920年代에 開發된 以來, 점차 國際化되면서 1930年代 後半에 反帝·人民戰線戰術을 거쳐 第2次 世界大戰 以後에는 反帝·反封建的 人民民主戰線의 形態를 취하면서 주로 後進國에서의 革命戰略으로 階梯化되었다. 共産黨은 이같은 統一戰線의 手法을 驅使함에 있어서 守勢 및 攻勢的 防禦와 密接히 配合해 가면서 可能的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취하게 되며 決定的 時機가 造成되면 正面攻撃으로 轉換하게 된다.



## 다. 赤化戰略 및 戰術計劃

## (1) 段階의 轉換原理

戰略은 當該革命段階中 一貫性있게 적용되는 基本計略이므로 잠정적인 情勢變化에 따라 수시로 變化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르조아民主革命, 또는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에 있어서는 그 革命이 達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 또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이 一貫性있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前段階革命이 一段落되어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時는 戰略 역시 社會主義革命戰略으로 轉換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革命段階는 그 自體의 革命戰略을 지닌다는 점에서 革命과 戰略 사이에는 1對1의 關係가 形成되며 이같은 關係를 「革命과 戰略段階의 一致性」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들의 行動에서 變化無雙한 것은 戰略이 아니라 바로 戰術部分인 것인 바, 하나의 革命戰略段階中에도 情勢變化에 상응하여 攻擊, 後退, 防禦 및 迂迴攻擊 등으로 변모하는 것이 戰術의 段階轉換原理이다. 그러면서도 戰術은 戰略의 成功을 위해서 奉仕해야 한다는 점에서 戰略에 대한 從屬性이 있음에 유념할 必要가 있다.

## (2) 目標의 設定原理

戰略과 戰術의 段階란 어떠한 目標 및 任務를 成就하기 위해서 運動하는 一定期間을 뜻하는 것이므로 戰略과 戰術段階의 差異는 곧 그 指向目標上的 差異와 직결된다. 戰略이 指向하는 目標은 當該革命을 直接 完遂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것이나 戰術이 달성해야 할 任務는 滿潮期에는 攻擊, 그리고 干潮期에는 後退任務가 할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後退任務를 達成하고 나면 곧이어 防禦任務로 轉換하게 되며 守勢的 防禦에 어느 정도 成功하면 점차 攻勢的 防禦로 전환하여 情勢의 好轉을

포착하는대로 다시 攻擊을 취하는 등, 戰術任務는 潮水의 干滿에 따라 수시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完全한 滿潮期가 조성되기 以前에도 共産黨은 그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利用可能한 勢力이면 그것이 비록 不確實하고 條件的인 것일지라도 同盟軍으로 삼고 主敵을 压迫하는 迂迴攻擊任務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 바,<sup>21)</sup> 이것이 바로 共産黨의 統一戰線手法이다.

그런데 戰術的 成功이 戰略的 見地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有害로운 경우에는 그같은 戰術任務 자체를 變更하거나 그 成功을 拋棄하는 것이 戰術運用上의 原理로 되어있다. 共産黨이 중시하는 것은 戰術的 任務 그 自體가 아니라 戰略目標를 達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戰術的 成果이므로 戰略的 見地에서 價值가 認定되는 戰術任務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設定될 수조차 없다는 점에 留意해야 할 必要가 있다.

### (3) 戰略·戰術的 指導

戰略的 指導란 戰略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力量配置計劃에서 策定된 豫備軍을 옹계 利用하는데 重點을 두는 것이다. 스탈린은 革命의 豫備軍을 다음과 같이 例示하여 그 利用方法을 가르치고 있다.<sup>22)</sup>

#### <直接豫備軍>

- 自國의 農民과 中間層 (第 1)
- 隣接國의 프롤레타리아트 (第 2)
- 植民地, 從屬國의 獨立鬪爭 (第 2)
- 既戰取한 프롤레타리아獨裁權力 (第 2)

註 21) 레닌, 「共産主義의 左傾小兒病」(1920), 스탈린, 前揭書, p.127.

22) 스탈린, 上揭書, p.115.

## 〈間接豫備軍〉

- 自國內의 非共產主義勢力間의 충돌
- 資本主義國家사이의 矛盾 및 戰爭

上述한 바의 豫備軍 利用 以外에도 革命的 諸勢力으로 하여금 適時에 攻擊 또는 後退를 취하게 함으로써 「速度喪失」 또는 「時機尚早」에 빠지지 않도록 戰術轉換의 速度를 統制하는 것도 戰略的 指導課題이다. 그리고 어떠한 形態의 戰術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 後退時까지도 前衛로 하여금 결코 戰略目標를 망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鬪爭의 方向을 堅持하게 하는 것, 역시 戰略的 指導에 속하는 課題이다.

한편 戰術的 指導의 主課題는 狀況에 알맞는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具體的으로 交替 및 配合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当面한 革命鬪爭을 達成하는데 가장 核心이 되는 「고리」를 포착하여 그것을 適時에 끌어당기는 것도 戰術的 指導의 所管分野이다.<sup>23)</sup>

이와 같이 戰略計劃을 總體的으로 지도하며 그 成功을 보장하는 것이 戰略的 指導課題라면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戰術的 指導課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戰術計劃 自體가 戰略計劃에 從屬되고 있으므로 戰術的 指導 역시 戰略的 指導에 따라 수행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註 23) 上揭書, p.124

### 3 . 對 南 戰 略

가. 韓半島의 周辺情勢

#### (1) 北方協力關係

스탈린이 生存했을 당시에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을 全的으로 소련이 지도하고 있었으므로 소련과 中共 및 北韓의 關係는 垂直關係에 있었다. 그러나 1953年 스탈린의 死亡後 1960年을 前後하여 中·蘇紛爭이 抬頭 및 激化되면서 이들의 關係는 3角關係로 변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金日成은 中·蘇兩國과 모두 軍事同盟을 체결함으로써 조위 「民主基地」를 튼튼히 하는데 努力해 왔다. 그러나 이미 中·蘇兩國間의 協力關係는 斷絶되었고 더우기 中共이 소련을 最大의 敵으로 삼고 美·日兩國과 協力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커다란 試鍊에 부딪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中·蘇兩國은 서로 對決하고 있으면서도 北韓을 支援하는데 있어서만은 一致된 行動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中·蘇兩國은 北韓과 서로 接境하고 있어서 有事時 北韓을 支援하는데 있어서 地政學的으로 有利한 條件에 놓여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南方協力關係

韓國과 美國은 軍事同盟을 맺고 있으나 韓國·日本兩國間에는 그러한 軍事同盟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日本은 韓日協定을 통하여 紐帶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美·日安保條約에 의하여 共同步調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南方協力關係 역시 급변하는 周邊情勢의 變化에 따라 크게 변모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더우기 美國과 日本이 中華民國을 제쳐놓고 中共과 修交를 맺고 있으며 日本이 北韓과 非公式的으로 接觸하고 있는 사실 등은 南方協力關係의 不安定性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韓·美·日間의 紐帶關係도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關係없이 美國과 日本의 實利為主打算에 의하여 左右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韓國支援의 支柱인 美國은 우리나라와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隔離되어 있어서 駐韓美軍의 撤収가 中·蘇兩國軍의 北韓撤収와는 그 性格을 달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3) 綜合的 評價

南北韓을 圍繞한 支援勢力이라는 立場에서는 北韓側이 南韓보다 훨씬 有利한 條件下에 놓여 있기는 하나 中·蘇兩國間의 敵對關係가 쉽사리 改善될 展望이 보이지 않고 있는 反面에 美·日·中共間의 協力關係가 이루어짐에 따라 北方에 비하여 南方協力關係가 相對的으로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日·中·蘇의 4大強國은 모두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方法으로서 直接的인 武力行使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視角에서는 韓半島의 分斷狀態는 事實上 長期化될 展望이 濃厚하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全面武力戰에 依存하는 한 南北이 다같이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中·蘇兩國이 北韓共產集團의 全面·武力南侵 方法은 牽制하고 있으면서도 非武力的 方法, 즉 南韓內에서의 人民民主革命方法을 驅使한 南韓赤化 方法에

는 反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積極 勸奨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점은 녀슨 獨트린에서 비롯되는 韓半島問題의 韓國化 趨勢에 便乘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

## 나.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 (1) 革命의 基本節次問題

北韓共產集團이 말하는 소위 「朝鮮革命」이란 韓半島 全域에 걸친 赤化革命을 의미하는 것이며 南韓地域의 赤化까지를 自己任務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本來 「朝鮮革命」은 韓半島 全域에 걸쳐 同時的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으나 客觀的 情勢의 制約때문에 北韓地域에서만 先行된 셈이다.

이와 같이 北韓地域에 한해서만 先行된 赤化作業을 그들은 「半國的 革命」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같은 半國的 革命은 南韓地域까지를 赤化하는 소위 「全國的 革命」을 위한 革命基地 구축에 해당되며 이를 가리켜 「民主基地 路線」이라고 부르면서 武裝力 構築, 政治經濟力 強化 및 宣傳·煽動機能 強化에 狂奔하고 있다.

6·25 南侵이야말로 바로 半國的 革命을 조급하게 全國的 革命으로 擴大하려는 企圖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失敗로 끝나자, 그들은 우선 北韓地域에 대해서 만이라도 本格的인 赤化作業을 전개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1953年 8月부터 人民民主主義革命에서 社會主義革命으로 革命段階를 전환시켰다. 그러나 「南朝鮮革命」은 如前히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에 머물고 있는 實情

이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南北間의 革命段階는 다르다 하더라도 北韓의 革命基地的 役割을 내세워<sup>24)</sup> 「南朝鮮革命」을 「朝鮮革命」의 節次的 問題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將次第2의 朴憲永이 出現할 可能性을 事前에 封鎖하는 布石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점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對南革命은 곧 北韓共產集團의 領導下에 수행되는 南韓의 征服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 (2)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

金日成은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相互關連性 및 共通點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조건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이 別個의 問題가 아니면서도 그렇다 하여 완전히 同一한 問題도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sup>25)</sup>

### (가) 關 連 性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은 다같이 「全朝鮮革命」의 一環으로서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은 곧 「南朝鮮革命」을 위한 鬪爭으로 되며 「南朝鮮革命」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祖國統一」을 促進시키는 것으로서 兩者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不可分離의 밀접한 關連性을 가지고 있

註 24) 前揭,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p. 26 ~ 27.

25) 金日成, 秘密敎示,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1968.7.8)에서

다는 것이다. 즉 南韓의 赤化革命이 그들이 말하는 「祖國統一」의 前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共通點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은 다같이 「全朝鮮革命」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데 共通點이 있고 다같이 美國과 南韓當局을 鬪爭對象으로 삼고 있다는 데도 共通點이 있으며, 또한 다같이 「主體思想」을 지도적 理念으로 삼고 있는 革命鬪爭이라는 데 있어서도 共通點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金日成의 所謂 「主體思想」에 立脚하여 美國勢力과 南韓의 反共政權을 驅逐, 打倒하기 위한 革命이라는 점에서 兩者가 一致하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 (3) 北韓의 「祖國統一」論

共產主義者들은 該當社會의 下部構造의 發展程度에 따라 革命의 方式을 決定하며 그에 따른 戰略·戰術을 實踐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 있다. 바로 이같은 原理에 立脚하여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祖國統一에 관한 主張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祖國統一」이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과 民族的 및 國際的 性格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 祖國統一이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性格을 띠게 되는 理由는 南韓社會가 美國에 예속된 植民地的 半封建社會라는 데서, 그리고 民族的 및 國際的 性格을 띠게 되는 까닭은 「祖國統一」問題가 우리 民族의 内部的인 一國革命인 同時에 世界革命의 一部分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註 26)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p.45 ~ 46.



이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祖國統一」을 革命에 의해서 成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다. 對南革命戰略의 實態

##### (1) 戰略段階와 目標

北韓共產集團의 對南革命戰略은 大韓民國의 現體制를 打破하기 위하여 利用可能한 各界各層을 勾합하여 鬪爭하는 基本計略이다. 그러한 企圖 밑에 그들은 韓國의 現處地를 美國의 植民地的 從屬國으로 惡評하면서 소위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저러한 口實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結局 對南革命戰略의 目標을 「駐韓美軍의 撤収」와 「反共政權의 打倒」에 의한 人民政權의 樹立에 두고 있음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問題이다. 애써 對南革命의 名分을 「反帝」니, 「反팃쇼」니, 「反封建」이니 하고 내세우고는 있으나 南韓이 美國의 植民地가 아니며 팃쇼나 封建的 요소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그들도 充分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廣範한 反美·反政府 統一戰線을 形成하기 위한 術策에 不過하다.

그리고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일단 成就되고 나면 다음 段階인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게 되리라는 점은 그들의 革命原理上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이 黨規約 前文에 當面目標을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보장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課業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하였고 最終目標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고 規定한 것은 바로 그같은 底意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2) 統一의 두가지 方途

金日成은 祖国統一을 遂行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方途가 있는 바, 「平和的 方途」와 「非平和的 方途」가 바로 그것이라고 言明하고 있다. 27) 이같은 金日成의 發言은 「非平和的 方途」가 如意치 않은 情勢下에서 「平和的 方途」를 構想해 낸 것이며 또한 그 「平和的 方途」自体가 결코 暴力을 排除한 것이 아니라는 데 留意해야 한다.

즉 「非平和的 方途」란 北韓의 武力을 直接 動員함으로써 本格的인 戰爭을 통하여 南韓을 征服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平和的 方途」란 南韓 自体内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수행된 다음 南北政權을 統合하거나 또는 韓國의 現政權(反共政權)이 聯共政權으로 교체된 다음 南北間의 對話를 통하여 統一을 實現하는 方途이다.

그런데 前者나 後者가 모두 南韓의 反共政權을 排除하려는 것이어서 現存하는 南北体制 사이에는 결코 妥協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金日成은 「祖国의 平和的 統一에 관한 우리의 主張은 결코 美帝國主義者들과의 鬪爭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것은 南朝鮮 当局者들과 그 어떤 協商이나 妥協을 하자는 것과는 아무런 共通性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8)

그러면서도 北韓共產集團이 것처럼 요란하게 「平和的 統一」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國際情勢의 흐름에 맞추어 平和攻勢를 펴므로써 大韓民國을 마치 好戰的인 것처럼 歪曲宣傳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註 27) 上揭書, p.284.

28) 金日成, 前揭 秘密教示에서

그리고 韓國의 國論을 分裂시키고 國民들의 對共 警戒심을 악화시켜 革命에 有利한 情勢를 造成하자는 데 또한 그 目的이 있다. 더우기 것처럼 平和를 愛好하고 있는 듯이 위장선전함으로써 앞으로 造成되는 非正常的 事態에 대한 책임을 모두 韓國에 뒤집어 씌우려는 底意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3) 戰略的 指導課題

戰略的 指導란 바로 戰略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革命力量을 옹기 編成, 配置하고 「決定的 時機」에 맞추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速度로 攻擊戰術을 動員하도록 統制하며 어떠한 어려운 狀況下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戰略目標을 忘却하지 않도록 統制하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般原理를 北韓共產集團이 具體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3大革命力量」의 編成

革命과 反革命의 力量 對比關係에 있어서 革命力量의 圧倒的 優勢를 확보하기 위해서 主力軍과 補助力量(豫備軍)을 어떻게 策定, 編成하는 가 하는 問題에 있어서 金日成은 소위 「3大革命力量의 強化」를 제시하고 있다. 金日成은 1964年2月 党中央委員會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革命力量을 編成·強化하도록 강조하였다.<sup>29)</sup>

- 「共和國」 北半部の 社會主義革命力量

註 29)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239.

- 「南朝鮮」의 革命力量
- 國際革命力量

여기에서 「南朝鮮의 革命力量」이란 勞働者階級(黨)이 領導하는 勞農同盟軍을 主力軍으로 삼고 지식인, 青年學生, 小市民, 宗教人뿐만이 아니라 下層軍人까지에 이르는 各界各層을 反美·反政府的인 統一戰線에 革命補助力量으로서 묶어 세운 狀態를 뜻한다.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이란 共產諸國은 물론이며 先進諸國에서의 勞動運動 및 非同盟圈에서의 反韓·反西方運動 등을 指稱하는 것이다.

그리고 南韓內의 各政黨 및 社會團體間의 갈등과 勞資間의 모순, 美·日兩國을 위시한 資本主義 諸國間의 갈등을 間接豫備軍, 즉 對南革命을 간접적으로 돕는 유리한 要素로 보고 있음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革命力量을 基반으로 하여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나를 일단 뒤에 미루고 「反帝·反封建」의 口號를 내걸고 「駐韓美軍의 撤収」와 「反共政權의 打倒」를 實現하여 소위 「人民政權」이라는 赤色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當面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 (나) 「3大革命力量」의 配置

「3大革命力量」을 編成, 強化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配置하느냐 하는 問題는 革命遂行方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戰爭의 方途를 취하느냐, 또는 南韓 自體의 革命을 爲主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主力軍으로 하여 무엇을 補助力量(豫備軍)으로 配置하는가의 問題가 달라지는 것이다.

共產主義革命原理에 따르면 아무리 革命力量을 잘 編成하더라도 그것을 適

切히 配置하지 못하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革命力量編成과 함께 그 配置問題가 重視되는 것인데, 金日成이 對南戰略指導에서 提示한 非平和的 및 平和的 方途의 力量配置計劃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 1) 「非平和的 方途」의 境遇

첫째, 主力軍은 北韓 自體의 社會主義 革命力量(人民軍)이며 이들이 美軍과 韓國軍을 攻擊하여 殲滅후 南韓 全域을 強占한다.

둘째, 第1補助力量은 南韓의 革命力量이며 이들이 南進하는 人民軍의 軍事行動을 補助하면서 暴動을 일으켜 南韓의 軍事力을 分散 弱화시킨다.

셋째, 第2補助力量은 國際革命力量이며 이들이 國際적으로 北韓共產集團의 立場을 支持, 聲援하고 韓國에 대한 國際的 支援을 沮止한다.

### 2) 「平和的 方途」의 境遇

첫째, 主力軍은 南韓의 革命力量中 地下黨과 그 주위에 結束된 勞·農同盟軍이며 이들이 南韓 全域에서 武裝蜂起를 일으켜 現政權(反共政權)을 전복한다. 그리하여 革命政府 宣布와 同時에 對外的으로 中立을 宣言하면서 北韓에 대하여 支援을 要請한다.

둘째, 第1補助力量은 統一戰線에 망라된 各界各層이며 이들이 主力軍의 革命鬪爭을 補助하면서 各地域에서 地主·資本家 및 反革命官僚들을 打倒한다. 그리고 일부 浮動層에 대해서는 反革命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隔

註 30) 内外政策研究所, 内外論叢, 第4卷 第1輯(通卷 第4輯), 1982, pp.131 ~ 132.

離, 中立化시킨다.

세째, 第2補助力量은 北韓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며 이들이 對南工作要員을 大量 南派하여 主力軍에 合流하여 武裝暴動을 擴大시킨다. 그리고 南韓의 革命政府가 要請한 바에 의하여 支援한다는 口實下에 軍事作戰을 展開한다.

네째, 第3補助力量은 國際革命力量이며 이들이 國際舞臺에서 美國을 비롯한 韓國支援力量을 孤立, 弱화시키고 北韓共產集團의 立場을 支持, 聲援한다.

#### (다) 速度維持의 問題

소위 「決定的 時機」란 革命運動의 主·客觀의 情勢가 成熟되어 反革命的 暴力을 革命的 暴力으로 一擊에 소탕할 수 있는 絶好의 時点を 뜻한다. 이러한 時점은 全革命戰略段階中에서 단 한번만 있을 수 있는 戰術段階로서 이와 같이 貴重한 時機를 어떻게 造成 選択 및 利用하는가 하는 速度維持問題는 革命의 勝敗를 左右하는 戰略的 指導課題로서 매우 重要視되는 것이다.

#### 1) 「決定的 時機」의 展望

그들은 「決定的 時機」가 到來하는 展望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31)

첫째, 不意의 南侵, 즉 「非平和의 方途」를 취하는데 有利한 時期이다.  
즉

- 世界 到處에서 武力衝突이 일어나 美國의 軍事力이 世界 到處에로 分

---

註 31) 上掲書, pp.133 ~ 134.

散되지 않을 수 없는 時期

- 世界的 大戰이 일어나 美國이 그 軍事力을 韓半島에 集中할 수 없는 時期
- 美國内部 輿論의 壓力으로 駐韓美軍 撤収가 不可避해 지는 時期
- 南韓 全域에서 拳國的인 大混亂이 벌어지는 時期 等이다.

둘째로는, 南韓 内部에서의 革命 즉 「平和的 方途」를 감행하는데 有利한 時期이다. 즉

- 南韓에서 指導層 内部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갈팡질팡하게 되는 時期 (上層階級の 危機)
- 南韓 内部에서 階級的 矛盾이 격화되어 國民들의 不滿이 高潮되고 下層部의 生活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時期 (下層階級の 危機)
- 南韓의 革命力量이 튼튼히 編成되어 反革命勢力을 圧倒하게 되는 時期 等이다.

## 2) 「決定的 時機」의 造成

金日成은 革命이 「革命家들의 적극적이고 간고한 鬪爭을 통해서만 前進될 수 있으며 성숙될 수 있는 것」이라고 力說하고 있다.<sup>32)</sup> 즉 革命의 「決定的 時機」를 主動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그 情勢를 의도적으로 造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革命情勢를 의도적으로 造成하여 「決定的 時機」를 主動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課業은 다음과 같다.

註 32)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173.

첫째, 南韓에 強力한 地下黨을 구축하고 그 周圍에 勞·農同盟軍을 비롯한 廣範한 同調勢力을 拘합하여 革命的 力量을 튼튼히 꾸리며,

둘째, 廣範한 群衆들 속에서 反政府感情이 일어나 各種 群衆鬪爭(大衆鬪爭)을 不斷히 展開하도록 함으로써 社會的 混亂을 야기시키는 同時에 反革命勢力을 相互 孤立, 弱화시키며

셋째, 國際舞臺를 통한 海外工作을 展開하여 韓國을 國際的으로 孤立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3) 「決定的 時機」의 選擇

金日成은 "우리가 革命情勢를 의도적으로 成熟시키는 그 궁극적인 目的은 革命的 決定的 時機를 앞당겨 祖國統一의 大事變을 主動的으로 맞이하자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革命情勢를 正確히 分析, 判斷하고 決定的 時機를 제때에 포착, 選擇하는 것이며 일단 時機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決定的 鬪爭으로 突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時機選擇問題가 重要하게 提起되는 理由는 제아무리 革命力量을 잘 編成하고 配置하더라도 「決定的 時機」를 놓치게 되면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며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決定的 時機」를 選擇함에 있어서 그들이 重視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革命的 主·客觀的 情勢를 勞動者階級의 立場에서 綜合的으로 分析, 判斷하는 것이며, 둘째는 革命과 反革命間의 力量對比關係의 變化를 正確히 「計算」 및 「試驗」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4)</sup>

註 33) 前掲, 内外論叢, p.21.

34)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176.



## 4) 「決定的 時機」의 利用

金日成은 " 일단 決定的 時機가 선택된 다음에는 지체없이 反動 統治輩들을 짓부시는 決定的 鬪爭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革命에 있어, 根本問題는 政權에 관한 問題이다. 敵들의 手中에서 政權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形態의 鬪爭을 政治鬪爭, 武裝鬪爭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up>35)</sup> 즉 「決定的 時機」가 선택된 다음, 지체없이 總攻擊에로 突入하도록 하는 것이 戰略的 指導의 課題이다.

共產主義者들이 總攻擊을 開始한다는 것은 武裝蜂起를 斷行함을 뜻한다. 北韓共產集團은 지난날 南韓의 4·19事態를 보면서도 本格的인 行動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戰後復旧作業에 몰두하여 그때까지 主体的 條件을 完全히 整備하지 못했던 탓인데 지금도 그것을 千秋의 恨으로 삼고 있다.

## (라) 方向維持의 問題

革命遂行過程에서 決定的 時機를 造成, 選択, 利用하여 適時에 攻擊으로 轉換하게 하는 境遇에는 「速度調整問題」가 戰略的 指導課題로 提起되나 事態가 不利하여 後退하게 되는 境遇에는 「方向維持問題」(戰略目標 堅持)가 戰略的 指導課題로 提起된다. <sup>36)</sup> 즉 退却이나 協商은 「退却」 또는 「協商」 그 自体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將次 새로운 攻擊을 위한 暫定的인 退却이나 協商임을 革命的 前衛로 하여금 銘心케 하는 것이다.

이같은 戰術의 戰略的目標 指向問題는 비단 後退에 있어서 뿐이 아니고 어

註 35) 金日成, 前掲 秘密敎示에서

36) 金日成 저작선집, 4 권, 1968, p.392.

면 形態의 戰術下에서도 強調되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戰略的으로 기여하지 않는 戰術의 成果는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것이 共產主義戰略·戰術의 原理이다. 다만 戰略的 目標을 忘却하기 쉬운 時期가 後退를 強要 당하는 干潮期이므로 이 時期에 특히 方向維持問題가 強調되는 것이다.

北韓共產集團이 6·25 動亂中 危急한 時期에 休戰을 提起하여 生存을 維持하고 나서 즉시 戰後復舊에 임하였고 이어서 軍備擴張에 狂奔했던 것은 바로 戰略目標을 指向하고 있다는 證左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戰術을 運用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戰略目標 達成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戰略的 指導의 任務가 되는 것이다.

#### 4 . 對 南 戰 術

가. 對南革命戰術의 實態

##### (1) 戰術段階와 任務

北韓共產集團의 對南革命戰術은 南韓을 赤化함에 있어서 具體的 狀況이 展開되는 데 따라서 수행되는 바의 比較的 짧은 기간에 適用되는 鬪爭, 組織形態 및 標語의 交替 및 配合技法을 의미한다. 즉 滿潮期에는 攻擊을 취하고 干潮期에는 後退하면서 總體的으로 戰略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展開해 나가는 具體的인 戰鬪技術이다.

따라서 하나의 戰略段階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戰術段階가 있을 수 있으므로 戰術的 段階가 변하였다고 하여 戰略的 段階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滿潮期에는 戰略的 目標인 「駐韓美軍의 撤収」와 「反共政權의 打倒」를 위해

서 有利한 時期이므로 攻勢的 任務가 割當되며 干潮期에는 不利한 時期이므로 後退 및 守勢的 任務가 割當될 뿐이다.

요컨대 戰術的 段階나 任務란 獨自的으로 策定되는 것이 아니라 戰略的 目標을 수행하기 위한 節次 및 手段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戰術的 後退가 결코 戰略的 後退를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事實上 共產主義的 見地에서는 戰略的 後退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外見上 後退로 보이는 것은 모두 戰術的 後退인 바, 그 代表的 實例가 6·25 動亂時에 제기한 休戰提議라 할 것이다.

## (2) 戰術的 指導課題

戰術的 指導란 바로 戰術任務의 達成을 위해서 鬭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適時適切하게 交替 및 配合하는 同時에 該當時點에 있어서의 「核心的 고리」를 포착하며 그것을 제때에 끌어 당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戰術的 指導는 戰略的 指導의 한 部分이며 戰略的 指導의 統制下에 遂行되는 現地에서의 具體的 統制이므로 現地幹部들의 責任所管에 속한다.

金日成은 「조성된 情勢를 科學的으로 分析, 判斷하고 革命發展의 要求와 群衆의 意識水準을 잘 察작하여 그에 알맞는 鬭爭口號를 내세우고 鬭爭形態와 鬭爭方法을 옳게 選擇하며…… 內部矛盾과 弱점들을 비롯한 온갖 可能性을 능숙히 利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7)</sup> 金日成이 南韓의 具體的 情勢를 正確히 判斷하고 거기에 알맞는 鬭爭形態와 組織形態 및 標語(SLOGAN)를 適時適切하게 決定할 수 있으며 南韓社會內의 矛盾과 弱점을 능

註 37)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72, p.487.

속하게 利用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하는 現地黨을 必要로 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現地에서 活動하는 黨이 主·客觀的 情勢를 精確히 판단하여 狀況에 알맞는 鬪爭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戰術的 지도과제이다. 38) 이같은 관점에서 北韓共產集團이 어떻게 對南革命의 戰術的 指導를 倂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鬪爭形態의 交替·配合

滿潮期에는 攻擊을 취하며 干潮期에는 後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鬪爭形態 交替原理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干潮期도 아니며 그렇다 하여 完全한 滿潮期도 아닌 現在와 같은 狀況에서는 各種鬪爭形態를 配合해 나가는 것이 戰術的 指導의 課題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群衆의 思想的 準備가 不足한 상태에서는 大規模의 鬪爭이나 高度의 政治鬪爭을 선택하더라도 群衆이 따라 오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群衆의 革命的 氣勢가 높다 하더라도 彼我間의 力量關係를 무시한다면 成功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革命의 主·客觀的 情勢가 무르익었는데도 不拘하고 소극적인 鬪爭形態를 취하는 것은 모처럼의 成熟된 기회를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모든 鬪爭形態가 革命의 主·客觀的 情勢와 群衆의 意識水準 및 彼我間의 力量關係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見解이다. 39)

註 38)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91.

39)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p.149.

## 1) 政治鬭爭과 經濟鬭爭의 配合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政權奪取를 위한 大規模罷業, 示威, 暴動, 武裝鬭爭 등이다. 그러나 現在의 狀況에서는 南韓의 勞動者들이 아직 政治的 覺醒面에서 不足하므로 賃金引上, 勞動時間의 短縮, 勞動條件의 改善 등을 요구하는 經濟鬭爭으로써 革命的 意識化 工作을 先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鬭爭이 政治鬭爭과 적절히 配合되지 못하면 經濟至上主義, 機會主義로 빠져 經濟鬭爭 그 自体의 目的도 達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定한 經濟鬭爭이 效果的으로 進행되는 土臺 위에서 반드시 政治鬭爭이 配合되어야만 革命에 成功할 수 있다는 態度이다.<sup>40)</sup>

## 2) 合法·半合法 및 非合法鬭爭의 配合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合法的으로 鬭爭할 수 있는 條件이 극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半合法 및 非合法鬭爭이 不可避하며 또한 切實히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合法鬭爭」이란 經濟鬭爭과 같이 法律이 許容하는 범위 내에서 實施하는 것이고 「非合法鬭爭」이란 政治鬭爭과 같이 法律에 저촉되는 本格的인 革命鬭爭을 뜻하며 「半合法鬭爭」이란 基本的으로는 非合法鬭爭에 속하면서 法網의 虛點을 利用하여 전개하는 方式의 學園 및 勞動者데모 등을 뜻하며 또한 間諜이 偽裝身分 획득후 鬭爭하는 方式도 이에 包含된다.

非合法鬭爭은 広範한 大衆을 끌어 들일 수 없는 短點이 있고 그렇다고 합

註 40) 上掲書, p.150.

法鬭爭만 전개하는 것은 党的 指導的 役割을 높일 수 없으며 심지어는 合法鬭爭까지도 成功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合法·半合法 및 非合法鬭爭을 적절히 配合함으로써만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革命力量을 育成, 強化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見解이다. 41)

### 3)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의 配合

暴力鬭爭이란 테러, 파괴, 武裝鬭爭·등인 바, 말하자면 最高의 非合法的 政治鬭爭을 뜻하는 別稱이며 非暴力鬭爭은 暴力 以外の 온갖 方法으로 전개하는 鬭爭으로서 合法的 經濟鬭爭 등을 가리키는 別稱인 것이다.

政權奪取를 위해서 「決定的 時機」에 暴力鬭爭을 基本手段으로 하면서 여기에 政治 및 經濟鬭爭, 小規模 및 大規模鬭爭을 同時에 전개하면 反革命的 暴力을 分散, 弱화시켜 革命을 成功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各種鬭爭을 結合시키는데 無關心하고 非合法的, 政治的 暴力鬭爭에 치우치면 左傾英雄主義的 誤謬가 되며 그 反對의 경우는 右傾投降主義의 誤謬가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42)

#### (나) 組織形態의 交替·配合

上述한 바와 같은 鬭爭形態의 交替 및 配合問題는 必然的으로 組織形態의 交替 및 配合를 수반하게 된다. 滿潮期에 있어서는 党이 地上으로 나타나며 革命的 罷業委員會, 農民委員會 등을 組織하게 되나, 干潮期에는 党이 地下에 潛入하며 合法的인 文化·啓蒙團體, 또는 既存의 勞動組合 및

註 41) 上揭書, pp.151 ~ 152.

42) 上揭書, p.152

協同組合 등에 浸透하여 工作하게 된다.

그러나 干潮期도 아니며 그렇다 하여 滿潮期도 아닌 現時點에 있어서는 合法 및 非合法的 組織形態를 配合하여 工作하는 것이 그들의 工作原理이다. 이와 같은 配合에 있어서 그들이 重視하는 것은 非合法的 組織이나 大衆을 革命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合法的 組織을 통한 工作이 有用하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情勢가 不利할수록 合法的 組織의 利用度를 높이며 情勢가 有利해 질수록 非合法的 組織의 利用度를 擴大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利用 가능한 組織形態를 주어진 情勢에 알맞게끔 最大로 活用하면서 對南工作을 展開해 나가겠다는 것이 北韓共產集團의 속셈인 것이다.

#### (다) 鬭爭標語의 交替·配合

滿潮期에는 革命的이며 好戰的인 標語를 제시하며 干潮期에는 妥協的이며 平和的인 標語를 내걸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各種鬭爭 및 組織形態를 配合하는 時期에는 이에 相應하는 標語의 配合이 要求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標語의 配合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원칙은 戰略的 및 戰術的 標語의 配合, 政治的 및 經濟的 標語의 配合, 그리고 民族的 및 階級的 標語를 相互 配合하는 것이다.<sup>43)</sup> 그들이 이와 같이 各種標語를 配合하는 理由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戰術的 標語는 戰術的 當面課題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그같은 鬭

註 43) 上揭書, pp.147 ~ 148.

爭이 方向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戰略的 標語로써 「駐韓美軍의 撤収」와 「反共政權의 打倒」가 鬪爭의 基本方向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觀點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經濟鬪爭과 政治鬪爭을 서로 配合하는 데 따라 經濟的 및 政治的 標語의 配合이 要求되며, 또한 反美思想을 鼓吹하기 위해서는 民族의 標語가 要求되며 勞動者·農民의 革命意志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階級的 標語가 要求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核心的 고리」의 捕捉·處理

「核心的 고리」란 該當時점에 있어서 戰略的 成果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戰術的 問題, 즉 그것만 適時에 끌어당기면 順次的으로 모든 問題가 自動적으로 解決되는 戰術的 指導課題를 뜻한다. 44) 이와 같은 「核心的 고리」를 찾아 낼 줄 알고 그것을 適時適切하게 끌어 당겨 戰略的 成功에 기여하는 것이 革命家로서 지녀야 할 基本要件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駐韓美軍의 撤収와 反共政權의 打倒를 위해서 그때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問題解決의 실마리가 되는가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核心的 고리」의 發見과 그 適時適切한 處理問題에 대한 先例는 러시아革命 直後 戰時共產主義下에서 破壞된 産業의 復興을 위하여 NEP 政策을 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NEP 政策은 戰術的으로는 一時 後退하는 것이었으나 45) 戰略的으로는 將次 보다 큰 前進를 보장하기 위한 措置였다. 말하자면 戰略的 成功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戰略的 指導에 따라 該當時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註 44) 北韓에서는 「중심고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45) 個人經營 및 自由商業을 許容하였기 때문이다.



으로 조치해야 할 戰術的 指導課題가 바로 「核心的 고리」의 捕捉 및 그 措置인 것이다.

####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北韓共產集團은 解放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對南戰術을 바꾸어 왔는데 그러한 戰術들이 對南戰略에 從屬된 것임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現在까지 취해 온 對南戰術의 行態를 戰術段階와 目標 및 戰術的 指導面에서 具體的으로 分析해 봄으로써 그들의 行動原理를 再確認하기로 한다. 46)

##### (1) 8.15 以後 — 6.25 南侵

이 期間은 自體力量을 備蓄하고 南韓의 力量을 弱화시켜 南侵赤化하는데 필요한 「決定的 時期」를 造成하는 防禦 및 迂回攻擊段階였다.

즉 民主基地路線에 의거 北韓에서 共產主義式 政治·經濟的 諸改革을 斷行하고 軍事力을 育成하는 한편, 南韓 各地에서 武装遊擊戰과 軍內叛亂을 일으키게 하면서도 영동하게 「南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를 提案 및 開催하는 術策을 弄하였다.

이때의 戰術的 指導課題는 防禦 및 迂廻攻擊任務를 成功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合法 및 非合法鬭爭, 經濟 및 政治鬭爭 등을 配合해 나아가 거기에 알맞는 組織形態와 標語를 취하면서 南侵 与件을 造成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期間에 있어서 그들이 戰術的인 「核心的 고리」로 삼은 것은 駐韓美軍을 撤收하도록 工作하는 것이었다.

駐韓美軍의 撤收가 實現되기만 하면 그간에 準備한 壓倒的인 武力으로써 南 韓征服은 自動的으로 達成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打算에

註 46) 表 3, 「對南戰術의 原理的 分析」參照.

의하여 소련과 共謀하여 1948年 12月 蘇聯軍이 先制撤收하였고 「外國軍 撤收」를 강조하는 平和攻勢로써 그 다음 해인 1949年 6月에 드디어 美軍의 南韓 撤收를 實現시킨 것이다.

### (2) 6.25 南侵 — 休戰提議

이 期間은 「決定的 時機」를 造成, 捕捉하여 本格的인 正面攻擊을 斷行한 段階였다. 즉 駐韓美軍이 撤收하고 1950年 1月初에 애치슨 美國務長官이 韓國을 極東防衛線에서 除外시켰으며 더우기 韓國 内部에서 政治的 不安狀況이 反復되는 데 함입어 南侵을 斷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攻擊任務를 達成하기 위하여 南韓 各地에 南勞系 黨幹部를 派遣하여 各地區黨을 陽性化시켰으며 好戰的 標語를 내걸어 南韓住民들을 煽動하여 人民軍의 南侵을 支援하도록 工作하였다.

이에 따라 南韓 各地에 各種左翼團體가 組織되었고 소위 「反動分子」에 대한 處刑이 敢行되었다.

이때에 北韓共產集團이 全力을 다하여 成就하려고 했던 「核心的 고리」는 南韓 全域을 早速히 強占하는 것이었다. 즉 南韓 全域을 武力으로써 強占하기만 하면 나머지 赤化目的은 自動적으로 達成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 (3) 休戰提議 — 休戰成立

이 期間은 本格的인 攻擊이 強力한 反擊에 直面하자, 自體의 生存을 維持하기 위하여 後退하는 段階였다. 즉 1950年 9月 유엔軍의 仁川上陸作戰을 契機로 危機에 몰리자, 1951年 6月 소련의 UN代表 말리크를 통해 休戰協商을 提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은 妥協的인 協商을 내세우면서도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死力を 다하여 싸우는 兩面性を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南韓内の 와해된 地下黨을 行政區域과 關係없이 5個地區黨으로 改編, 再建하고,<sup>47)</sup> 心理戰을 強化하면서 5個地區黨 統制下에 遊擊戰을 敢行케 함으로써 韓國의 戰鬪力을 弱화시켜 前方에서 有利한 戰勢를 維持하는 가운데 休戰을 有利하게 매듭지우려고 꾀하였다.

이때에 그들이 「核心的 고리」로 삼은 것은 前方과 南韓内の 後方에서 전개하는 遊擊戰을 結合하여 보다 有利한 條件과 보다 名譽로운 地位를 차지하면서 休戰을 成立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休戰을 하지 않고서는 生存할 方途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休戰을 하기는 하되, 將次的 再南侵을 위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確保하는 同時에 조금이라도 그 地位를 格上시켜 對內外的으로 體面을 유지함으로써 「侵略者」의 汚名을 씻고 現實的인 國家로서 認定받기 위해 努力하였던 것이다.

#### (4) 休戰成立 - 4.19 事態

이 期間은 自體力量을 備蓄하고 瓦解된 隊列을 再整備하는 防禦의 段階였다. 즉 南侵 失敗의 責任을 南勞黨系에 전가시켜 政敵을 숙청하는 한편, 北韓革命基地路線을 再確認하고 戰後復旧 3個年計劃 遂行에 着手하였으며, 이어서 1957年부터는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發展시키는 데 力點을 두는 5個年計劃 實踐에 着手하였다.

한편 1955年 5月 日本에 있는 「在日本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로 改編하여 南韓赤化의 間接基地를 만들어 냈고 그들

註 47) 北韓全書(下卷), 極東問題研究所, 1974, p.71 參照.

을 내세워 在日僑胞 北送工作을 推進한 結果, 1959年 11月부터 在日僑胞의 北送이 開始됨으로써 北韓의 不足한 勞動力을 補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정도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이 이루어지자, 1958年부터는 「平和統一」을 내세워 對南宣傳을 強化하기 시작하였고 마치 南韓이 好戰的이며 저들이 平和指向的인 것처럼 위장하는 平和攻勢를 퍼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動向은 守勢的 防禦에서 앞으로 攻勢的 防禦로 전환하기 위한 事前布石이었으며 6.25 動亂이 南侵아닌 北侵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事實을 歪曲함으로써 韓·美兩國을 侵略者로 造作하려는 賊反荷杖格인 戰術이기도 하였다. 이때에 그들이 「核心的 高리」로 삼은 것은 앞으로의 再南侵을 위하여 北韓 自體의 政治·經濟·軍事力을 復舊하는 것이었음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 (5) 4.19 以後 — 5.16 事態

이 期間은 自體力量의 備蓄이 未備하여 南韓에서 造成된 革命 또는 南侵에 有利한 情勢를 바라보면서도 本格的인 革命이나 南侵을 斷行하지 못하고 猛烈한 平和攻勢를 취했던 攻勢的 防禦의 段階였다. 즉 4.19 事態가 마치 北韓共產集團을 支持하여 일어난 人民蜂起인 것처럼 對內外的으로 歪曲宣傳하면서 南北協商만이 그 唯一한 解決方法이라고 宣傳, 煽動하는 한편, 南韓의 混亂을 더욱 加重시키기 위하여 南派間諜을 大量浸透시켰다.

그리고 4.19가 일어난 1960年, 8.15 解放 15周年記念大會席上에서 金日成은 「聯邦制統一案」을 提議하여 平和攻勢를 취하면서 南韓의 政局混亂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또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조직하였고 朝鮮民主青年同盟(1964年 5月, 社勞靑으로 改稱)內에 包含되어 있는 學生組織을 일부러 「朝鮮學生委員會」로 탈바꿈시켜 南韓學生들의 組織과 대등하게 꾸며 南韓學生들 속에 浸透시키려고 企圖하면서 煽動을 強化하였다.

더우기 當時 雨後竹荀과 같이 나타난 南韓의 革新系列을 支援하는 한편 地下黨의 組織을 서둘러 그것을 合法化시키려는 工作도 아울러 強化하면서 平和統一論을 高唱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自體 準備의 不足으로 本格的인 攻擊行動은 취할 수 없는 形便이었기 때문에 南韓內에 容共勢力을 扶植하는 것을 「核心的 高리」로 삼고 間諜의 大量投入과 平和統一論을 요란하게 宣傳하는 데 狂奔하였던 것이다.

#### (6) 5.16 以後 — 對話開始

이 期間은 5.16 事態로 南韓에서 反共態勢가 強化되자, 4大軍事路線(1962.12)을 표방하였고 그 結果 強化된 軍事力을 背景으로하여 1966年 부터는 積極적인 暴力的 對南工作으로 轉換하는 등 攻擊을 위하여 彼我力量을 試驗하는 攻擊準備段階 즉, 完全한 攻勢의防禦의 戰術段階였다. 그들은 1968年 1月 21日, 31名의 武裝共匪를 南派시켜 靑瓦台 奇襲을 試圖하였고 이어서 同年 10月에는 울진·삼척地域에 120名에 달하는 大規模 武裝共匪를 浸透시켜 南侵의 可能性을 試驗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力量의 「試驗」은 끝내 失敗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는 데 고무되어 暴力에 의한 南韓赤化를 本格的으로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人民武力部 偵察局 傘下의 124軍部隊, 283軍部隊, 17 偵察旅團 등의 特殊기릴라部隊를 改編하여 特殊8軍團을 新設, 8~10萬名의

特攻兵力을 確保하였다.

이와 같이 南侵을 위해서 狂奔해 보았으나 뜻대로 事態가 展開되지 않자, 金日成은 第5次 党大會(1970.11)에서 南韓의 自體革命力量을 強化시키고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半合法 및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큰 規模의 鬭爭과 작은 規模의 鬭爭등을 結合하여 革命運動을 展開해 나가도록 強調하였다. 이때의 「核心的 高리」는 「決定的 時機」를 造成하여 非正規戰方式으로 소위 「人民戰爭」을 造作, 擴大하려던 것이었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 (7) 對話開始 — 對話中斷

이 期間은 武力行使가 不可能하였으므로 迂迴的 方式의 南北對話를 통하여 赤化革命의 与件을 造成하고자 試圖한 攻擊準備段階 즉, 攻勢의 防禦의 戰術段階였다. 즉 7.4 南北共同聲明 以後 共產主義戰略·戰術에 어두운 南韓國民의 「統一」에 대한 들뜬 氣運에 便乘하여 容共雰圍氣를 造成하며 對共警覺心을 弛緩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合法的 方法으로 對南宣伝 및 煽動을 強化하면서 드디어는 對話의 持續 및 擴大條件으로서 共產主義者들의 南韓內에서의 合法的인 活動을 要求하며 또 그것을 保障받으려고 劃策하였다. 그와 같은 目的으로 내건 것이 바로 反共法, 國家保安法의 철폐, 容共人士의 釈放, 統一革命黨을 包含한 各政黨 및 社會團體의 對話參與에 관한 要求였다.

이때에 그들이 「核心的 高리」로 삼은 것은 共產主義活動의 合法化로써 赤化革命의 与件을 造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意圖가 達成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對話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엉뚱한 問題를 가지고 샹트집

을 잡으면서 1973年 8月 28日 一方的인 對話中斷을 聲明하기에 이른 것이다.

(8) 對話中斷 — 現在까지

이 期間은 對話에 의한 赤化革命의 与件造成을 断念하고 南韓 自體内에서의 反美·反政府氣運을 造成하여 「駐韓美軍의 撤收」와 「反共政權의 打倒」를 위한 소위 「人民革命」의 雰囲氣를 造成하는 데 力點을 두는 攻撃準備段階 즉, 攻勢的防禦의 戰術段階라 할 수 있다. 즉 카터大統領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公約하였을 當時에는 「先 駐韓美軍 撤收, 後 反共政權 打倒」에 力量을 集中하였고 레이건大統領이 登場하여 駐韓美軍의 撤收計劃을 白紙化하자, 그 優先順位를 바꾸어 「先 反共政權打倒, 後 駐韓美軍 撤收」를 거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南韓의 對話 및 統一方案提議를 이러저러한 口實로써, 忌避 및 反對하면서 「大民族會議」나 「全民族大會」나 「政治協商會議」나 하며 「高麗聯邦」案을 固執함으로써 韓國의 國論分裂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南北合作統一論」의 底意는 對外的으로 美軍駐屯의 不當性을 浮刻시켜 그 撤收를 促進시키며 韓·美間의 紐帶를 瓦解시켜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化시키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韓國의 國論을 分裂시켜 소위 「人民政權」의 出現을 促進시키거나 또는 南侵을 위한 与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人民政權」이란 기본적으로 共產主義者들이 主導權을 장악한 容共的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들의 地下黨이 主導하는 政權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라는 것을 構成함에 있어서 雙方軍隊의 10~15萬名線으로의 相互減縮 및

民族聯合軍制의 施行을 提唱하고 있는데<sup>48)</sup> 이는 곧 聯邦 實現後 軍內에 黨 細胞網을 浸透시켜 一定한 段階에 이르러 쿠데타를 企圖하겠다는 意圖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思考方式은 「正, 反, 合」의 統一이 아닌 滅旧生新的 「밀어내기式 統一」을 合法則的인 것으로 信奉하는 것인 바<sup>49)</sup> 만약 金日成이 眞正으로 南北韓의 體制를 共存케 하는 聯邦을 構成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 反面에 그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전지하면서 合作統一論을 提唱하는 것은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에 따른 戰略的 指導로써 南韓內에서 革命力量을 動員, 配置하기 위한 策動, 즉 統一戰線戰術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金日成이 自身の 「主體思想」을 두고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革命」을 위해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sup>50)</sup> 따라서 그들이 現在 全力을 다하여 붙잡으며 끌어당기려는 「核心的 고리」는 南韓의 反共政權을 打倒하기 위하여 國論分裂 및 反政府的 騷動을 일으키도록 工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各種鬭爭을 配合하여 工作하며 南韓內에서 利用할 수 있는 弱點, 특히 各階層間의 갈등을 深化시켜 反政府的 氣運을 高潮시키는데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이다. 各種鬭爭形態를 配合함에 있어서 그들이 宗教

註 48) 金日成, 第6次 黨大會(1980.10) 演說에서.

49) 表 5, 「唯物辨證法的 統一方式」 參照.

50) 金日成의 「主體思想」 또는 「自主路線」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自身の 行爲를 合理化시키려는 것이지 결코 獨創的인 理論的 「틀」을 갖춘 「主義」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團體 및 青年인텔리層에 파고들어 非合法鬭爭의 配合度を 높이고 있다는 事實은 특히 注目할 만하다. 51)

以上에서 北韓共產集團이 解放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戰術的 行態를 原理的으로 分析해 보았다. 그들은 一旦 「決定的 時機」를 造成하고 나면 本格的인 攻擊을 敢行하고 그것이 強力한 反擊에 直面하면 後退하여 再攻擊을 위하여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에 임하는 것이다.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守勢的인 防禦에서 攻勢的인 防禦態勢로 轉換하여 또다시 「決定的 時機」를 造成하려고 工作하게 된다. 이러한 期間中 그들은 各種鬭爭, 組織形態 및 標語를 配合해 가며 利用可能한 矛盾과 弱點에 파고들어 우리 内部的 分裂을 꾀하는 것이다.

事情이 如意치 않을 때는 合法的 經濟 및 小規模鬭爭을 爲主로 하나 狀況이 許容하는 대로 非合法的 政治 및 大規模鬭爭을 強化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戰術的 指導原理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行動體系는 休息이 없는 繼續的 鬭爭으로 一貫되어 있다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와 같은 「決定的 時機」의 造成을 위해서 主力軍으로 간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將次 除去對象 또는 改造對象으로 策定하고 있는 宗教人과 青年인텔리層의 現實批判意識을 巧妙히 利用하여 革命的 起爆劑役割을 수행케 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는 바, 그같은 策略이야말로 社會主義革命의 前段階革命인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의 特徵, 즉 그 戰略的 指導에 따른 豫備軍(補助力量)의 利用手法임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一旦 人民民主主義革命이 成就되고 나면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함에 있어서 그들 宗教人 및

註 51)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113 參照.

인텔리는 마땅히 除去 乃至 改造對象으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段階이기 때문에 將次 社會主義革命期에 속칭하도록 策定된 階層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民族의 「解放」, 「獨立」 및 「統一」과 같은 偽裝된 口號만을 高唱하여 浮動階層을 煽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該當革命段階의 戰略的 指導에 맞추어 戰術的 指導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왓슨教授<sup>52)</sup>가 그들의 戰略·戰術을 “陰謀의 科學이며 破壞와 反抗의 技術”이라고 한 것은 매우 適切한 表現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戰術이 狀況에 따라서 隨時로 變貌하면서도 該當革命段階의 戰略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理致를 알 수 있다.<sup>53)</sup> 바로 이같은 理致 때문에 戰術의 戰略에 대한 從屬性이 維持되며, 또한 戰略的 目標을 指向하며 奉仕하는 方向維持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5. 結 言

### 가. 對南策動的 展望

北韓共產集團은 無原則하게 行動하는 것이 아니라 唯物史觀的 思考 밑에 戰略·戰術的으로 對南革命을 위해서 策動하고 있다. 그들은 6.25南侵이 挫折되었다고 해서 南韓赤化의 企圖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年間

註52) Hugh Seton Watson은 런던大學 教授로서 父子 2代를 이어 온 슬라브·東歐問題 專門家이며 그의 著書로서는 「레닌에서 흐루쉬초프까지」(1960), 「新帝國主義」(1961) 등이 있다.

53) 表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參照.

對南革命을 成就하기 위해 全力投球해 왔으며 앞으로도 繼續하여 그와 같은 策動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北韓共產集團의 向後策動方向은 그들의 根本的 思考 및 行動方式과 그들이 지금까지 취해 온 行態들을 原理적으로 分析해 볼 때, 明若觀火한 것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첫째, 그들의 戰略은 소위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이 達成될 때까지 變함없이 持續될 것이며, 둘째, 그들의 戰術은 對內外的情勢에 따라 戰術的 指導, 즉 鬭爭形態, 組織形態 및 標語만을 달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의 向後動向에 있어서는 그 戰術의 變化가 있을 뿐, 결코 戰略的 本質에 있어서는 變化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問題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形態의 標語를 내걸고 어떠한 組織을 취하면서 어떤 方式으로 鬭爭을 試圖할 것인가에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어야 하는 것이다. 露骨的인 武力南侵 또는 南韓內에서의 革命 誘發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力量을 「計算」 및 「試驗」하면서 소위 「決定的 時機」를 造成, 捕捉 및 利用하려 할 것인가에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戰略의 變化問題에 대해서는 더 以上 關心을 돌릴 必要조차 없는 것이다.

그들이 韓國의 合理的이며 具體的인 一連의 統一方案을 「分裂方案」, 「分裂主義」云云하며 反對로 一貫하고 있는 데서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의 廣場에 나설 意思가 없음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釜山 美文化院 放火事件과 關聯해서 對南煽動에 熱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態度上의 變化徵兆가 없으며 金日成이 自身の 70回生日을 하루 앞둔 1982年 4月 14日 演說에서도 對南關係 正常化의 뜻이 없음을 分明히 한 바 있다.

이러한 一連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앞으로도 當分間은 「高麗聯邦」案을 固執하면서 對南地下黨 構築에 力點을 두고 各種鬭爭의 配合을 堅持해 나갈 것이 確實하다. 따라서 우리 自體 內部에 虛點 및 弱點이 드러나는 대로 本格的 南侵 또는 南韓 自體內에서의 革命 誘發을 위한 「決定的 時機」 造成에 繼續的인 策動을 傾注해 나갈 것이 豫想된다.

#### 나. 우리의 安保對策

北韓의 金日成共產集團은 우리가 그들을 말만 가지고 아무리 熱을 내어 反對한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內部가 混亂해지고 또한 脆弱한 곳이 드러나기만 하면 挑戰해 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社會內部에 現存하는 몇가지 過渡期的 不條理를 들어 猛烈하게 攻擊함으로써 感傷的 知性人들의 同調를 얻어 內部的 分裂을 造成하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을 看過하고 分別없이 內部的 分裂을 일으키게 된다면 바로 그들에게 絶好의 打撃機緣을 만들어 주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策略的 本性을 明澈하게 인식하여 올바른 對共觀을 가짐으로써, 가령 政府施策에 대한 是正을 促求할 경우에도 그 結果가 「北韓共產集團」이라는 國民的 公敵에게 利用당하는 일만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 方法面에서 選別, 自制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根本理致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矯角殺牛의 愚」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對共觀의 確立과 함께 우리가 重視해야 할 것은 그들의 挑戰을 能率的으로 저지, 극복하기 위한 對共戰略·戰術을 開發하는 問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戰

略・戰術 그 自體에 대한 理解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理致인 것이다.

北韓共產集團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비판이 眞요함은 물론이나 그 자체만으로써는 그것을 극복하기에 아직 未洽하다는 점에 着眼해야 할 것이다. 온갖 욕설으로써 우리 社會의 不條理한 면을 들추어 대고 갖은 甘言利說으로써 未來의 理想社會 實現을 약속하며 大衆 속을 파고드는 그들의 기만성과 선동성을 규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問題가 아니겠으나 그들이 提示, 言及한 「不條理한 事實」이 우리 社會內에 多少나마 實在한다면 依然히 우리 安保上에 問題點이 內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그같은 不條理를 能動的으로 除去하여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方法이, 결코 共產主義가 아닌 다른 方式이어야 한다는 事實을 實證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方式이 곧 우리 社會의 脆弱點만 노리는 그들 共產黨을 無色케 하고 그들이 兇惡하면 兇惡할수록 저들의 추잡스러운 底意가 自動的으로 폭로되도록 할 수 있는 보다 高次元의 對應策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社會內에서 胚胎되기 쉬운 不條理를 예방하는 데 힘쓰는 한편 北韓을 능가하는 綜合的 國力을 着實히 育成함으로써 그들이 到底히 넘볼 수도 없고 헐뜯을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 完璧한 對共安保上의 方策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南侵이나 「南朝鮮革命」의 實現可能性이 全無하다고 그들 스스로가 自認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戰略的 指導上의 修正을 不可避한 것으로 깨닫게 될 때, 韓半島의 平和가 비로소 保障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라는 統一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平和를 바라거든 戰爭에 對備하라” 베제티우스(Vegetius)

“戰爭을 치룸에 있어 物質을 칼집이라 한다면 精神은 칼날이다”  
클라우제비츠(Closewitz)

“共產主義와의 鬪爭에서 이기는 길은 그들의 戰略·戰術을 逆用하는 것이  
最上策이다” 니이버(Niebuhr)

“共產主義와의 싸움은 3分物理, 7分心理, 3分軍事, 7分政治이다”  
(蔣介石)

以上の 警句는 우리의 對共安保鬪爭에 있어 어느 하나 빼어버릴 수 없는 教訓的 名言이라고 생각된다.

<表 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類 型	運 用	備 考
<p>부르조아民主革命戰略</p> <p>1. 中進國의 前段階革命戰略</p> <p>2. 私有制가 存統하는 勞農獨裁</p> <p>3. 社會主義革命戰略으로 移行</p>	<p>1. 目標: 封建遺制 清算</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sup>1)</sup></p> <p>    ○ 主力軍; 프롤레타리아트</p> <p>    ○ 豫備軍; 農民</p> <p>나. 速度維持(戰術交替時期)<sup>2)</sup></p> <p>다. 方向維持(後退時 包含)<sup>3)</sup></p>	<p>1) 同盟 및 孤立化對象을 策定하고 任務 附与</p> <p>2) 攻擊 및 後退時期決定, 交替統制</p> <p>3) 어떤 戰術下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戰略目標을 銘心하도록 統制</p>
<p>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新民主主義革命戰略)</p> <p>1. 後進國의 前段階革命戰略</p> <p>2. 私有制가 存統하는 聯合獨裁</p> <p>3. 社會主義革命戰略으로 移行</p>	<p>1. 目標: 外勢, 封建制 驅逐</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    ○ 主力軍; 勞農同盟軍<sup>1)</sup></p> <p>    ○ 豫備軍(I); 各界各層</p> <p>    ○ 豫備軍(II); 國際革命力量<sup>2)</sup></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1) 勞動者階級 領導下의 勞農同盟軍이다.</p> <p>2) 共產圈 및 非同盟圈의 反西方 勢力을 束한다.</p>
<p>社會主義革命戰略</p> <p>1. 中·後進國의 後段階革命戰略</p> <p>2. 先進國의 革命戰略</p> <p>3. 私有制를 否定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p> <p>4. 世界革命戰略으로 移行</p>	<p>1. 目標: 私有制 清算</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sup>1)</sup></p> <p>    ○ 主力軍; 프롤레타리아트</p> <p>    ○ 豫備軍(II); 貧農<sup>2)</sup></p> <p>    ○ 豫備軍(III); 隣接國프롤레타리아트</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1) 非共產主義勢力間의  갈등 및 '資本主義國家間의 戰爭을 「有利한 契機」 즉 間接豫備軍으로 삼는다.</p> <p>2) 富農은 打倒, 中農은 中立化(隔離)對象이 된다.</p>
<p>世界革命戰略</p> <p>1. 모든 國家의 最終段階革命戰略</p> <p>2. 一國社會主義革命後에 移行</p>	<p>1. 目標: 革命的 擴大, 輸出<sup>※</sup></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    ○ 主力軍; 國際프롤레타리아트</p> <p>    ○ 豫備軍; 半프롤레타리아트 및 民族解放運動</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 소련 中心의 世界革命戰略은 瓦解되었으나 모든 共產黨이 世界革命을 追求하는 目標만은 變함이 없다.</p>

※ 戰略段階는 革命段階와 一致하며 持續性이 있다.

<表 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類 型	運 用	備 考
攻擊型戰術 1. 平和的 蜂起 2. 武装暴力 蜂起 3. 게릴라戰 4. 人民戰爭	1. 任務: 戰略目標 直接攻擊※) 2. 指導: 가. 鬭爭形態; 非合法的鬭爭 나. 組織形態; 非合法的組織 다. 鬭爭標語; 好戰的標語 라. 核心的고리; 政權奪取	※) 戰略目標達成에 直接 寄与하는 攻擊 任務
後退型戰術 1. 退却 2. 協商 ※ 協상은 一定地域 掌握時의 後退	1. 任務: 戰略上 後退※) 2. 指導: 가. 鬭爭形態; 合法的鬭爭 나. 組織形態; 合法的組織 다. 鬭爭標語; 平和的標語 라. 核心的고리; 生存維持	※) 幹部救出 및 重要한 陣地( 既得權) 維持 任務
防禦型戰術 1. 平和共存 2. 中立化 3. 浸透 4. 暴露	1. 任務: 守勢 및 攻勢의 防禦 <sup>1)</sup> 2. 指導: 가. 鬭爭形態; 合法·非合法( 配合) <sup>2)</sup> 나. 組織形態; 合法·非合法( 配合) 다. 鬭爭標語; 平和·好戰( 配合) 라. 核心的고리; 決定的時機 捕捉	1) 隊列整備 및 力量備蓄 任務 2) 潮水가 昂揚함에 따라 非合法的 要素를 強化 한다.
迂迴型戰術 1. 統一戰線 2. 人民戰線 3. 人民民主戰線	1. 任務: 包圍 및 迂迴攻擊※) 2. 指導: 가. 鬭爭形態( 上同) 나. 組織形態( 上同) 다. 鬭爭標語( 上同) 라. 核心的고리( 上同)	※) 打倒對象을 孤立化, 決定的時機 造成 任務

※ 戰術段階는 潮水의 干滿과 一致하며 可變性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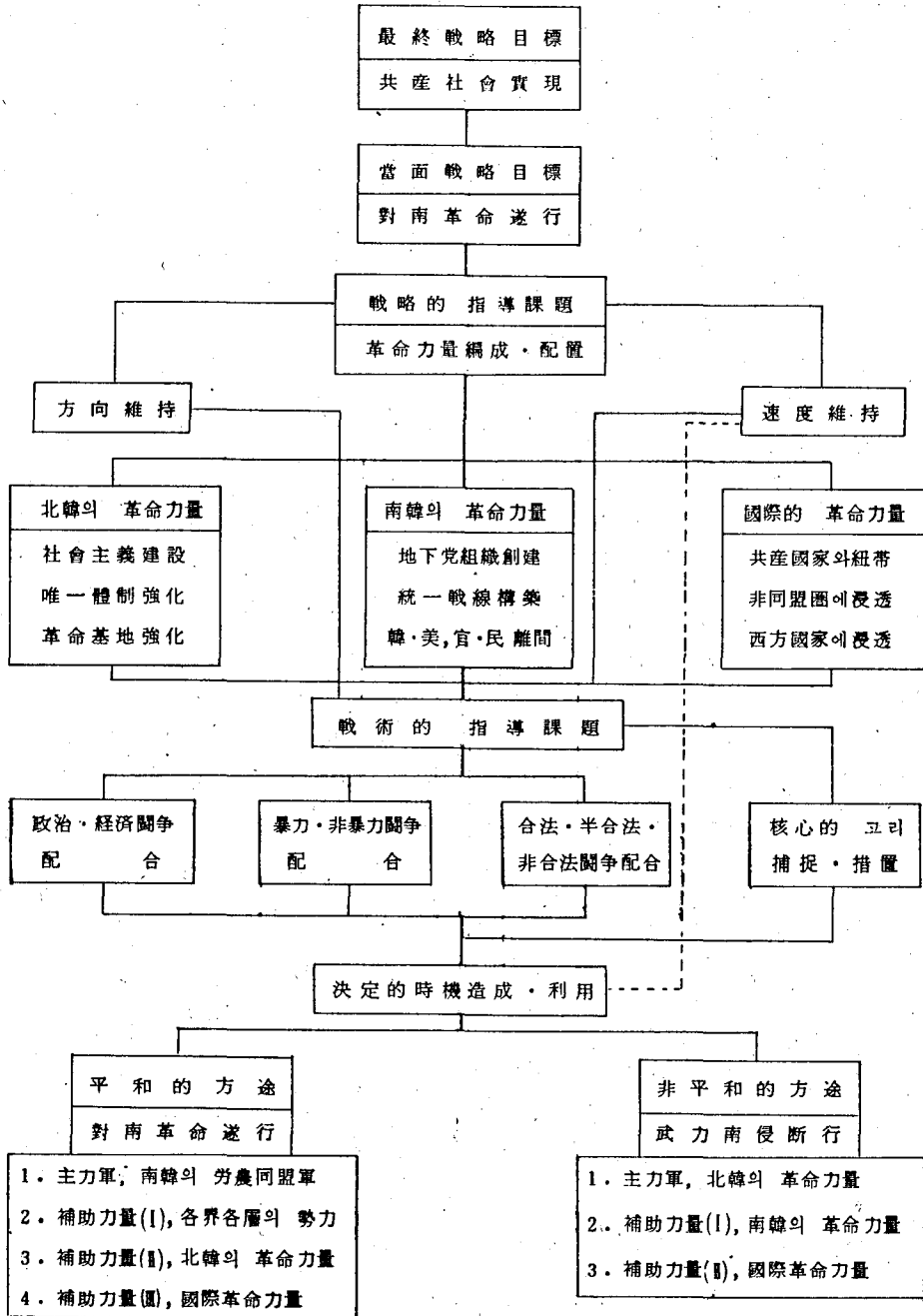
<表 3 >

對南戰術의 原理的 分析

段 階	運 用	備 考
8.15 以後 ~ 6.25 南侵	1. 任務: 防禦 및 迂迴攻擊 2. 指導: 가. 各種鬭爭, 組織形態 및 標語配合 나. 核心的 高리는 美軍撤收 實現※)	※) 美軍撤收實現에 成功하였음.
6.25 南侵 ~ 休戰提議	1. 任務: 正面攻擊 2. 指導: 가. 非合法 南侵 斷行 나. 核心的 高리는 南韓全域 独占※)	※) 南韓全域強占에 失敗하였음.
休戰提議 ~ 休戰成立	1. 任務: 戰略上 後退 2. 指導: 가. 休戰提議로 協商展開 나. 核心的 高리는 有利한 休戰成就※)	※) 休戰을 成立시켜 生存維持에 成功하였음.
休戰成立 ~ 4.19 事態	1. 任務: 守勢의 防禦 2. 指導: 가. 平和의 宣傳 強化 나. 核心的 高리는 戰後復旧事業※)	※) 戰後復旧事業을 一旦 成就하였음.
4.19 以後 ~ 5.16 事態	1. 任務: 攻勢의 防禦 2. 指導: 가. 南派間諜浸透, 地下黨 構築試圖 나. 核心的 高리는 地下黨 構築※)	※) 地下黨構築에 失敗하였음.
5.16 以後 ~ 對話開始	1. 任務: 攻擊準備, 力量試驗 2. 指導: 가. 非合法의 鬭爭, 武裝共匪南派 및 非正規戰 試圖 나. 核心的 高리는 決定的 時機 造成 및 捕捉※)	※) 決定的 時機造成 및 捕捉에 失敗하였음
對話開始 ~ 對話中斷	1. 任務: 迂迴攻擊 2. 指導: 가. 合法的 宣傳·煽動 強化 나. 核心的 高리는 地下黨 構築 및 合法化 實現※)	※) 地下黨 構築 및 合法化 實現에 失敗하였음.
對話中斷 ~ 現在까지	1. 任務: 攻擊準備 強化 2. 指導: 가. 各種鬭爭形態, 組織形態 및 標語配合 나. 核心的 高리는 國論分裂 및 反政府勢力 強化※)	※) 繼續되는 失敗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試圖中에 있음.

<表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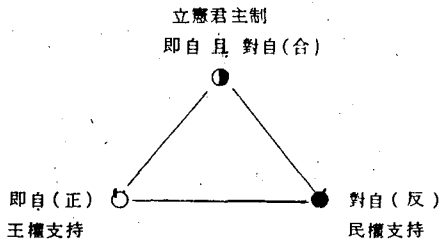


1. 唯物辯證法的 「統一」

가. 論理的 特徵

- (1) 相互妥協的 改良發展 (相補的發展)
- (2) 「正, 反, 合」的 綜合論理 (調和的論理)
- (3) 相補的 융차지기式 統一 (共存的 統一)

나. 圖式的 表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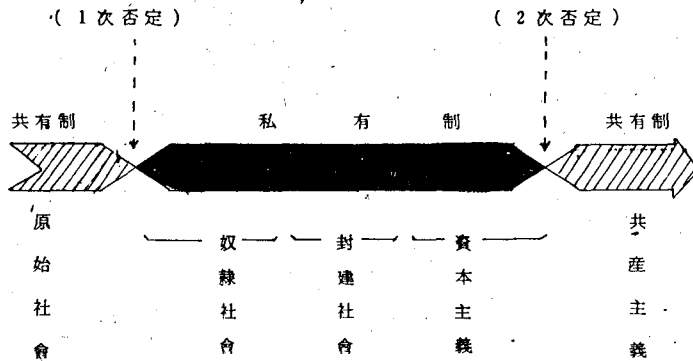
unification	共存可能
-------------	------

2. 唯物辯證法的 「統一」

가. 論理的 特徵

- (1) 滅旧生新的 革命發展 (낯은 것이 滅亡)
- (2) 唯一化, 一色化 論理 (낯은 것이 驅逐)
- (3) 相剋的 밀어내기式 統一 (낯은 것이 消滅)

나. 圖式的 表現



turn to one	共存可能
-------------	------





### Ⅲ. 韓半島의 周邊情勢

申 喆 均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80年代 國際情勢展望과 特徵 .....	125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	138
가. 概 觀 .....	138
나. 蘇聯의 極東軍事力膨脹政策의 積極化 .....	139
다. 美國·中共·日本의 3角對蘇聯合牽制網構築 問題와 韓半島政策 ...	145
3. 南北對峙狀況과 北韓의 軍事力增強 .....	170
4. 結 論 — 安保 및 統一에 미치는 影響 — .....	178
< 參 考 文 獻 > .....	182

## 1. 80年代 國際情勢展望과 特徵

60年代 이후 70年代에 걸쳐 國際社會를 흔히 多元化社會라 하나 80年代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國際政治權力構造의 主軸은 아직도 美國과 蘇聯이다.

오늘날의 國際樣相은 한마디로 強大國間的 「힘」의 對決을 바탕으로 하는 不安한 勢力均衡關係가 持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美國의 「힘」을 바탕으로 한 平和追求,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 이를 바탕으로 한 브레즈네프의 데탕트 追求政策 등 70年代의 國際政治潮流는 緊張緩和追求와 平和共存的 추세였다. 또한 東西間的 交流와 協力이 增大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79年末의 蘇聯軍 8만 5천명의 아프가니스탄 直接侵攻事態를 계기로 美國과 蘇聯關係는 크게 惡化되어 새로운 冷戰狀態로 들어갔다.

80年代는 蘇聯이 계속 세력팽창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레이건 美行政政府가 強力히 軍事的으로 對處하는 強硬姿勢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80年代는 美·蘇間的 軍備競爭으로 美·蘇對決은 더욱 尖銳化할 것이다.

80年代의 가장 危險地域은 ① 바르샤바(WTO)와 NATO가 대치되어 있는 東歐 및 유럽과 ② 中東地域 ③ 蘇聯 및 共產베트남 威脅下의 東南亞 ④ 그리고 極東에서는 韓半島地域이 될 것이다. ⑤ 또한 蘇聯이 이제 美國의 발등인 中南美에 蘇聯의 威脅이 침투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발트하임 前유엔 事務總長은 81年 9月 15日 유엔 總會 開幕演說에서 中東紛爭이 國際社會의 두통거리이며 世界平和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前美國務長官도 中東은 “東·西가 대립되어 있고 아랍內에도 경쟁과·온전과간의 갈등, 거기에다 이스라엘·아랍간의 3重構造의 對決場”

이라고 強調했다. (81.8.23 日本 「요미우리」 신문과의 記者會見) 또한 그는 美 CIA의 報告를 引用, 소련은 自給에너지의 不足으로 1983 ~ 85 年頃に 石油輸入國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 될 것이라고 診斷했다. 따라서 그는 이 時期를 위기로 봤다.

즉 만일 소련이 石油自給이 안되는 경우 남은 길은 中近東으로부터의 石油輸入인데 外貨事情으로 石油購入이 불가능할 경우 產油地帶를 직접 自國의 軍事力에 의해 支配下에 두려는 術策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볼 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장차 中東장악의 先決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소련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뚫는다면 世界石油의 60%를 공급하고 있는 페르샤灣 油田地帶는 소련위협하에 들어가게 된다. 페르샤灣 油田地帶와 호르머즈海峽이 소련위협하에 들어가게 되면 美國, 日本 그리고 西方諸國의 石油수송로가 完全봉쇄되어 궁극에는 資本主義國家의 存續에 危機가 도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西方資本主義國家의 立場에서는 中東이 死活的인 利益地域이다.

소련은 쿠바危機(62年)와 흐루시초프失脚(64年) 이후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60年代 후반부터 지난 18年間 끝없는 軍事力膨脹主義로 나갔다.

소련의 侵略類型을 대체로 보면 ① 間接侵略 ② 直接侵略 ③ 代理戰爭의 侵略 등 세 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間接侵略類型은 소련이 共產베트남을 支援하여 캄보디아를 侵略케 하고 나아가서 東南亞를 共產化하려는 侵略形態 등을 말한다.

直接侵略類型이란 蘇聯軍의 直接的인 아프가니스탄 侵攻類型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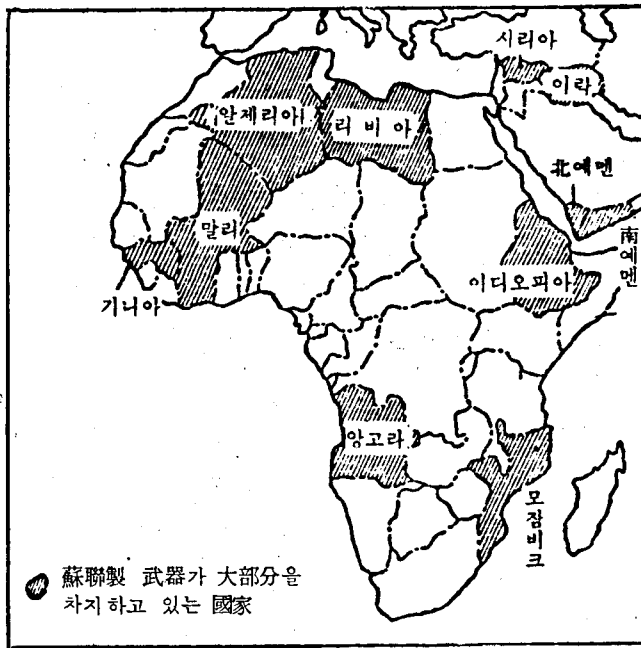
다음 代理戰爭의 侵略이란 소련이 주로 아프리카, 中南美, 中東地域 등



에 代理戰爭을 통해 侵略을 擴大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소련은 아프리카 中南美에서는 쿠바를 교두보로, 中東에서는 리비아를 代理國으로 하여 勢力을 펼치려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소련이 쿠바軍 5만 - 10만을 파견, 反政府게릴라를 支援함으로써 앙골라, 소말리아, 자이레, 이디오피아 등 무려 열 개의 나라가 소련의 영향권 속에 들어갔다.

<圖表1> 蘇聯의 아프리카 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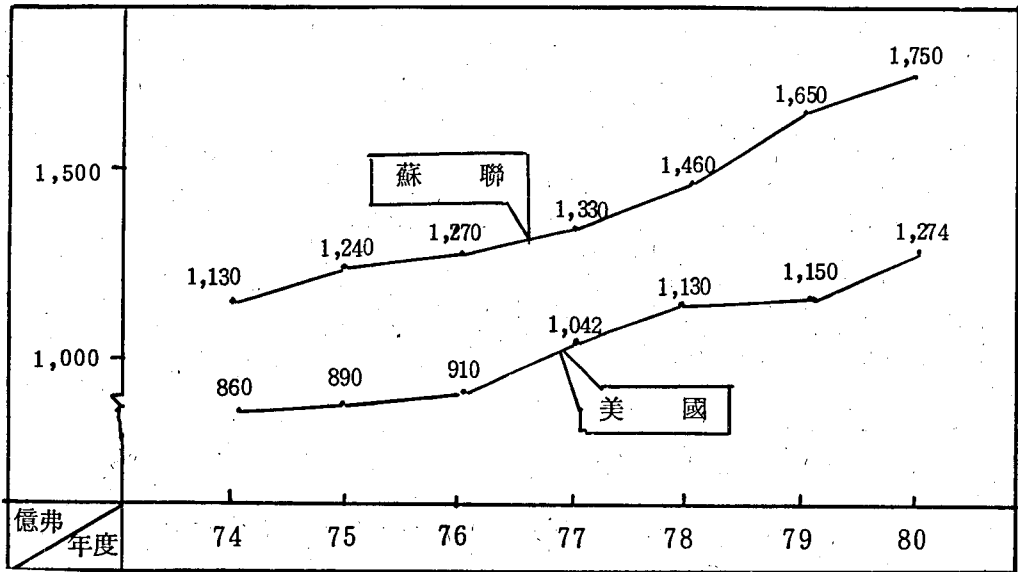
소련은 中南美에 대해서도 쿠바를 교두보로 니카라과,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카리브海 地域에 대한 새로운 勢力膨脹으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소련의 勢力膨脹은 지금 世界的 規模로 擴大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實에서 軍事的 劣勢로 몰리고 있는 美國과 소련의 軍事力關係를 檢討해 보도록 하자.

먼저 소련의 國防費를 보면 아래의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을 능가하고 있다.

<圖表 2> 蘇 聯 의 國 防 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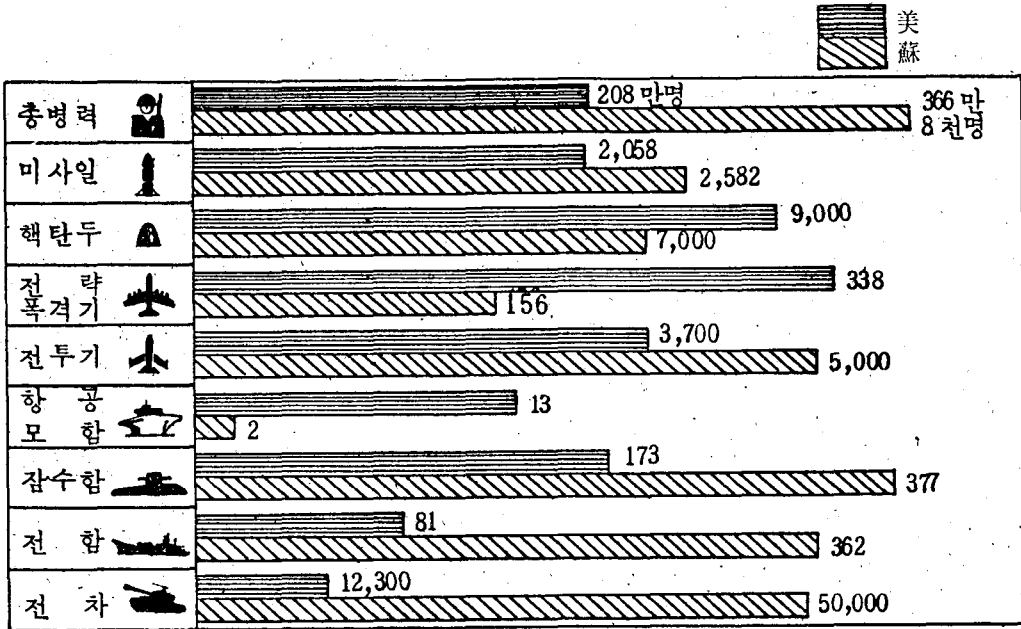
<資料：政府機關研究所 提供, 81年 5月>

위에서 보면 소련의 國防費는 1974年부터 1천억달러를 돌파하였다. 70年代에 계속 年 4~5%수준으로 증액하여 美國보다 每年 300억달러를 上廻하여 왔다.

소련은 79年度에 美國보다 무려 50%나 많은 1천 650억달러의 國防費를 支出하였는데 이는 GNP의 14%로써 美國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80年度 소련의 國防費가 1천 750달러인데 비해 美國은 그보다 476억 달러나 더 적은 1천 274억달러이다.

<圖表 3> 美·蘇 軍事力 比較(80年末 現在)



<資料：政府機關研究所 提供, 81年 5月>

다음 美·蘇의 軍事力을 80年末 現在를 基準으로 하여 대충 比較해 보면 위의 圖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總兵力에 있어 美國이 208 萬인데 비해 소련은 그보다 158 萬名이 더 많은 366 萬名이며 (1.75:1), 戰略미사일도 美國이 2,058 基인데 비해 소련은 그보다 524 基가 더 많은 2,582 基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核彈頭와 戰略爆擊機에 있어서는 美國이 優勢하다. 核彈頭는 美國이 9천탄두인데 비해 소련은 그보다 2천이 더 적은 7천탄두이다.

그리고 戰略爆擊機는 美國이 338 機인데 비해 소련이 156 機로 2.1배나 美國이 더 우세하다. 그러나 전투기는 美國이 3,700 機인데 비해 소련은 무려 1,300 機가 더 많은 5,000 機로 소련이 월등히 우세하다.

그러나 항공모함에 있어서는 美國이 壓倒的이다. 美國이 13 隻인데 비

해 소련은 불과 2隻에 지나지 않는다. 잠수함은 美國이 173隻인데 비해 소련은 377隻이나 된다. 戰艦은 美國이 81隻인데 비해 소련은 그 3~4배가 넘는 362隻이 된다. 戰車는 美國이 1만 2,300臺인데 비해 소련은 그 4배가 넘는 5萬臺를 保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美國은 核彈頭, 항공모함, 戰略폭격기 등에 있어서만 우세할 뿐 이를 除外하고서는 소련이 모두 우세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數量은 소련이 美國보다 우위라 할지라도 先進技術과 各種武器의 質은 美國이 소련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特히 소련은 現代式 精密武器와 裝備를 다루는 技術面에서는 美國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美國防省 研究技術擔當에 의한 「페리」報告(Fy82)에서는 美·蘇의 技術隔差가 現在 소련의 技術能力的 向上에 의해 차츰 좁혀지고 있으나 全般的으로 美國이 断然코 優位の 立場에 서 있다. 即 가장 중요한 基礎技術分野에 있어서 <圖表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련의 優位는 20個 部門 가운데 2個 部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現有裝備品中 美·蘇의 相對的 技術水準比較에 있어서 30個部門 가운데 소련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圖表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彈道미사일 防禦(ABM) 衛星破壞武器, 戰車 등 7個 部門으로서 美國이 優位에 있는 SSBN(彈道미사일原子力潛水艦) / SLBM(潛水艦發射誘導彈) 등 12個 部門에 차츰 接近해 오고 있다.

이 「페리」報告가 認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軍事技術面에서 美國이 아직 많은 分野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圖表 4> 가장 重要한 20 個의 基礎技術分野에 있어서  
美·蘇의 相對的 比較

「페리」-報告 (FY82)

基 礎 技 術	美國優位	均 衡	소련優位
1. 航空力學 / 流體力學		×	
2. 自 動 制 御	×		
3. 化 學 爆 藥			×→
4. 콤퓨타	←×		
5. 指 向 性 에 너 지		×	
6. 電子光學探知機 (IR 包含)	×		
7. 誘 導 및 航 法	×→		
8. 水 中 音 響	×→		
9. 마이크로素子 및 集積回路	←×		
10. 非音響潛水艦探知		×	
11. 核 彈 頭		×	
12. 光 學	×→		
13. 電 原 (兵器用)			×→
14. 製 造 / 生 產 技 術	×		
15. 宇 宙 空 間 推 進	×→		
16. 레이 다 探 知 機		×	
17. 信 號 處 理	×		
18. 소 프 트 웨 어	×		
19. 構 造 材		×	
20. 遠 隔 通 信	×		

註：←×壓倒的優位

×→優位이나 대체로 均衡

<圖表 5> 現有軍事裝備品の 美・蘇의 相對的 技術水準比較

「페리」-報告(FY 82)

現 有 裝 備	美國優位	均 衡	蘇聯優位
戰 略 兵 器			
ICBM (大陸間彈道彈)		×	
SSBN (彈道미사일原子力潛水艦)	×		
SLBM (潛水艦발사유도탄)	×		
爆 擊 機	×		
對 空 米 사 일			×
彈 道 米 사 일 防 禦			×
衛 星 破 壞 兵 器			×
戰 術 兵 器			
陸 上 部 隊			
地對空미사일(海上包含)		×	
戰 車			←×
砲		×	
步 兵 戰 鬪 車 輛			×
對 戰 車 誘 導 米 사 일		×	
攻 擊 헤 리		×	
化 學 戰			×
戰 域 彈 道 米 사 일		×	
航 空 部 隊			
戰 鬪 機 / 攻 擊 機	×		
空 對 空 米 사 일	×		
精 密 誘 導 兵 器	×		
空 輸	×		

1. 80年代 國際情勢展望과 特徵

現 有 裝 備	美國優位	均 衡	蘇聯優位
海 上 部 隊			
原 潛		×	
對 潛 戰	×→		
海 上 基 地 航 空	×→		
水 上 戰 鬪 艦		×	
巡 航 미 사 일		×	
機 雷 戰			×
水 陸 兩 用 戰	×→		
C <sup>3</sup> I			
通 信	×→		
指 揮 統 制		×	
對 電 子 戰		×	
監 視 및 偵 察	×→		
早 期 警 戒	×→		

이상과 같이 檢討해 볼 때 80年代에 예상되는 國際狀況의 主要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과 蘇聯은 80年代는 그 어느 때보다도 軍備競爭이 熾烈히 展開될 것이 豫想되며 따라서 美·蘇對決이 더욱 尖銳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美國과 蘇聯은 궁극적으로는 核戰爭의 威脅을 다 같이 念頭에 두고 있기 때문에 테땅트를 위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美·蘇는 一面 軍비증강으로, 일면 테땅

트 모색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노출시키고 있다.

둘째로 展望되는 것은, 80年代는 第3世界에서의 地域紛爭이 더욱 增大될 것인 바 그 樣相이 보다 國際化 性格을 띠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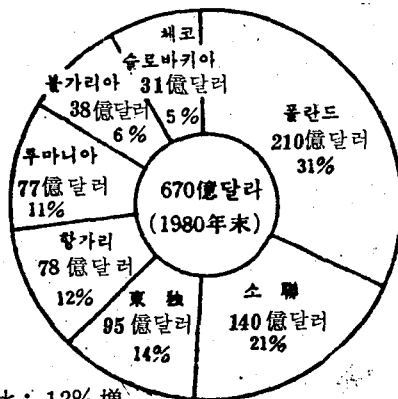
最近 國際戰略問題研究所가 第22次 總會에서 分析한 바에 의하면 第3世界에서의 紛爭急增要因은, 첫째는 開發途上國 自體內的 内部紛糾이고, 둘째는 既存國際秩序의 構造變化에서 오는 것이라고 分析한 바 있다.

美國과 소련의 對決은 第3世界에서의 支配權確保를 둘러싸고 그 투쟁이 치열히 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는 宗主國인 소련의 獨占影響圈에서 追從共產諸國의 離脱이 늘어 가고 있고 共產社會의 經濟事情은 더욱 어려워져 갈 것이다.

1980년 소련을 包含한 對西歐, 債務負擔만 하더라도 다음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무려 670억달러에 달한다.

<圖表6> 蘇聯東歐圈의 對西歐 債務負擔



前年比 : 12% 增  
 負債額 : 1976 年の 2 倍  
 유엔 歐洲經濟委員會 年次報告 (56.3.25)

<資料 : 政府機關研究所 提供, 81年 5月>

80년에 더욱 露骨化한 폴란드의 勞組 自由化要求는 體制改革까지 요구하고 있는바 80年代에 東歐諸國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소



資源缺乏(특히 에너지生産의 低下), 對西歐依存度の 增大와 對外債務의 增加, 第3世界에 대한 經濟負擔의 增加 그리고 東歐諸國의, 소련離脫 등이며 그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1980年代를 통해 밝은 展望은 없다.

소련 지도자는 이와 같은 一連의 國內問題로부터 國民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國外에서 軍事力行動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中東地域의 石油確保는 소련으로서는 起死回生の 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70年代의 소련의 對內政策을 보면 그러한 느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美·蘇 군사충돌의 저변에는 資源戰爭의 성격이 깔려 있는바 그 規模는 全面核戰爭으로까지는 이르지 않는 制限核戰爭 또는 通常戰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러나 逆으로는 소련이 이와 같은 國內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對外強硬策이 어렵게 되리라는 展望도 서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強硬모험정책을 어렵게 하는 否定的 側面을 다음과 같이 檢討해 볼 수 있다.

- ① 今後 소련 國防豫算이 소련全體經濟力으로 봐서 現在以上の 伸張(4~5% 水準)이 극히 困難하다고 보는 점.
- ② 美國을 비롯해서 西方側諸國이 소련의 軍事力增強에 대응해서 國防豫算의 增額 등 強한 對應措置를 講究하고 있으며.
- ③ 80年代 中期에 있어서 美·蘇 軍事밸런스가 대체로 均衡을 維持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通常戰力에 있어서도 量的으로는 소련이 優勢한 것 같이 보이나 質的인 面에서는 勿論히 美國이 優位를 確保하고 있다는 점
- ④ 70年代 후반에 있어서 소련의 아프리카, 中近東, 東南亞地域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勢力擴大는 힘의 空白地域에 대한 勢力浸透였는데, 1980

## 1. 80年代 國際情勢展望과 特徵

련에 대한 追從共產諸國의 離脫이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80年代에는 食糧기근, 에너지危機, 資源難의 深刻성이 날로 增加되고 景氣沈滯에 따른 先進工業國家들의 保護貿易政策強化 등으로 國際關係는 國家間에 自國利益의 經濟的 實利主義가 露骨化할 것이다. 이에 따라 全般的인 國際協力關係가 경색되어 갈 것이다.

특히 資源을 武器化하면서 先進工業國들에 挑戰하는 後進 第3世界國家들과 새로운 카르텔을 形成해가며 이에 對抗하는 先進工業國間的 對決樣相이 深化될 것이다.

끝으로 「존하켓트」教授라든가 「키신저」前美國務長官등은 80年代 中반을 美·蘇間의 軍事衝突의 가장 큰 危機로 봤다.

물론 브레즈네프의 軍事力膨脹 一邊倒보다는 「안드로포프」新任黨書記長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무모한 軍事衝突의 危險度를 상쇄할 것으로 展望되기도 하나 參考로 이들이 우려하는 80년대중반 危機說을 보면 다음과 같다.

81年度 美國의 軍事情勢報告書에서도 美·蘇間의 軍事衝突의 可能性은 앞으로 10年前半에 매우 크다고 言及했다.

「존하켓트」, 「키신저」등은 1985年頃을 위기로 보고 있다.

그와 같은 大體的인 根據趨勢로서는 ①美·蘇間의 軍事力均衡이 蘇聯에 有利하며 ②소련경제가 惡化一路에 있는데다가 소련의 우세한 軍事力도 80年代 中반에 들어서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③소련國內 및 東歐에 있어서 政治的 社會的 困難에 직면한 소련이 가장 有利한 軍事態勢에 놓여 있는 이 時期에 西方側에 어떠한 軍事行動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④歷史의 教訓에 의하면 過度한 軍事力을 갖고 있을경우 國內問題가 여러가지로 어려울 때 이것을 口實로 對外侵略으로 내닫는 例가 종종 있었다. 소련은, 80年代에

년에 와서는 레이건 政權이 이들 地域에 대한 「코뮤티먼트」의 強力 決意表明이 계속 나오고 있고 소련의 이들 地域에 대한 經濟負擔의 增加 및 親蘇 아프리카諸國의 소련 離脫傾向 등으로 第3世界에 대한 소련의 적극 策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

⑤ 특히 브레즈네프死亡(82年 11月 10日) 이후 새로 등장한 안드로포프 당서기장은 지금은 브레즈네프 강경노선을 지속할 것이지만은 國內經濟의 난경을 시급히 타개해 나가야 할 立場에 처해 있다는 점과, 투박한 브레즈네프의 強硬一邊倒 스타일과는 달리 強·穩 兩面性和 合理的 現實的 해결을 모색할 人物이라는 점.

⑥ 예상되는 石油生産量(85年目標; 6.2~6.45억톤)이 이룩되면 國內消費量은 自體의 國內生産量으로 確保할 수 있다고 보는 점 등이다. 以上の 側面으로 보아서는 85年 중반기의 美·蘇 衝突 위기설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80年代 國際狀況은 來日을 正確히 豫測할 수 없다. 多樣한 變數의 流動的 相互作用으로 急變하는 狀況이기 때문에 強大國이든 弱小國이든 모두가 “不確實性 時代”에 生存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分명한 것은 80年代에 美國과 蘇聯의 競爭關係는 <宿命的> 이라는 점이다.

美·蘇間의 熾烈한 競爭때문에 80年代의 國際秩序는 激動을 免치 못 할 것이다. 이 競爭에서 어느 한쪽이 뚜렷한 勝機를 잡으려면 10年以上이 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80年代는 美·蘇間에 勝敗를 다루는 年代가 될 것이다.

그 渦中에서 群小國家들에게는 不安과 危機의 80年代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本格的으로 東北亞情勢를 檢討해 보자.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 가. 概 觀

(1) 蘇聯의 極東軍事力 팽창이 積極化함에 따라 이에 맞서는 美國의 基本戰略은 中共, 日本과의 3角聯合牽制網의 구축하에 소련의 팽창을 抑止해 나가는 方向이다.

따라서 東北亞勢力均衡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美·中共·日本 3角聯合牽制網과의 對立인 3對1 게임의 양상으로 展開되고 있는바 東北亞에서는 不安한 勢力均衡關係가 展開되고 있다.

(2) 그러나 80년에 등장한 레이진美行政府는 蘇聯의 膨脹을 沮止하기 위한 戰略으로 友邦國과의 同盟強化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레이진行政府는 日本의 國際的 役割을 促求함과 同時에 東北亞에서 日本을 主軸으로 對處해 나가려는 戰略을 強化하고 있으며, 東北亞 安保에 있어서 日本의 役割을 重視하고 防衛費 負擔의 增加를 繼續 促求해 나가고 있다.

(3) 또한 레이진 行政府는 蘇聯軍事力의 極東膨脹과 北韓共產集團의 軍事力 增強의 威脅을 認識하고 韓半島의 戰略的 位置를 重視하게 됨에 따라 韓國에 대한 安保公約을 確固히 다짐하고 있다.

(4) 시시각각 國家利益우선의 冷酷한 現實主義行動의 可變性으로 인해 소련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美·中共·日本 3角協調體制는 美國意圖대로 步調가 잘 맞지 않고 있다.

經濟大國 日本의 獨自性增大와 實利主義, 美·中共間의 冷却狀態, 中·蘇의 화해 움직임 등 一連의 流動的 情勢與件은 그와 같은 시시각각의 냉후한 國益우선의 現實主義에 따른 가변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5) 이와 같이 생각할 때 周邊強大國의 속셈이 모두, 달라 3角 協調關係는 소련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소련의 勢力팽창을 당장 效率的으로 抑制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 나. 蘇聯의 極東軍事力 膨脹政策의 積極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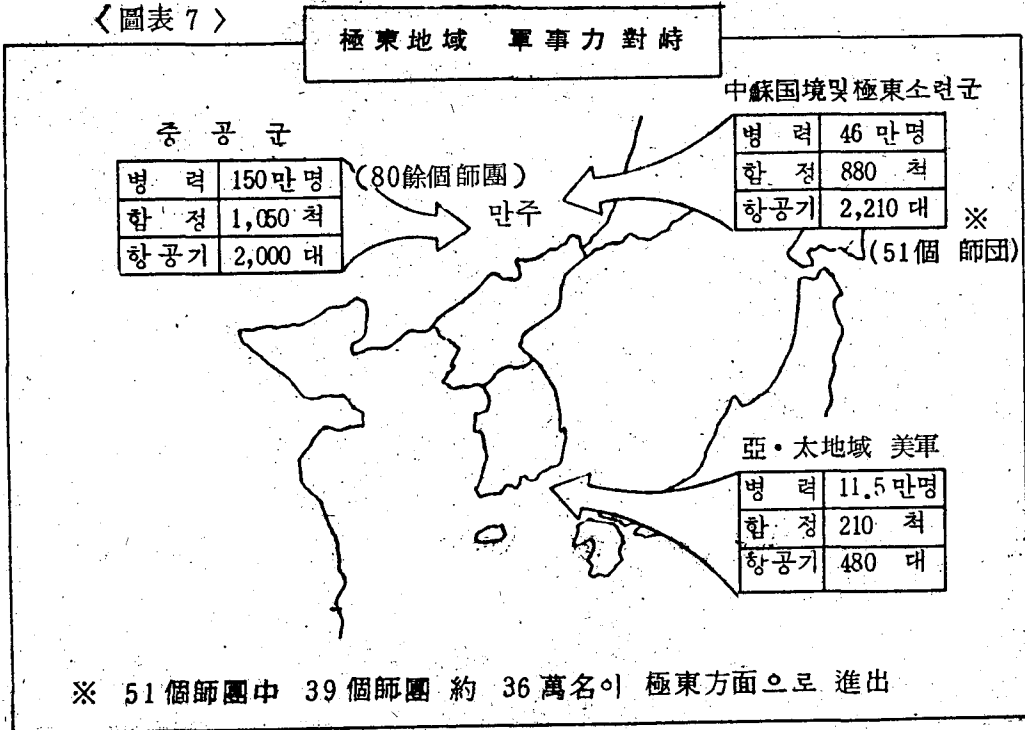
그러면 먼저 70年代, 80年代에 와서 현저히 露骨化한 蘇聯의 極東軍事力 膨脹政策에 대해서 檢討해 보도록 하자.

蘇聯의 戰略은 구라파, 극동, 페르샤灣, 中東, 아프리카 등 世界 到處에서 對美軍事力 優位確保를 통해 이들 地域에 대한 政治的 影響력을 擴大해 나가는데 있다. 「레이건」美行政府의 諮問役이며 하바드大學教授인 「리차드 파이프」같은 專門家들은 蘇聯의 軍事力은 侵略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強調했다.

蘇聯은 지난 10年사이에 極東에서 地上部隊, 海軍部隊, 戰略部隊를 質과 量面에서 크게 增強시켜 왔다. 蘇聯은 極東과 西太平洋에 全地上兵力과 全空軍力の 約 25%, 全海軍力の 約 30%를 配置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蘇聯은 極東에 3個軍管區를 두고있는데 그것은 ①시베리아軍管區 ②자바이칼軍管區 ③極東軍管區이다. 그리고 이 3個軍管區를 統轄 調整하는 統合司令部는 蒙古에 있다.

<圖表 7>



<資料: 政府機關研究所 提供, 81年 5月>

蘇聯은 全地上軍 184個師團 約 185萬中 그 1/4이되는 51個師團 約 46萬名을 4,500萬마일의 中·蘇 國境地帶에 集中 배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潛水艦을 包含한 艦艇 880隻, 航空機 2,210餘臺가 極東에 配置되어 있다. 이것은 滿洲를 中心으로 한 東北亞地域에 配置되어 있는 落後되고 貧弱한 장비의 中共軍 150萬名을 압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는 美軍兵力은 11萬 5千名, 함정 210隻, 항공기 400기를 보유하고 있는바 蘇聯軍事力이 美軍보다 월등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80년 4월 26일 日本방위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련은 極東에서 총 잠수함 130척중 60隻이 核잠수함으로 포진하고 있는바 이 잠수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함들은 西太平洋에 있는 美國潛水艦의 約 15배가 되고 있다.

注目되는 것은 81年 4月 3日 와인버그 美國防長官은 上院外交委員長의 證言에서 蘇聯은 移動式 핵미사일 SS20 250基中 175基가 西歐에, 그리고 나머지 75基는 中共, 日本을 包含한 亞洲를 겨냥하여 實戰配置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81年 7月 4日 日本의 「요미우리」新聞은 美國政府의 見解를 引用하여 蘇聯이 만일 85年에 對美軍事力優位の 頂點에 到達하면 蘇聯은 世界的으로 “同時多發的 侵攻”의 能力을 갖게 될 것이라고 報道했다. 즉 同 報道는 蘇聯의 侵攻은 우선 中東에서 始作될 것이지만 同時에 유럽과 아시아에 波及(韓半島와 日本)될 것임을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소오야, 쓰가루해협과 北海道가 蘇聯의 戰略目標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蘇聯은 日本의 北方 4個 領土중 구사시리, 에도로후 등 3個 領土에 79年初부터 이미 1個 師團正規軍을 配置함으로써 日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히 에도로후에는 「미그」21機 10臺를 增強 配置했다.

다음,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서는 極東進出의 발판으로서 元山灣의 海軍基地化說이 있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는 東南亞進出의 戰略要衝地로서의 羅津港의 利用이 積極化하고 있다.

羅津港은 咸鏡北道 東北端에 位置한 港內面積 50餘萬坪의 不凍港으로 大船碇泊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中·蘇 모두가 軍침을 당기고 있는 天惠의 港口이다.

羅津港이 蘇聯과 公式關係를 맺은 것은 지난 75年 10月 27日 「羅津港에서의 蘇聯船舶에 대한 奉仕協定」에 조인한데서부터 始作된다.

日本의 情報分析에 의하면 그간 羅津港을 往來한 蘇聯 船舶이 75年の 250隻에서 78年の 450隻으로 急增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79年 1月 1日 美·中共修交直後 1月 5日 모스크바放送은 北韓 副

## 韓半島의 周邊情勢

主席 朴成哲의 모스크바 訪問事實과 함께 蘇聯이 「羅津港을 自由로이 使用하도록 하는 議定書」를 締結했음을 報道한 바 있는데 이같은 事實은 北韓의 對外政策이 한 때 親中共에서 親蘇로 선회하는 조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 후에도 蘇聯은 極東에서의 蘇聯港인 「나흐트가」港과 羅津港이 相互 姉妹結緣關係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81년에 와서도 4月 9日 「모스크바」放送은 蘇聯의 沿海州地方에 있는 「노버스 머스크」工場에서 生産되고 있는 시멘트가 羅津港을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 및 그 밖의 太平洋國家로 輸出되고 있다고 報道했다.

또한 蘇聯 石油技術者들의 빈번한 羅津港 訪問과 81年 11月 12日 蘇聯 「遠東海運事業所」所屬 船舶들이 對北韓支援物資들을 싣고 羅津港에 빈번히 出入하고 있다고 「모스크바」放送이 報道했다.

더욱 憂慮되는 것은 蘇聯의 情報艦이 平常時에도 우리 東海의 浦項 東쪽에서 自己들 護衛艦과 驅逐艦 그리고 航空機의 保護를 받으면서 碇泊시키고 韓國·日本·美國海空軍의 모든 通信과 作戰情報를 蒐集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情報艦은 北韓의 情報蒐集活動을 支援해 주기도 한다.

蘇聯의 이같은 羅津港의 軍事戰略的 積極活用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極東進出의 露骨化는 우리의 安保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주게 되는 것이다.

蘇聯이 窮極의으로 東北亞에서 北韓카드를 利用하여 韓半島에서 紛爭을 惹起할 憂慮는 있는가?

여기에는 肯定的인 面, 否定的인 面の 兩面性を 同時에 考慮해 볼 수 있다.

먼저 肯定的인 面은 蘇聯은 韓半島에서 美國과의 直接的 對決은 可能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한 回避하나 美, 中共 離間 및 3角(美·中共·日本) 聯合體制를 分쇄하기 위해 「北韓카드」를 利用할 可能性을 全然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레이진政府가 NATO 戰力を 最優先적으로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고 또한 페르샤만과 印度洋에 集中하는 機會를 틈타서 蘇聯은 그 反對로 아시아에서 그 취약점을 노려 同時多發的 侵攻으로 韓半島에서 北韓을 사주, 紛爭을 惹起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80年代 國際情勢 展望)指摘한 바와 같이 蘇聯이 内外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돌파구의 一環策으로 北韓카드를 利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豫想되는 蘇聯의 韓半島 紛亂 획책의 類型으로서는 첫째는, 蘇聯이 北韓을 앞세워 代理戰爭을 시킬 境遇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蘇聯은 戰爭이 일어날 경우 中共이 北韓을 支援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을 逆利用하여 美國·日本·中共과의 3角關係를 離間시키는 획책을 기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韓半島는 자칫 잘못하면 強大國間의 代理戰場化할 憂慮도 없지 않다.

둘째는, 北韓을 第2의 아프가니스탄化, 즉 蘇聯軍이 브레즈네프 독트린(制限主權論)에 따라 直接 北韓을 軍事的으로 일단 占領하여 韓半島를 共產化하는 길이다.

이럴 경우는 北韓 内部에 분규가 深化되어 共產政權崩壞의 危險이 있을 때 이의 内部수습책을 名分으로 介入할 可能性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음 否定的 側面에서보면 蘇聯의 新任 「안드로포프」 党書記長은 強硬·穩健의 兩面性格을 띤 現實主義스타일의 세련된 人物로 알려져 있는 바 그가 繼續執權이 堅持되는 경우 브레즈네프의 軍事的 強硬一邊倒 政策보다는 韓半島 問題處理에 있어 合理的이고 現實적으로 解決하려 할 것

이다. 따라서 88 올림픽을 前後하여 韓半島 緊張緩和政策으로 現實化할 展望도 보인다. 이러한 것을 實証케 하는 最近 몇 가지 希望的 徵候는 ①안드로포프가 黨書記長이 되기 前에 中共의 鄧小平, 胡耀邦보다 먼저 平壤을 다녀갔고(鄧과 胡는 82.4 平壤訪問) ② 82年 10月 11日 蘇聯國營 다스通信代表 3名이 서울에서 開催되는 「아시아太平洋 通信社機構」(OANA) 第3技術委員會에 出席했으며 10月 17日에는 蘇聯文化省 美術保存局長「포포후」가 서울에서 開催된 「世界博物館協會아시아地域會議」에 參席한바 있다. ③한편 駐日 蘇聯大使가 「88 서울올림픽」에 野球種目競技에 參加할 可能性 등을 비친 것은 88年올림픽을 앞둔 韓·蘇間接觸의 좋은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蘇聯政府官吏 「포포후」가 「世界各地에서 國際會議時 韓國의 學者나 博物關係者들과 親해서 韓國의 友人들과 學術的 意見交換을 하고 싶었다」고 술회한바 있다.

이와 같이 蘇聯國營言論機關人士와 政府官吏의 訪韓은 우리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蓄積된 成果이며 韓半島 緊張緩和를 促進시키는 徵候라고 볼 수 있다.

蘇聯은 이미 81年 8月 10日 北京駐在 蘇聯大使를 통해 中共外交部에 대해 極東에 있어서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蘇聯·中共·北韓·日本·美國이 軍事演習時 事前通告)問題를 論議하자고 提議한 바도 있다.(中共은 拒絶)

82年 下半期에 와서 蘇聯은 中共의 國境에 威脅으로 看做되는 蘇聯兵力(46萬名) 除去問題에 있어서도 慎重한 考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結論的으로 韓半島 安保威脅, 더 나아가서 東北亞 安保威脅에 있어서 肯定的 情勢與件이든 否定的 情勢 與件이든 「안드로포프」 新任 黨書記長이 들어 섰다 해도 蘇聯의 極東軍事力 膨脹政策은 이미 다져진

교두보에서 後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本來의 膨脹政策은 여전히 擴大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 다. 美國·中共·日本의 3角對蘇聯合牽制網構築問題와 韓半島政策

##### (1) 美國

東北亞에 있어서 蘇聯의 팽창을 막기 위한 美國戰略은 무엇인가?

美國은 60年代에 와서 世界過剩介入을 反省하기 始作했다. 그래서 美國은 69年 12月의 「닉슨」독트린에 따라 美國의 防衛政策이 50年代 冷戰狀況下의 積極防衛戰略概念에서 選擇的이며 消極防衛戰略概念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美國은 구라파보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軍費支出을 抑制, 돈 안들이고 對蘇牽制戰略體制를 構築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여기서 나온 것이 美國은 對蘇牽制戰略에 있어서 「中共카드」를 써먹어 보자는 것이다. 즉 中·蘇紛爭을 活用하여 中共을 키워서 蘇聯을 막아보자는 戰略으로서 美國·中共·日本의 3角聯合體制下에 蘇聯을 封鎖해 나가는 戰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戰略下에서 美國은 中共門戶를 開放시키는 方向으로 나갔고 71年에 中共이 유엔에 加入되었으며, 72年 2月 닉슨, 키신저팀의 歷史的인 中共訪問이 있었고 上海共同聲明이 나왔다.

그후 카터 行政府에 와서는 中共接近이 더욱 積極化하여 制度的 措置로서 美國 總務하에 78年 8月 12日에 日·中共平和友好條約이 締結되었고 79年 1月 1日을 기해 美·中共間에 歷史的인 國交正常化가 이룩된 것이다.

이 制度的 兩措置로 名實共히 東北亞에서 美國·中共·日本의 反蘇聯合 牽制網이 制度的으로 形成되었다.

그러면 레이건 行政府가 들어선 以後의 對蘇戰略은 무엇인가? 蘇聯의 軍事力膨脹이 더욱 積極化함에 따라 레이건 行政府는 「힘」(軍事力 背景)을 바탕으로 한 對蘇強硬政策으로 나갔다. 그래서 첫째, 美國自體 軍事力의 大幅 增強이다. (對蘇軍事力 均衡回復에 注力하기 위해 向後 5 年間 1兆 6千億달러 投入計劃) 둘째, 무엇보다도 既存友邦 同盟國家와의 防衛協力을 強化하여 蘇聯의 膨脹에 共同으로 對處해 나가자는 戰略이다.(美國이 自國負擔을 줄이고 友邦國에 떠맡기려는 現實的 計算에서 나온 것임)

美國이 특히 對蘇戰略에 있어 友邦國과의 同盟強化方向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東北亞에서는 레이건 美行政府가 中共보다 友邦 日本으로 하여금 東北亞 安保를 分擔케 하려는 積極戰略으로 나가고 있음이 前카터 行政府때와 다른 점이다.

물론 레이건 美行政府도 美·中共·日本의 3角對蘇聯合牽制網構築의 基本方向에는 變함이 없다.

레이건 美行政府가 蘇聯膨脹 沮止戰略에 있어 中共카드 活用보다 日本 利用戰略으로 나가는 底意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美國의 對中共利益追求가 自由中國에 대한 信義와 現實的 利益을 犧牲시키면서 追求할 價値는 없다고 본 實利的 計算이 있었을 것이다.

現 時点에서 美國은 對中共利益追求보다 對自由中國 實利가 더 크다. 經濟的 基礎基盤이 너무 없는 中共의 엄청난 4大現代化計劃支援要請에 美國이 應하기에는 밑 없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라고 看做했을 것이다. 또한 10億 人口의 中共市場은 美國의 貿易패턴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둘째는, 레이건 行政府가 中共카드를 現實化하는 方向으로 나가지마는 美·中共間의 強力한 軍事戰略的 提携는 實際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副作用을 수반할 憂慮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그理由는 蘇聯이 西쪽의 나토와 東쪽의 美·中共同盟에 의해 挾攻당하리라는 憂慮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美國이 蘇聯을 견제할 정도로 中共의 軍事力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당장 200 億弗 以上の 軍事費가 要求된다.

따라서 美國으로서는 큰 副作用이 豫想되는 美·中共間의 軍事提携보다는 日本과의 關係強化가 보다 效果的이고 安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美國은 蘇聯의 極東軍事力膨脹에 對處함에 있어 日本의 防衛費 負擔을 더욱 促求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한편 레이건 美大統領은 蘇聯의 軍事力膨脹이, 아시아 太平洋으로 더욱 擴大하자 就任後 8 個月(81.8)만에 아시아盟邦國家와의 擴大反蘇聯合戰線을 構築하는 所謂 「레이건 독트린」의 運轉을 밝혔다.

즉 첫째, 西歐 NATO에 맞먹는 美國의 友邦인 日本·韓國 등과의 結束을 強化하고 둘째, 中共을 準同盟國家로 끌어올려 極東에서 蘇聯의 南進을 沮止하는 한편 셋째,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5 個國으로 하여금 共產베트남을 견제케 하자는 包圍戰略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擴大反蘇聯合作戰과 太平洋沿岸諸國과의 經濟協力強化를 意識한 美國은 最近 美議會 兩院合同經濟委員會報告書(81.6.25)에서 「太平洋共同體」 胎動이 보다 具體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美國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太平洋國家라고 누차 표명해 왔으며 80 년에는 美國의 太平洋貿易은 51%대 49%로 大西洋國家와의 貿易率을 추

월하고 있다. 키신저 前美國務長官은 앞으로 21世紀는 太平洋時代가 到來할 것이라고 展望한바 있다.

다음은 이제 이와 같은 立場에 처해 있는 美國의 韓半島 政策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美國의 韓半島政策樹立上的 脈絡은 어디까지나 美·中共·日本의 反蘇聯合牽制網構築을 위한 與件造成的 脈絡 次元에서 展開되고 있다. 이 바탕 위에서 레이건行政府는 東北亞에서 蘇聯의 軍事力膨脹을 막기 위한 韓·美·日 3角協調體制 強化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이 脈絡 次元에서 美國은 東北亞에서의 永久的 平和와 安定을 위해 韓半島에서 戰爭抑止와 緊張緩和政策을 強力히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美·中共·日本의 反蘇聯合牽制體制의 與件造成을 위해 美國은 첫째, 韓半島問題의 現狀安定的 妥結을 追求함으로써 美國이 中共과의 紛爭要素를 除去하며 둘째는, 北韓을 脫蘇化시켜 美·日·中共의 對蘇牽制網에 吸收시키는 巨視的 戰略으로 나가고 있다.

韓半島問題의 現狀安定的 妥結을 위한 制度的 措置로서는 ①南·北對話를 積極 중용하여 이를 實現시킴으로써 南·北間의 敵對意識을 우선 解消시키고, ②休戰協定の 效果的 處理를 위한 制度的 措置를 講究하며, ③南·北을 유엔에 同時加入시키고, ④美國·日本은 北韓을 承認하고 中共·蘇聯은 韓國을 承認하는 交叉承認方式에 의해 南·北平和共存體制를 定着시켜, ⑤韓半島의 現狀安定的 固定化를 美國影響下의 國際的 保障措置로 이룩해 놓으려는 線으로 봐야 된다.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美國이 韓國에 대한 安保公約에 있어서는 카터前行政政府가 駐韓美軍의 期限附 撤收條件이란 不安을 안겨 주었지만 레이건 美大統領은 現時點에서 不撤收의 公約을 確固히 다짐하고 있다.

특히 레이건 美大統領이 就任(1981.1.20) 直後 첫 招請外國元首로서 大韓民國의 全斗煥 大統領을 招請한 事實은 ①北韓의 軍事力增強의 威脅과, ②蘇聯의 膨脹을 沮止하기 위한 東北亞戰略에 있어서의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얼마나 重視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韓·美頂上會談 後의 共同聲明(81.2.1)에서 레이건 美大統領은 「美地上軍 戰鬪兵力을 撤收시킬 計劃이 없음(No Plans to Withdraw)」을 全大統領에게 保障했다.

同 共同聲明에서 美國은 北韓의 侵略에 대한 韓國의 抑制能力強化에 必要適切한 裝備類에 대한 販賣와 防衛産業의 技術을 繼續 提供할 것임을 確約했다.

그리고 韓·美共同聲明에 따라 81年 4月 29~30日間에 結친 第13次 年例安保會議에서는 82年부터 始作되는 第2次戰力增強問題를 비롯하여 F16 戰鬪機 販賣計劃등 그 어느 때 보다는 實踐方案의 具體的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이 合意에 따라 美國은 強力한 F16 戰鬪機 8機를 韓國에 이미 提供했으며 앞으로 모두 38機가 들어오는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F16 戰鬪機提供으로 空軍力에 있어 北韓보다 多少 劣勢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空軍力이 北韓에 크게 威脅을 주게 되었다.

東北亞에서 美國이 韓國의 安保役割을 重視하게 됨에 따라 韓·美經濟關係도 「安保와 經濟連繫」로 發展되어가는 顯著한 傾向이다.

이와 같은 認識에서 美國이 바야흐로 大韓民國을 政策優先順位 A구룹, 「나토」型으로 昇格시키고 있는 점은 파격적인 일로 看做되는 것이다.

韓·美間의 交易量은 70年度에 5億3千1百萬달러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80年度에는 1百億달러로 急增했다. 이제 韓國은 美國에 있어 第12位의 交易國이다.

또한 共同聲明은 環太平洋地域의 國際的 協力を 위한 相互間의 努力을 다짐하면서 兩國間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餘他友邦國들과도 緊密히 協議해 나갈 意思를 表明했다.

이것은 美國이 日本과 더불어 環太平洋地域의 國際的 協力を 위한 努力에 있어 韓國의 對等한 地位를 高揚, 相互協力の 意圖를 強力히 促求하고 우리도 기꺼이 이에 參與하는 意志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背景下에서 全斗煥大統領은 82年度에 와서는 호주 프레이저首相과의 會談에서 太平洋沿岸諸國의 頂上會談을 提議한바 있고 美國의 好意的인 支援, 協力を 다짐받은 바 있다.

다음 끝으로 이 機會에 駐韓美軍의 性格에 대해서 明白히 해둘 必要가 있다.

그 理由는 北韓은 걸핏하면 內外에 駐韓美軍全面撤收 主張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統一問題에 있어 協商의 先決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大韓民國이 美國의 傀儡로서 自主성이 없는, 自主國防 能力이 없는, 또 主權名分이 없는 敵手로 攻擊해 오고 있다.

美軍이 왜 韓國에 駐屯해 있는가?

金日成의 南侵은 결코 그의 獨自的 行動이 아니라 蘇聯의 世界政策의 一環으로 감행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金日成의 背後에 蘇聯과 中共이라는 共產主義 巨人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美軍은 지금 極東에 있어서의 列強間의 勢力均衡維持를 위해 派韓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駐韓美軍은 무엇보다도 金日成의 背後에 있는 蘇聯이나 中共을 牽制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金日成이 蘇聯이나 中共의 힘을 믿고 날뛰는 한 美軍은 韓國에 駐屯해야 한다.

우리의 論理는 金日成은 우리가 말겠지만 蘇聯과 中共에 대한 牽制役割은 美國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 背後에 蘇·中共이 버티고 있는데 美軍만이 撤収한다면 韓國이 獨力으로 蘇聯과 中共을 모두 막아내라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不可能을 強要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6.25直前의 애치슨宣言의 再版이 될지도 모르며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 까닭이다.

美軍이 駐屯해야 할 또 하나의 理由는 韓半島는 지금 戰爭이 終息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韓半島는 유엔軍, 北韓軍, 中共軍 亞전 司令官間的 休戰協定締結(1953.7)下에 잠시 休戰狀態에 있다는 狀況이다.

韓半島에서 戰爭이 完全 終息되지 않고 있는 狀況下에서 美軍이 어떻게 撤收할 수 있겠는가? 中共軍과 蘇聯軍은 北韓과는 咫尺의 거리에서 國境線을 두고 항상 嚴存하고 있다. 그러나 太平洋 건너 멀리에서 美軍이 韓半島의 威脅을 두고 本土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言語 도단이다. 全世界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國家群으로 갈라지고 그 國家群들이 同一群에 屬하는 國家들 사이의 國際連帶的 協力에 의하여 自體防衛에 임하고 있는 것은 그 중의 어떤 나라가 自主能力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30萬의 美軍이 西獨에 駐屯하고 있는 것은 西獨對 東獨의 關係 때문이 아니라 유럽地域의 勢力均衡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極東地域의 勢力均衡自體에 큰 變動이 없는 한 3萬8천 美軍은 韓國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만일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蘇聯과 中共은 北韓과의 相互防衛條約에 의해 自動的으로 즉각 介入토록 되어 있

다. 즉 蘇聯과 北韓間的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61.7.6) 第1條 및 中共과 北韓間的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61.7.11) 第2條를 보면 武力侵攻 當할 時 「雙方은 遲滯없이 모든 힘을 다하여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할 것」을 各各 條約上으로 約束, 明文化하고 있다.

美軍撤收에 대한 代案으로 4強에 의한 韓半島의 平和保障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日本이 美國의 核雨傘 밑에서 經濟的 繁榮의 꿈만을 追求하고 있는 以上, 問題는 如前히 蘇·中共 對 美國의 壓縮線이다.

이러한 韓國問題의 國際性 때문에 駐韓美軍은 韓國에 와 있는 것이고 따라서 韓半島의 平和는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를 綜合整理하면 駐韓美軍의 存在理由는

- ① 韓半島는 戰爭이 終息되지 않고 있는 休戰狀態에 있다는 점과
- ② 駐韓美軍이 北韓軍事力增強의 威脅에만 對處하는 一面的 性格이 아니라 金日成 共產集團과 確固한 防衛條約을 맺고 背後에 버티고 있는 蘇聯과 中共을 牽制하고,
- ③ 長期的으로는 美國은 韓半島의 共產化는 美國의 對東北亞 安保의 主軸이 되고 있는 日本에 대한 威脅이 되고 있음을 意識하며,
- ④ 共產勢力 膨脹에 對備하여 「東北亞 集團防衛의 自衛權」에 屬한 問題임과 同時,
- ⑤ 나아가서 東北亞에서 總體的 勢力均衡의 軸으로서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해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美國이 北韓에 대해서는 美·中共·日本의 反蘇聯合牽制體制網에 北韓을 吸收시키는 戰略을 펴고 있다는 점을 앞서 指摘했다.

金日成의 好戰性을 鈍化시키고 韓半島에서의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 美國은 北韓을 開放化시키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레이건大統領도 이런

戰略과 方向에는 基本的 變化없이 推進해 나갈 것이다. 다만 카터보다는 강한 立場에서 對處해 나갈 것이다.

北韓은 73年부터 美國과의 直接 平和協定締結 要求를 提議해 왔으나 美國政府는 “韓國參與 없는 北韓과의 直接 平和協定締結要求를 拒否한다”고 表明해 왔다. 美國이 北韓과 平和協定을 締結하는 것은 韓國을 軍事的으로 弱화시킬 뿐더러 結果的으로는 北韓을 合法的인 國家로 認定하는 結果를 招來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레이건大統領이 全大統領과의 會談에서도 共同聲明을 통해 「美國의 如何한 對北韓協商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이 반드시 完全히 參與하여야 한다」는 立場을 再確認했고 韓國政府의 參與없는 北韓과의 如何한 協商도 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分明히 했다.

또한 兩國大統領은 北韓의 主要同盟國(主로 中共과 蘇聯)들이 韓國에 대하여 相應한 措置를 取하지 않는 한 北韓에 어떠한 一方的 措置도 이 地域의 安全과 平和增進에 寄與하지 않는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分明히 뜻을 박고 있다. 이는 美國이 中·蘇가 韓國에 대하여 相應한 措置를 取하지 않는 한 一方的으로 北韓을 承認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確約한 것이다.

## (2) 中 共

다음은 中共의 內外政策과 韓半島政策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76年 9月 毛澤東 死亡以後 7年이 지난 지금 中共의 鄧小平 中心의 集團指導體制는 西紀 2千年까지 當面目標을 「社會主義現代化建設」에 두고 있다.

中共은 「社會主義現代化建設」을 實現하기 위해서 西紀 2千年까지 4大 現代化(農業, 工業, 科學技術, 軍事)計劃을 達成하는데 集中하고 있다.

鄧小平體制는 이 4大現代化計劃 達成 課題를 안고서 權力體制的 엄청난 內部진통을 겪어 왔다.

中共의 鄧小平體制는 4大現代化計劃을 達成하는데 무려 6千億달러를 策定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鄧小平은 中共의 落後現象은 毛澤東이 獨善的인 教條主義에 빠져 內部實相을 도외시한 나머지 經濟政策의 失敗에서 緣由된 것으로 봤다.

그리하여 鄧小平은 77年 7月 再登場以後 毛澤東의 革命主義, 思想教育 一邊倒의 「紅」을 뒤로 일단 밀치고 近代化를 向한 「專」을 즉, 實用主義 科學的 合理主義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4大現代化計劃達成의 最優先課題는 農業現代化를 바탕으로 한 經濟強國 建設이다. 즉 先 經濟強國을 建設하여 하루속히 物質的으로 先進國 대열에 들어서 보겠다는 것이다.

中共의 鄧小平 實用主義 集團指導體制는 보다 徹底한 마르크스·레닌主義路線 堅持를 表明하고 있지마는 戰術面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變革을 加하고 있다.

中共은 82年 9月 1日~10日에 걸친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를 契機로 鄧小平 中心의 集團指導體制(黨總書記 胡耀邦, 政務院 總理 趙紫陽, 軍事委主席 및 中央顧問委員會 主任 鄧小平)가 完全 構築되었다.

鄧小平副主席은 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 開會辭에서 「마르크스主義의 普遍的 眞理를 우리나라의 具體的 實際와 결부시켜 中國의 特色을 가진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일인 바 이것이 長期에 걸쳐 歷史的 經驗을 總括해서 얻어진 우리의 基本的인 結論」이라고 했다.

그리고 果敢한 對外開放政策과 對外交流를 積極的으로 擴大할 것을 宣言했다.

그는 80年代 3大 任務을 ①臺灣을 包含한 祖國統一의 實現, ②霸權主義反對, ③世界平和를 守護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적어도 今世紀末까지 20年間 機構의 改革과 體制의 改革을 推進하여 ①幹部隊列의 革命化 ②若年化 ③知識化 ④專門化의 네가지 事業에 注力해 나갈 것을 指摘했다.

中共은 이번 全國代表大會에서 ①1人統治禁止 集團指導體制 採擇 ②個人崇拜禁止 ③부패一掃 權力濫用剔決 ④中共最高機構로서의 黨中央委員會地位確認 ⑤黨中央規律審查委員會 權限擴大 ⑥顧問委員會 新設 ⑦黨主席制 廢止 黨總書記制 採擇 등을 骨子로 한 10章 50條의 黨憲을 採擇함으로써 지난 66~76年까지의 文化革命의 잔재를 清算하고 毛澤東이 行使했던 것과 같은 絕對權力行使를 制度的으로 封鎖했다.

注目되는 점은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改正된 新黨規約에 黨的 絕對 優位性을 認定하지 않겠다고 明文化한 점이다. 즉 新黨規約은 「黨도 반드시 憲法과 法律의 範圍內에서 活動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中共은 12全大會를 契機로 해서 制度的 措置로서 黨·政·軍의 完全分離로 4大現代化의 效果的 達成을 위한 執行權은 黨보다 行政府에 두는 國家優位體制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中共의 黨·政·軍의 制度的 分離는 그 形式에 있어서 西方民主主義國家들의 3權分立制度를 닮아가는 民主化, 專門化過程의 傾向이라 볼 수 있다.

黨主席 胡耀邦은 同 12全大會의 政治報告에서 毛澤東이 強調했던 階級鬭爭 擴大의 誤謬를 指摘한 점이 注目된다. 華國鋒은 이에 앞서 1977年 11全大會에서 「階級鬭爭이 黨的 最優先課題가 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無產階級)가 부르조아(有產階級)에 대항하는 階級鬭爭을 強化해야

하고 프롤레타리아 革命은 繼續되어야 한다」고 強調한데 반해 胡耀邦은 階級鬭爭을 통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極左偏向의 과오라고 主張했다. 그는 階級鬭爭이라는 것이 勞働者, 農民들이 인테리, 資本家에 對抗하는 것이 아니라 指摘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階級鬭爭은 階層間의 鬭爭이 아니라 社會主義를 威脅하는 敵들을 相對로 해야 함을 指摘했다.

胡耀邦은 특히 政治報告에서 1981년부터 今世紀末에 이르는 20年間 經濟建設目標에 있어 全國의 年間工農總生産額을 4배로 늘릴 것을 強調했다. 즉 1980년의 7千百億원에서 2千年的 2兆8千億원 前後로 增加시키겠다는 다짐이다.

다음 中共의 對外政策面을 보자.

胡耀邦 黨總書記는 政治報告에서 「獨立自主」의 對外政策을 堅持해 나갈 것을 宣言했다.

同 政治報告에서 「中共의 對外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의 科學的 理論을 基礎로 한 것이며 中國人民과 世界人の 根本的 利益에서 出發한 것」임을 指摘했다.

中共은 各國과의 關係發展의 指針으로서 一貫된 原則은 5原則으로써 ①「主權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②相互不可侵 ③相互內政不干涉 ④平等互惠 ⑤平和共存」이다. 中共은 이 平和共存의 原則下에 지난 33年동안 世界 125個國과 外交關係를 맺었다.

胡耀邦은 政治報告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는 共產主義가 언젠가는 全世界에서 實現 될 것이며, 革命은 결코 輸出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各國人民自身の 選擇의 結果로서만 얻어 진다」라고 했고,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平和 共存 5原則을 堅持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中共은 82년에 와서 日本教科書歪曲事件을 위시한 日本의 軍國主義復活을 警戒하고, 高踏的인 비난을 加하면서도 日·中共協力關係의 緊密性을 強調하고 있다.

한편 中共은 美國과는 더욱 冷却狀態에 들어 갔는바 臺灣에 대한 美國의 武器販賣를 契機로 戰術上 對美 冷却狀態에 있고 對蘇關係改善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中共의 궁극적인 이데올로기의 敵은 역시 美國이다. 따라서 美國이 中共의 友邦이 될 수는 없다.

中共은 民族·國家利益上 4大現代化計劃을 達成하자면 美國의 資本, 技術 등 諸分野의 絶對 援助가 事實上 要請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레이건 行政府의 對臺灣 武器販賣를 信義 배반이라고 보고 또한 4大現代化計劃 推進에 있어 中共이 要求하는 대로 레이건 行政府가 援助를 잘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戰術上 對美壓力 手段으로서 蘇聯카드를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은 종래 소련을 「現代修正主義者」, 「社會帝國主義者」로 규탄해 왔는데 스스로 변해가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12全大會에서의 新黨規約에서 이와같은 批判을 削除한 점이 注目된다.

이와 같은 現實與件 속에서 胡耀邦은 12全大會에서, 소련 브레즈네프가 提議해온 中·소關係改善案에 好意를 보인 것이다. 卽 그는 政治報告에서 「지난 20年間 소련은 中·소국경과 中共·蒙古國境에 大軍을 結集시켜 왔다……中略…… 重要的 것은 말이 아니라 行動이다. 우리나라 安全에 위협을 除去하는 實際的 措置를 취한다면 中·소兩國의 關係正常化는 可能하다. 中國人民과 소련人民은 옛날부터 友情을 갖고 있으며 中·蘇間의 國家關係가 어떤 狀況에 놓여 있어도 友

## 韓半島의 周邊情勢

情을 갖고 發展시키기 爲해 努力해야 한다」는 積極的 姿勢를 表明했다.

중·소關係改善問題는 소련側에서 먼저 積極提議해 왔다. 82年 3月 24日 브레즈네프前書記長이 타시켄트에서 關係改善提議를 한 以來 同年 10月 5日에 가서는 중·소 兩國 外務次官間에 論議를 해 왔는데 中共은 위의 政治報告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關係改善에 앞서 國境安全의 위협除去를 위한 실제 조치로서의 前提條件을 내세우고 있다. 卽 ① 중·소 및 中·蒙古國境線內의 소련兵力 철수 ② 소련의 共產베트남 支援中止 및 캄보디아내의 월남군 徵收 ③ 아프간 주둔 蘇聯軍 徵收등이다.

國境安全위협除去에 중·소쌍방이 다소의 容의를 보이고 있으나 根本的 完全除去는 어려우며 따라서 中·소關係改善問題는 長期化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소間의 실리적 교류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實用主義路線을 바탕으로 하는 中共의 集團指導體制가 12全大會를 계기로 安全하게 구축되었다 하나 100% 安全한 것은 아니다. 西紀 2千年까지 4大現代化計劃達成의 成功 여부에도 많은 난관이 있다. 3千9百萬의 中共 共產黨員中 그 半數에 가까운 1千8百萬이 毛澤東 治下 文化革命期間(66-76)에 入党한 者들로 아직도 下部조직에는 毛澤東과 4人幫 잔존세력이 적지않다.

따라서 鄧小平이 死亡하거나 4大現代化 政策推進이 失敗할 경우 權力鬭爭이 재연될 可能性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볼 때 中共의 歷史的 方向은 實用主義路線을 바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 情勢

당으로한 經濟的, 物質的 近代化 方向이 될 것이다.

結論적으로 오늘의 中共集團指導體制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속 표방하고 있으나 內容과 制度面은 크게 變革되어가고 있고 西方先進國經濟의 經營方式과 民主制度의 一部를 닮아가고 있는 傾向이다.

다음 이와 같은 立場에 있는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對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中國의 傳統的인 韓國觀을 보면, 中國은 中華思想을 바탕으로 한 文化的 優越성을 갖고 있고 周邊國家를 中國文化의 周邊의 國家性格으로서 主從關係視하려는 傾向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中國은 韓國과의 關係를 傳統的으로 “唇齒”(입술과 이)關係로서 보고 있는바 “唇亡齒寒”, 즉 “입술(韓國)이 망가지면 이(齒, 中國)가 시리다”는 同一安保圈意識을 가져왔다.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한마디로 韓半島緊張緩和追求와 現狀維持政策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72年 2月 닉슨 中共訪問時 美·中共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이 韓半島戰爭終結을 위한 緊張緩和措置努力에 合意한데서도 볼 수 있다.

美國은 中共과의 接近, 그리고 4大現代化計劃의 優先課業推進이라는 國內問題注力으로 因해 金日成의 조급한 武力南侵을 抑制하는 方向이며 이와 같이 생각할 때 美國은 中共에게 北韓의 戰爭抑制를 容용할 可能性이 크다고 보겠다.

78年 10月 23日 鄧小平은 日本을 訪問. 후쿠다首相과의 記者會見에서 「韓半島統一이 앞으로 5年, 10年이 아니면 100年이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韓半島가 統一될 날이 올것」이라고 言及했다.

中共은 長期的인 觀點에서 韓半島가 社會主義國家로 統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中共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積極 支持하고 있다.

80年 11月 11日에 中共의 對外連絡部長 姬鵬飛도 北韓側이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들고나온 「高麗民主聯邦制案」을 積極 支持했다.

82年 9月の 中共 12全大會에서는 「祖國統一을 위한 朝鮮人民의 투쟁을 支持한다」고 했다.

中共은 北韓을 지금까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로 闡明해왔고 南·北 유엔同時加入과 交叉承認은 2個의 韓國 分裂策, 永久分斷策이라고 하여 北韓立場을 그대로 支持하고 있다.

駐韓美軍撤收問題는 中共이 名分上으로는 撤收를 主張하고 있다.

81年 1月 10日 北韓政務院 總理 李鍾玉이 中共을 訪問했을 때도 趙紫陽 中共 首相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고 駐韓美軍 撤收를 다시 主張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中共은 駐韓美軍撤收를 바라지 않고 있다. 이는 中共이 소련의 膨脹을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蘇聯은 駐韓美軍 全面撤收를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對北韓 接觸이 開放化方向으로 나가고 있고, 日本이 北韓에 接近하고 있으나 中·蘇는 韓國과 公式적으로 接觸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兩國이 모두 北韓을 意識하고, 한편 雙方을 서로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鄧小平이 78年 11月 27日 워싱턴 포스트紙의 컬럼니스트「에반스」와의 記者會見에서 「韓國政府를 韓半島統一問題에 關한 主要要素로서 看做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韓國을 “事實上(de facto)의 政府”로 認定한 發言으로 볼 수 있는바 長期的 觀點에서 韓國과 交易을 트기 위한 接觸可能性의 徵候라고 보아진다.

특히 第24回 올림픽(1988년)開會國이 大韓民國으로 落着되자 81年 11月 22日 中共의 한 高位官史가 中共은 韓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88年 올림픽에는 參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8年 올림픽前에는 中共이 韓國과 正式 外交關係樹立까지는 어려울 것이나 非政治的 分野의 接觸은 漸増할 것으로 展望된다.

### (3) 日本

英國 國際問題戰略研究所는 世界國家를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目標指向型國家>와 또 하나는 <狀況指向型國家>다. 그런데 日本을 典型的인 <狀況指向型國家>라 했다.

日本은 ① 地政學上 섬이라는 孤立感을 갖고 있어 外部世界를 危險視하며 ② 天然資源의 不足과 人口의 過密等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20世紀初의 領土의 侵略代身 交易立國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③ 또한 國內的으로는 軍事大國化할 수 없는 憲法上의 制約 ④ 國政運營上 多黨制性格에서 오는 障礙要素 ⑤ 獨特한 國民性 등 이러한 몇 가지 內外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內外情勢의 흐름에 민감한 反應을 나타내는 물론 철저한 經濟的 現實主義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政策路線이 때로는 모호하며 이러한 狀況이 日本으로 하여금 소위 <全方位外交>指向이 되고 이것을 <狀況指向型國家>로 볼 수 있다.

日本朝野에서는 蘇聯의 軍事力팽창주의가 日本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을 우려하고 지금까지 憲法改正問題, 日本의 再武裝問題가 맹렬히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日本은 美國의 核雨傘下에서 每年 防衛豫算을 增加시키고 있으나 美國이 要求하는 대로 급작스럽게 올리지는 않고 漸進政策(go slow policy)으로 나가고 있다.

蘇聯의 極東軍事力이 날로 增強하게 되자 美國은 이에 對處해 나감에 있어 友邦國으로서의 日本의 役割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만큼 레이건行政府에 들어와서는 日本의 防衛費 增加를 強硬하게 促求하고 있는 方向이다.

그런데 日本은 81年度 防衛豫算 增加를 80年度 對比 7.61% 增額線에서 策定했는 바 GNP 對比率로는 0.906%다.

美國은 日本의 7.61% 增額에 不滿을 갖고 80年 12月 12日 브라운 前美國方長官 訪日時에 적어도 防衛豫算 9.7% 增額을 스즈끼(鈴木) 前 日本首相에게 強力히 要求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스즈끼前首相은 赤字財政 國民納稅負擔의 加重, 教育, 福祉豫算 등의 均衡問題 등을 理由로 9.7% 增額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美國의 繼續的인 防衛費增額 要求에 直面하여 스즈끼前首相은 결국 81年 11月 27日 참의원에서 83-87年中의 中期防衛計劃 期間中 防衛費를 GNP의 1%水準에서 견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82年度 日本의 防衛費는 GNP의 0.93%이다.

그런데 한가지 分명한 事實은 蘇聯極東軍事力 危險度에 對處하는 日本의 認識이 增大되고 있는 趨勢라는 점이다. 이 點은 81年 8月の 日本 방위백서에도 나타나 있다. 卽 極東蘇聯軍의 증강이 主로 中·蘇國境에 集中했던 70年代까지의 趨勢는 最近 갑자기 日本을 包含한 極東全域으로 擴大되었다는 危險意識이다.

81年 中旬에 와서는 美·日國防長官間에는 「極東有事時」에 共同作戰을 研究 마련하는 方向이 積極化하였다.

「極東有事時」는 곧 「韓半島有事時」를 主對象으로 한다. 卽 美軍出動에 다가 日本의 「準戰時 支援」의 性格이다.

韓半島에 出動하는 美軍의 日本國內施設 利用問題는 美·日安保條約이 規定하고 있다. 이 條約 第6條는 「日本의 安定에 寄與하고,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 및 安定에 寄與하기 위해 美國은 그의 陸·海·空軍의 日本에서의 施設 및 區域使用이 許容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世界到處에서 蘇聯의 同時多發戰爭의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고 蘇聯의 極東軍事力 팽창이 積極化함에 따라 東北亞·太平洋沿岸에서의 美·日合同 軍事訓練實施도 陽性化하고 있는 趨勢이다.

그런데 日本은 이와 같은 蘇聯의 威脅이 增大되고 있음을 認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中共과 함께 反蘇聯合牽制體制를 形成해 나감에 있어 깊이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意識이 강한바, 이는 日本이 어디까지나 國益上 蘇聯을 刺戟하지 않으려는 立場이다. 日本은 앞으로 蘇聯과 平和條約을 締結해야 하고 그 過程에서 北方4個領土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目標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은 蘇聯의 東시베리아 開發에 있어 4大會社가 파이프를 供給해 주는가 하면, 資本과 技術者를 보내 이 地域을 開發함으로써 앞으로 얻을 300億弗의 利益을 外面할 수 없는 立場이다.

日本이 蘇聯의 위협을 認識은 하고 있으나 그 위협도에 있어서는 美國생각과 差異가 있다. 美國은 蘇聯의 膨脹을 自國의 利益에 대한 直接的인 위협으로 생각하나 日本은 間接的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傾向이며 蘇聯 붕쇄는 美國自身の 問題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消極的 위협성에 대해서는 美國의 「존스 합킨스」大學의 나다니엘 제이어教授가 示唆한 바 그는 蘇聯의 對日本 위협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評價하였다.

첫째, 蘇聯은 軍事力에 바탕을 둔 外交로 日本을 위협하여 왔으나, 現在로서는 蘇聯이 軍事力으로 日本을 제압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蘇聯의 軍事戰術은 保守的인 면이 있으며 압도적인 軍事力으로 만반의 準備가 되어 있지 않는 한 蘇聯은 對日 공격 命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세째, 蘇聯의 對日 공격은 美國과 西歐의 즉각적인 反撥을 초래할 것으로 蘇聯이 具體的인 軍事行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武力示威程度에 그칠 것이다.

美·日間에 安保에 대한 根本的 差異點은 美國이 日本을 全世界的 戰略次元에 包含시키려고 하는데 비해 日本은 地域的 次元의 安保擔當으로 한정시키려는 傾向이다.

그러나 經濟大國 日本은 東北亞에 있어서 安保役割이 重視되어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美國의 積極 증용과 日本內의 國家主義 태동의 傾向 등 日本은 어차피 軍事大國化할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82년 11월 26일 새로 등장한 나카소네 新任首相은 「改憲」과 「自主國防論」을 강력히 내세우고 방위비를 GNP의 1% 이상 올릴 것을 主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國際的 役割을 強調하고 있다.

日本의 82年度防衛費는 現在 GNP의 0.93%이나 日本經濟力 規模가 워낙 크기 때문에 0.93%만 가지고도 지금 世界軍事國으로서 8位다. 1%로 올리면 日本은 86년에 世界7位가 된다. 앞으로 10年동안 防衛費를 GNP의 1%씩 每年 增加시키면 1987년에는 GNP의 1.5%, 1992년에는 GNP의 2% 이상까지 될 것인바 이렇게 될 경우 日本은 世界에서 美·蘇 다음의 第3位의 軍事大國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美國은 80年代 페르샤만 油田地帶의 위협을 認識하고 蘇聯의 太平洋進出을 막기 위해 日本에게 지금 1천해리 해상통로를 日本과 공동防衛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日本 外交政策의 第1의 順位는 經濟外交다.

코모토 토시오 日本經濟企劃廳長官은 81年 11月 19日 「美·日間은 貿易戰爭 直前까지 와 있다」고 警告한 바 있다.

1981年末 日本은 美國과의 貿易不均衡은 日本이 160億弗 경상수지 黑字를 내었다. 1982年 美·日貿易은 190億달러나 日本이 黑字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日本은 最高의 黑字經濟를 유지한 結果 3~5%의 經濟成長率은 지속할 것으로 豫상되며 貿易黑字를 반복하여 이대로 20世紀末에 가면 日本의 1人當 國民所得이 美國보다 平均 20% 앞설 것이 豫상된다.

日本은 60年代 鐵鋼, 70年代에 自動車, 80年代에 電子産業에 注力하여 특히 自動車附屬品, 電子産業技術의 一部는 美國을 凌駕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다음 이러한 位置에 있는 日本의 韓半島政策은 어떤가?

日本의 對韓政策은 基本的으로 美國의 對韓政策方向의 脈絡에서 展開되어 왔다.

日本이 韓國을 보는 價値尺度는 첫째는 韓國의 經濟的 價値와, 둘째는 日本安保를 위해 地政學上의 戰略的인 價値이다.

아프가니스탄事態로 美國의 對蘇強硬政策에서 오는 海上輸送路의 遮斷, 이란·이라크의 長期戰化로 호르머즈海峽 通過에의 障礙 등 페르시아만의 油田地帶로부터의 石油輸送補給을 받기 어렵게 되자 日本은 積極 資源外交의 多邊化로 나가고 있다.

日本의 對韓國安保觀을 보면 69年 「닉슨-사토키」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闡明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75年의 美·日頂上會談共同聲明에서는 「韓國의 安全이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해 緊要하고 韓半島의 平和維持는 日本을 包含한 東北亞에 있어서의 平

和와 安全을 위해 必要하다」고 擴大解釋한바, 이는 日本이 政·經分離政策 下에 南北韓을 모두 같은 次元으로 意識한 데서 오는 「狀況指向型 國家」 임을 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특히 81年 8月 14日 日本防衛廳이 閣議의 承認을 받아 公表한 「81年度 防衛白書」에서 日本은 公式文書로서는 처음으로 北韓의 南侵威脅의 可能性을 認定하였다는 점이다.

日本의 防衛白書가 지금까지 韓半島軍事情勢分析에서 南·北韓 軍事力에 關係 굳이 單純比較 以上の 見解를 밝히지 않는 것은 日本國內의 輿論을 意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1年度 防衛白書는 北韓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地域情勢를 「豫測不許의 事態」로 前提하고 「北韓은 現時點에서 中·蘇의 支援없이 單獨으로 一定期間의 戰爭遂行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分析했다.

지금까지 日本은 되도록이면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의 威脅과 그 強力한 補完役割을 하는 北韓의 軍事力增強을 別個의 것으로 보려는 傾向을 보여 왔다.

그러나 日本은 蘇聯의 極東軍事力위협이 증대되고 北韓의 軍事力增強과 北韓이 中·蘇支援없이도 單獨奇襲南侵할 수 있다는 위협을 認識하게 됨에 따라 종래 自國防衛에만 局限시켰던 安保觀을 점차 修正해 나가는 方向이 불가피해졌다.

이것은 日本이 이제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大의 顯在的 威脅認識과 美國의 아시아 積極化 戰略으로 인해 이제는 自國防衛局限의 安保觀을 漸次 修正해 나가는 方向이 不可避해졌다는 狀況을 意味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韓國에 對하는 姿勢는 지금까지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대해오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60億弗의 對日安保經協要請에 대한 日本의 對應姿勢에서 역력히 볼 수 있었다.

參考로 日本總理府가 調査한 81年度 日本國民의 對韓國人 意識을 보면 62%가 韓國을 「日本에 있어서 重要的 나라」라고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過半數가 넘는 53%의 日本人이 「韓國에 對해 親近感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도 나타났다.

日本이 世界에서 經濟的 大國으로 손꼽히게 되자 日本內에는 周邊國에 對한 「獨尊的 風潮」도 나타나는 傾向이다. 美國의 防衛費 分擔의 壓力 및 美·日貿易逆調深化로 인한 美·日間의 갈등, 「中共의 플랜트 輸入契約의 一方的 破棄로 中共분의 냉각」, 「韓國에 對한 경원」, 「蘇聯의 軍事力膨脹에 對한 혐오증」 등이다. 蘇聯에 對한 不親近感이 84%로 最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國益上 蘇聯을 刺戟하지 않으려는 立場, 이것은 모두 狀況指向型 國家로서의 日本의 두 개의 얼굴이다.

日本은 韓·日國交正常化以來 韓·日貿易 逆調로서 81年上半期까지 韓國이 205億弗의 赤字를 내면서 日本은 富를 蓄積해 왔다. 이는 韓國의 全體 對外貿易赤字의 70%를 차지하는 것이다.

日本은 蘇聯의 極東軍事力膨脹의 威脅과 北韓의 威脅下에서 美國과 韓國이 東北亞安保를 위해 防衛費를 오로지 全擔해온 그 그늘 아래에서 日本은 오늘날 世界 第2의 經濟大國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과 韓國은 東北亞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日本이 계속 無賃乘車할수는 없다는 立場이다.

蘇聯의 팽창에 대응하여 西方陣營은 安保戰略과 經濟政策은 不可分의 것이며 兩者를 링크시켜야 한다는 認識을 定立한바 있다.

즉 81年 7月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西方7個國頂上會議 宣言 第1項과 第36項은 經濟政策과 政治的, 安保의 目標사이의 相互關心을 支持하면서 이러한 協力關係가 「東·西關係에 있어 必要하다」는 점을 確認한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81年 5月 美·日頂上會談에서 스즈키前日本首相이 레이건 美大統領과의 共同聲明 第9項에서 「日本政府는 政府開發援助의 擴充에 努力할 것이며 世界の 平和와 安定維持를 위해 중요한 地域에 대한 援助를 強化해 나갈 것」에 分明히 同意한바 있다.

그 동안 日本은 위와 같은 「오타와」宣言이나 美·日共同聲明의 정신과 原則에 어긋나는 行爲를 해왔다.

向後 5年, 韓國의 軍事力이 北韓의 軍事力과 비슷한 水準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38億弗이 소요된다고 判斷된다.

이 중에서 막대한 既存의 國防費부담을 우리가 GNP의 6%로 계속 充당하더라도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을 위하여 追加로 소요되는 資금은 150億달러이다.

위의 「오타와」宣言이나 美·日共同聲明의 精神에 미루어 볼 때 日本은 東北亞의 共産化를 防止하기 위해 마땅히 치뤄야 할 代價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日本의 對北韓關係를 보면 日本은 79年 1月 美·中共修交의 餘파로 北韓과의 實利的 交流를 積極化하더니 80年에 前카터行政府때 美國의 非政治的인 對北韓接近이 多少 양성화하자 日本은 더욱 앞질러 日本·北韓間의 直接去來方式의 소위 「日·中共覺書貿易」 패턴을 北韓에 적용시키는 方法 등으로 積極化 하려 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日本이 79年 하반기부터 戰爭用軍수물자를 北韓에 大量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은 高性能레이더를 包含한 各種 무선장비, 小型고속정, 戰略物資 등을 北韓에 大量輸出하여 우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데 이것은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고 누누히 申明해온 美·日共同聲明에 明白히 위배된다.

81年 6월에 와서도 日本은 北韓勞動黨 외각團體인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副委員長 玄峻極 使節團의 日本入國 許容과 玄峻極의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81.6)을 통한 韓國現政府 비난 등 安保經協問題와 더불어 韓日關係가 어색한 양상도 없지 않았다.

日本은 ① 韓國을 견제하기 위한 外交的 지렛대로서 ② 商品販路 市場接近의 利潤동기에서 ③ 美國의 對北韓接觸開放化에 대한 反射的 反應으로서 對北韓接近을 強化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東北亞의 平和와 安保에 위협이 되고 있는 最近 北韓의 軍事力增強을 살펴 보도록 하자.

### 3. 南北對峙狀況과

#### 北韓의 軍事力 增強

1982년 2월 23일 위킴 前駐韓유엔軍司令官은 美上院 청문회의에서 北韓의 軍事力은 地上軍을 包含한 거의 大部分의 分野에서 韓國보다 2對1 또는 그 以上이며 单独戰爭遂行能力은 60日間이라고 証言한바 있다. 또 프레트 이코레 美國防省 次官은 「北韓은 中·蘇 支援없이 单独行動을 일으킬 수 있으며 美國은 北韓을 實質的인 单独威脅勢力으로 간주한다」고 証言했다.

金日成은 82年度 新年辭에서 「지난해 전투준비를 完了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強化했다」고 강조함으로써 對南武力赤化野慾을 거듭 드러냈다.

北韓軍事力の 위협에 대해서 위킴司令官이 81年 2月 美下院軍事委員會에서 証言한 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軍事力은 韓國과 比較해서 戰車 2.5對1, 장갑차 2對1, 砲兵 火器와 多彈頭로키트발사기 3對1, 항공기 2對1, 해군함정 4對1로 우세하다.

共産國家에서는 4位인 北韓 軍事力(註: 1 소련, 2 中共, 3 越盟)은 실제 戰鬪大隊數에서 韓國의 2倍로 나타나 있다. 北韓 砲兵은 사정거리, 火力規模에서 우세하다. 北韓 戰車는 一般的으로 그 性能이 良好하고 北韓 全軍事力은 地下에 은폐, 攻擊爲主로 訓練되고 있다.

北韓의 地上軍은 機動性, 火力 및 電擊戰에 알맞도록 편성되고 아무 경보없이 南韓內部를 강타할 수 있는 힘을 維持하고 있는 가운데 前方一線

### 3. 南北對峙狀況과 北韓의 軍事力增強

에 效果的으로 포진하고 있다. 步兵師團의 기계화나 기동화는 증강일로며 새로운 戰車大隊가 前方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 地上軍은 세계에서 가장 큰 規模의 유격·특공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유격·특공대는 한국 前方을 강타하거나 후방 주요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특공대는 韓·美軍事施設을 실물크기의 모조물로 꾸며 놓고 공격을 가하는 등 集中訓練을 받고 있다.

225대의 AN-2 輕輸送機는 韓國 後方 깊숙히 2千名の 특공대를 잠입시킬 수 있는 데 레이다網을 피한 채 저공비행하는 이 수송기 浸透는 韓·美방위상의 중요한 問題로 남아 있다.

北韓 海軍은 上陸攻擊과 후방시설 폭파를 위해 제작된 상당수의 高速 上陸舟艇 및 火力支援艦艇을 보유하고 있다.

北韓 空軍은 強力한 對空방위력과 함께 광범위한 공격작전력이 있다.

그리고 제트전투기와 폭격기를 生産하는 大規模공작창을 갖고 있다.

이상이 위کم司令官의 證言 內容이다.

다음 홍콩 發行 주간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82. 3. 5)는 北韓 특집에서 韓國戰爭이 재발할 경우 北韓은 전쟁발발 短時間內에 韓國防衛力の 20%를 파괴할 수 있으며 48時間이내에 T-62戰車로 공격하는 등 南侵初期에는 우세하다고 보나 美國이 空軍力を 동원하고 駐 韓美軍을 增強하는 한편 核武器의 使用까지 고려하게 될 때 北韓의 金日成이 그 이후의 事態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앞서 特攻隊이야기를 했지만 北韓 全560個 大隊中 3분의 1인 약 10만명이 特攻隊로 편성되어 있다. 이 특수부대는 70년도에는 불과 1만 2千名이었다. 이 特攻隊는 韓國戰場의 두 가지의 地理的 特性을 考慮하여 편성했다. 하나는 비무장地帶를 가로지르고 있는 험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갑차를 선두로 한 北韓軍의 攻擊은 3個 侵攻路를 통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韓國軍의 방어가 유리하다. 다른 특성은 韓國의 經濟的 戰略的 심장인 서울이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40km (北韓 Frag - 7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안되고 중심방어와 전술적 後退가 불리하다는 점이다.

北韓은 이런 狀況을 고려하여 제 8 특수군단을 장갑차가 통과할 수 없는 山岳地帶의 후방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訓練했고 동시에 空軍과 水陸兩用舟艇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計劃을 세웠다. 北韓은 3個 師團을 신속히 渡江시킬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北韓은 모든 軍事力을 保護하기 위해 광범위한 시설물을 건설해 놓았다. 1970年이래 地下에 지원시설을 갖춘 7개의 새 비행장을 건설했다. 北韓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30일간 견딜 수 있는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전방 지하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는 특히 近年에 北韓은 海軍力에서 장비와 艦艇數가 大幅 增加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즉 北韓은 潛水艦 19隻, 미사일 18隻, 其他 艦艇 392隻을 보유하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北韓이 이와 같이 우리보다 軍事力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장비의 質과 技術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80年代 中盤期까지 정밀무기를 갖게 된다.

82년부터 始作되는 第2次韓國軍戰略增強計劃을 完了하고 80年代 下盤에 이르면 大體로 南北韓軍事力均衡關係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空軍의 劣勢는 F16 戰鬥機의 派韓으로 상쇄되며 A-10 근접지원기 1個大隊도 韓國에 배치된다.

3. 南北對峙狀況과 北韓의 軍事力增強

美國의 對韓國防의 公約의 確固함, 그리고 韓國戰力增強의 大幅強化, 韓美聯合에 의한 首都圈死守의 防위태세와 決意가 그 어느 때보다도 確固한 現時點에서 北韓이 單獨 기습공격을 가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圖表 8〉 南北韓의 軍事力 比較

內容 \ 地域	韓 國	北 韓
人 口	3,880 萬名	1,994萬名
總 兵 力	601,600	782,000
國 民 總 生 產	603 億弗 (1980)	141 億弗 (1979)
國 防 費	44 億弗 (1981)	14.7 億弗 (1981)

[資料: The Military Balance 1981~1982]

※ 1人當 軍事費 (80年末)

韓國: 95 달러, 北韓: 180 달러

## 南北韓의 軍事力 比較

地域 內容	韓 國	北 韓
	兵 力： 520,000	兵 力： 700,000
陸            軍	△ 軍團司令部 5	△ 軍團司令部 8
	機械化步兵師團 1	戰車師團 2
	步兵師團 20	車輛化步兵師團 3
	機甲旅團 2	步兵師團 35
	獨立步兵旅團 2	高射砲師團 3
	特戰旅團 7	機甲師團 5
	對空砲兵旅團 2	偵察旅團 4
	戰車大隊 7	步兵旅團 4
	砲兵大隊 36	輕步兵旅團 8
	地對地미사일大隊 2	特攻旅團 26
	地對空미사일大隊 2	獨立戰車聯隊 2
	陸軍航空旅團 1	獨立步兵聯隊 5
		로켓트大隊 82
		地對地미사일大隊 9



地域 内容	韓 國		北 韓	
	陸			渡江聯隊
			水陸工兵大隊	3
			空挺大隊	5
	△ 戰 車	860	△ 戰 車	2,650
	裝 甲 車	696	裝 甲 車	1,000
	大砲 (105 미리카지)	2,000	野 砲	4,100
	迫 擊 砲	5,300	迫 擊 砲	11,000
	地對地미사일	12	로켓트砲	3,400
	對戰車砲	180	對戰車砲	미 상
	對 空 砲	106	地對地미사일	39
	地對空미사일	125	高射砲	8,000
	0-2A 航空機	14		
	헬機 (TOW장착)	135		
	〈注'文中〉			
	세리단戰車	1,000		
軍	野 砲	37		
	T O W	미 상		
	헬 機	56		

地域 內容	韓 國	北 韓
陸 軍	地對空미사일 △ 豫備兵力 110 萬 8 個 步兵師團	미 상 △ 豫備兵力 260 萬 23 個 師團
海 軍	兵 力(海兵包含): 49,000 △ 驅逐艦 10 프리게이트 7 警備艦 3 大型高速艇 8 大型哨戒艇 10 海岸哨戒艇 28 掃海艇 8 上陸艇 24 <注文中> 潛水艦 1 프리게이트 4 하푼미사일 120 △ 豫備兵力 25,000	兵 力: 31,000 △ 潛水艦 19 프리게이트 4 大型高速艇 18 大型哨戒艇 33 高速砲艇 141 魚雷艇 177 海岸警備艇 30 上陸艇 94 海岸防禦미사일基地 2 △ 豫備兵力 40,000

地域 內容	韓 國	北 韓
空    軍	兵 力： 32,600	兵 力： 51,000
	△ 作戰機 378	△ 作戰機 700
	武裝直升機 10	輕爆擊機大隊 3
	戰鬥飛行團 10	戰爆機大隊 13
	輸送飛行團 1	要擊機大隊 12
	戰爆機大隊 12	地對空미사일旅團 4
準 軍 事 力	郷土豫備軍： 280 萬	保安隊 및 國境守備隊 3
	海岸警備隊：	萬 8 千名，小火器 및 對空火
	輕航空機 25	器로 武裝된 民兵隊
	헬 機 9	

[資料：The Military Balance 1981 - 1982 ]

## 4. 結 論

### — 安保 및 統一에 미치는 影響 —

이제 結論으로 이러한 韓半島 周邊情勢가 우리의 安保 및 統一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 言及하겠다.

#### 가. 安保面

蘇聯의 팽창주의는 全世界的 規模로 擴大되고 있다. 안드로포프 新任 書記長이 이끄는 蘇聯共產黨體제도 現在의 팽창주의 노선에서, 또한 軍備競爭에서 後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論述한 바와 같이 蘇聯은 지난 10年間 極東에서도 軍事力 팽창 一路로 나갔는바 北韓 羅津港 등 諸港灣據點 팽창은 우리의 安保에도 直接·間接의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日本 安保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美國·日本·中共의 3角聯合牽制網의 形成을 基本的으로 항시 意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軍事力 팽창으로 나가고 있다. 이 聯合網을 分쇄하기 위해 蘇聯이 北韓카드를 利用할 可能性을 全然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美國·日本·中共의 對蘇 3角聯合牽制體制의 차질, 中·蘇和解 모색, 北韓의 中共密着 등으로 나타나는 北方 3角關係의 可變性 등 東北亞勢力均衡關係의 不安定性은 韓半島의 緊張要因이 되고 있다.

國際權力 關係는 「힘」과 國益優先主義만이 現實的 價値로서 尊重되는 이상 韓半島는 자칫하면 周邊 強大國들간의 利害調整과정에서 秘密 흥정의 희생물이 될 危險要因도 있음을 항시 警戒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北쪽에 대해서 警戒해야 할 것은 北韓共產集團이

金正日世襲體制에 대한 反撥과 內部的 諸不滿要因 해소책으로 蘇聯의 軍事力 팽창에 편승하여 對南冒險을 할 우려도 全然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은 周邊強大國은 공통적으로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바라고 있고 따라서 戰爭抑止의 方向인데다가, 美國의 徹底的 對韓國 防衛公約, 韓國軍戰力 強化로 北韓共產集團의 正規戰에 의한 全面武力南侵은 어려운 與件에 있다.

또한 北韓共產集團은 80年代 중반기에 들면서 우리의 軍事力이 北韓軍事力과의 격차를 메워 나 갈 것이라는 戰略형세와 또 大韓民國의 經濟發展이 第3世界 國家들로부터 점차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바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內外情勢與件下에서 金日成의 남은 길은 오로지 우리 內部的 混亂을 促進하여 우리 內부에 게릴라 特殊團을 침투시켜 武力으로 一舉에 赤化統一을 획책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점을 경계해야 한다.

#### 나. 統一面

다음, 統一面에 미치는 影響을 보면 短期的으로 周邊強大國들은 韓半島統一問題에 消極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周邊強大國들의 韓半島政策은 現狀維持政策이다. 왜냐하면 韓半島는 周邊強大國들의 가장 利害相衝地域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나라도 韓半島에서의 獨占的 地位를 갖는 것을 相互 許容치 않을 것이다.

이같은 相互牽制要因은 곧 周邊強大國들로 하여금 韓半島 現狀維持政策의 立場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周邊強大國들은 韓半島 現狀變更을 招來케 하는 統一

문제에는 消極的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봐서는 우리의 平和統一接近에 希望的 趨勢가 展開되어 가고 있다.

세계의 全般趨勢는 多元化, 開放化, 自由化의 要求 및 平和共存趨勢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西는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國益優先의 現實主義에서 交易과 各 分野의 交流와 協力이 增大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앞으로의 不可避한 趨勢다.

특히 오늘날 共產社會의 變動趨勢를 볼 때 우리의 平和統一접근에 대단히 希望的인 徵候가 보이고 있다.

共產社會의 變化趨勢는 첫째, 理念變質(革命性 <이데올로기> 爲主에서 벗어나 現實利益우선의 實用主義) 둘째, 統治體制面의 變化 즉 1人支配體制를 止揚하고 集團指導體制指向의 趨勢 셋째, 技術官僚 소위 테크노크라트 계층의 役割增大 넷째, 中央集權的 黨經濟體制的 變化(資本主義 經濟方式의 一部 모방 및 도입) 다섯째, 個人的 欲求 刺戟 및 個人的 生活向上을 위한 鬭爭 여섯째, 宗教의 집진적 부활 등의 徵候를 들수 있다.

이와 같은 變化徵候로 共產社會는 지금 體制改革의 진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趨勢가 東歐 폴란드를 비롯하여 특히 中共의 變化趨勢다.

지금 共產社會에서 가장 문을 닫고 있는 社會가 北韓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은 金日成·金正日世襲體制가 들어선 이후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革命傳統강조의 閉鎖政策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위의 共產社會의 불가피한 變化徵候를 볼 때 北韓共產集團도 결국은 세계의 開放化趨勢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中共이 毛澤東 우상의 1人支配體制에 증지부를 찍고, 科學性, 合理性을

던 實用主義的 中道 集團指導體制로 나가고 있는 共產社會 權力體制的 趨勢를 볼 때 金日成·金正日 世襲體제도 限界가 올 것으로 展望된다.

金日成은 스탈린死後와 毛澤東死後의 1人偶像支配體制的 末路를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金正日體制的 限界를 감안할 때 北韓도 결국은 狂信的 革命至上主義가 퇴조되고 온건 合理, 實用主義的 路線이 부각됨으로써 政治體제도 中共과 비슷한 中道的 集團指導體制가 形成될 展望이 크며 그와 같은 集團指導體制는 內外政策에 있어서도 過激보다는 온건 合理性을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무모하게 對南冒險 또는 革命에 의한 武力赤化 統一戰略을 포기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金日成 共產集團이 向後 5年間 武力南侵의 機會를 상실하고 赤化統一이 어렵게 되어 우리가 金日成의 武力南侵 위협을 막고 우리 內部에 그들이 노리는 革命的 可能的 分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南北關係는 「發展競爭」의 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같은 狀況으로 發展하는 경우 그들 스스로가 生存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平和定着 努力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의 可能性은 우리에게 希望的이다.

## 参 考 文 献

- o 81年度, 82年度 韓半島の 周邊情勢  
(統一研修所 教材, 申喆均)
- o 関丙天; 國家安保論
- o 李相禹; ① 80年代 韓國의 國際安保環境  
② 國際關係論
- o 具永祿(갈W.도이취); 國際政治의 分析
- o 金俊燁; 中共과 아시아
- o Times, News Week (82年1月~11月)  
U.S News and World Report (82年1月~11月)
- o 國際問題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o 世界週報(82年1月~11月)
- o The Economist (82年1月~11月)

其他: 「페리」一報告(Fy 82), The Military Balance 1981 - 82



## 韓半島 周邊情勢 ( 要約 )

### 1. 80年代 國際情勢展望과 特徵

危險地域：中東 및 페르시아油田地帶

蘇聯에너지難 解消위해 軍事력에 의한 產油地帶 支配  
憂慮됨.

- 軍備競爭熾烈—美·蘇對決 尖銳化
- 地域紛爭增大—國際化樣相
- 소련 追從共產諸國 離脫傾向
- 食糧難, 에너지危機, 資源難深刻

先進國保護貿易政策強化 ※ 全般的 國際協力關係 경색

80年代 中盤：美·소 軍事衝突危機說 [존하켓트, 키신저]

[肯定的側面] ① 소련軍事優位

② 經濟惡化, 東歐離脫, 第3世界負擔, 過度한 軍事力

※ 內外難境打開의 突破口로서 冒險

[否定的側面] ① 소련國防豫算 現在以上 伸張困難

② 美國의 強力한 軍事的 對應

③ 「안드로포프」新任黨書記長의 性格—合理的,  
現實, 強穩, 兩面人物

④ 中·소 和解움직임

[小 結 論] ※ 美·소間 競爭勝敗—10年内판가름

※ 群小國家—不安과 危機의 80年代

## 2.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東北亞情勢

### 가. 概 觀

- 國益優先 現實主義行動의 可變性으로 因해 소련팽창沮止 위한 美·中共·日 3角對蘇牽制網—不安한 勢力均衡關係
- 레이건 美行政府, 東北亞安保—既存友邦國同盟強化로 對處方向, 日本 防衛費分擔增加 및 國際的 役割 促求
- 3角協調體制 차질로 소련팽창의 効率的 억지 難關

### 나. 蘇聯의 極東軍事力 팽창의 積極化

- 지난 10年間 全地上兵力, 全空軍의 25%, 全海軍의 30% 極東에 配置.  
“同時多發侵攻能力” — 韓半島, 日本 波及
- 羅津港據點爲始 極東進出 露骨化, 日本北方領土에 1個 師團
- 膨脹露骨化 또는 勢不利時—“北韓카드” 利用 (①代理戰爭 ②아프가니스탄化)의 憂慮를 警戒해야 함.

### 다. 美國·中共·日本의 3角對蘇聯合牽制網 構築問題와 韓半島政策

- (1) 美國 : ○ 對蘇牽制戰略 中共카드利用 基本이나 「레이건」美行政府 日本利用積極化—防衛費 1% 增加促求, 1천해리 海上동로 共同分擔促求
- 「레이건 독트린」—아시아反蘇聯合擴大戰略強化
  - 北韓軍事力 增強 現實的 認定 — 韓國의 戰略的 價値重視—對韓國 防衛公約確固.
  - 「레이건」美行政府—韓國參與 없는 北韓과의 協商않음
- (2) 中共 : ○ 當面目標 : 「社會主義現代化·建設」 4大現代化計劃推進
- 12全代表大會 (82.9.1~9.10) : 集團指導體制構築, 毛澤東 1人偶像化 清算.

○美國과는 冷却狀態, 中·蘇 和解움직임, 平和共存 5 原則바탕  
외交

○韓半島現狀維持政策—北韓의 統一政策積極支持

(3) 日本 : ○「狀況指向型國」으로 經濟實利第 1 主義로서 <全方位外交>

○經濟大國으로서 獨自性增大, 美國壓力있으나 獨自的 防衛의  
漸進政策 83~87 中期計劃 防衛費 1% 增加策定

○對蘇聯合牽制에 있어 美·中共보다 消極的

○「極東有事時」—美·日共同防衛協力強化

○軍事大國化趨勢—韓國의 戰略的 價値檢討要

### 3. 南北對峙狀況과 北韓의 軍事力 增強

○ 위킵前 駐韓유엔軍司令官—美上院청문회 (82.2.23) 證言

北韓軍事力: 地上軍을 包含한 諸分野 韓國보다 2 倍 또는 그 이상  
單獨戰爭遂行能力 60 日間.

○ 北韓總兵力 78 萬 2 千 (急增), 韓國 60 萬 1000

○ 近年海軍力 大幅增強—잠수함 19 隻, 미사일함 18 隻, 기타함정 329 隻

○ 韓國戰爭再發時 韓國防衛力の 20% 強打可能

○ 全 560 개 大隊中 3 分の 1 10 萬名 特攻隊 225 台의 AN-2 輸送機 利  
用, 韓國後方內部混亂時 奇襲攻擊敢行 可能性 警戒

○ 82~87 第 2 次 韓國軍 戰力增強—北傀奇襲攻擊에 능히 對処

#### 4. 結 論

##### — 安 保 및 統 一에 미치는 影響 —

##### 가. 安 保面. : < 蘇聯의 膨脹主義 全世界的 規模로 擴大 >

- 蘇聯의 極東軍事力膨脹—韓國安보에 直接間接威脅
- 勢有利 또는 不利時 “北韓카드” 利用可能性 常存
- 美·中共·日本의 對蘇3角聯合牽制網의 차질, 中·蘇 화해 모색, 北傀의 中共密着 등으로 北方3角關係의 可變性 등 東北亞勢力均衡의 不安定性은 韓半島緊張要因.
- 周边強大國 利害調整과정 秘密홍정 (韓半島問題) 警戒
- 金日成 正規戰 武力南侵與件不利時 特攻隊奇襲 南侵警戒 [後方攪亂]

##### 나. 統 一 面

- 短期的: 周边強大國 韓半島統一問題에 消極的, 韓半島現狀維持政策—  
韓半島現狀變更不願
  - 長期的: 平和統一接近에 希望의 趨勢
- (1) 世界全般趨勢: 多元化, 開放化, 自由化, 平和共存, 交流, 協力增大趨勢
  - (2) 共產社會의 變動趨勢: ①理念變質 ②集團指導體制化趨勢 ③1人偶像化止揚 ④中央集權的 黨經濟體制의 變化 ⑤테크노크라트의 役割增大 ⑥個人生活向上 福祉指向
  - (3) 폴란드, 中共의 社會主義現代化, 開放化, 實用主義
  - (4) 北韓 金日成 共產集團도 결국은 革命主義 퇴조, 開放化 不可避 穩健, 合理的「集團指導體制」指向—對南現實主義, 南北平和共存段階 오면 우리 平和統一 可能性에 有利

〈非賣品〉

統 一 問 題

1983年 2月 21日 印刷

198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所



레닌主義革命戰略·戰術運用原理

<表 6 >

戰 略			戰 術			備 考	
定 義	形 態	計 劃	定 義	形 態	計 劃	註 釋	
戰略이란 革命的 該當段階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撃 方向을 決定하고 革命的 力量(主要 및 副次的 豫備軍)을 적절히 配置할 計劃을 作成하여 革命的 該當段階 全期間에 걸쳐 그 計劃을 實踐하기 위한 鬭爭이다.	I.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戰略 ○ 私有制默認 ○ 勞·農同盟 獨裁	(1) 段 階: 부르조아 民主主義 革命戰略段階 (2) 目 標: 封建遺制清算 (3) 指 導: 가. 力量配置② ○ 主力軍; 프롤레타리아트 ○ 豫備軍; 農民 ○ 中立化; 부르조아지 나. 速度維持(戰術交替·配合)③ 다. 方向維持(戰略目標)④	戰術이란 運動의 滿潮 및 干潮, 革命的·昂揚 및 沈滯의 比較的 짧은 期間에 「프롤레타리아트」가 行動할 路線을 決定하고 鬭爭 및 組織形態 그리고 標語를 낚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交替하며, 또한 그것들을 配合(結合)하는 方式 등으로 그 路線을 實踐하기 위한 鬭爭이다.	攻擊型 戰術 ○ 平和蜂起 戰術 ○ 武裝蜂起 戰術 ○ 지릴라戰術 ○ 人民戰爭 戰術	(1) 段 階: 滿潮期戰術段階 (2) 目 標: 攻擊任務遂行⑦ (3) 指 導: 가. 鬭爭形態·組織形態·標語選別 ○ 非合法的 鬭爭形態(武裝暴動·總罷業) ○ 非合法的 組織形態(黨露出·罷業委員會) ○ 非合法的 標語(好戰的 標語) 나. 核心的 고리捕捉(核心問題處理)	① 新民主主義革命은 人民民主主義革命과 같은 方式의 革命이며 第2次世界大戰末에 命名된 「人民民主主義革命」보다 앞서 毛澤東이 使用한 名稱이다. ② 同盟勢力的 對象範圍決定을 뜻함. ③ 戰術을 適時適切하게 交替·配合토록 操縱함을 뜻함. ④ 어떤 戰術을 취하는 境遇에도 戰略目標을 銘心하도록 하는 것임.(後退時까지도) ⑤ 農民을 主力軍에 包含시킴이 特徵이다. ⑥ 國內豫備軍이 第1豫備軍인데 比하여 國外豫備軍은 第2豫備軍이 된다. ⑦ 戰略目標 達成에 直接 寄與하는 任務遂行이다. ⑧ 幹部救出 및 自體生存 維持 任務遂行이다. ⑨ 隊列整備 및 力量備蓄 任務遂行이다. ⑩ 滿潮期가 造成되기 以前에 打倒對象을 孤立化, 決定的 時機를 造成하는 任務遂行인 但 同盟하면서도 主導權만은 堅持하는 것이 必須要件이 된다.(主敵包圍戰術) ※ 運用的 核心은 「指導」에 있다.(成敗關鍵)	
	II.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① (新民主主義 革命戰略) ○ 私有制默認· ○ 諸派聯合獨裁	(1) 段 階: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段階 (2) 目 標: 外勢驅逐 및 封建制 清算 (3) 指 導: 가. 力量配置 ○ 主力軍; 勞動階級 領導下의 勞農同盟⑤ ○ 豫備軍; 打倒對象外 全階層⑥ ○ 第2豫備軍; 國際革命力量 나. 速度維持 다. 方向維持		後退型 戰術 ○ 退却戰術 ○ 協商戰術 ※ 協商은 一定한 支配領域을 掌握하고 있을 때의 後退임.	(1) 段 階: 干潮期戰術段階 (2) 目 標: 後退任務遂行⑧ (3) 指 導: 가. 鬭爭形態·組織形態·標語選別 ○ 合法的 鬭爭形態(經濟鬭爭·部分罷業) ○ 合法的 組織形態(黨潛入·勞動組合·協同組合利用) ○ 合法的 標語(妥協的 標語) 나. 核心的 고리捕捉		
	III. 社會主義革命 戰略 ○ 私有制否定 ○ 프롤레타리아 獨裁	(1) 段 階: 社會主義革命戰略 段階 (2) 目 標: 私有制清算 (3) 指 導: 가. 力量配置 ○ 主力軍; 프롤레타리아트 ○ 豫備軍; 貧農 ○ 第2豫備軍; 隣接國 프롤레타리아트 나. 速度維持 다. 方向維持		防禦型 戰術 ○ 平和戰術 ○ 中立化戰術 ○ 浸透戰術 (프락치) ○ 暴露戰術 (데마고기) ○ 테러戰術	(1) 段 階: 沈滯期, 昂揚期戰術段階 (2) 目 標: 防禦任務遂行⑨ (3) 指 導: 가. 鬭爭形態·組織形態·標語選別 ○ 合法·非合法的 鬭爭形態配合 ○ 合法·非合法的 組織形態配合 ○ 合法·非合法的 標語配合 나. 核心的 고리捕捉		
基本的·持續的 次元	目標達成에 따라 轉換	革命段階와 戰略段階의 一致 및 持續性	從屬的·可變的 次元	迂迴攻擊型戰術 ○ 統一戰線戰術 ○ 人民戰線戰術 ○ 人民民主戰線 (戰略化)	(1) 段 階: 上同 (2) 目 標: 迂迴攻擊任務遂行⑩ (3) 指 導: 上同 ※ 潮水가 昂揚됨에 따라 非合法的 要素加重	潮水干滿과 戰術段階의 一致 및 可變性	出處: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 (1939)

